

K o r e a n A c h i e v e m e n t s

건축사 건축

칼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현재와 미래
시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과 소금이 되는 건축의 토양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3

<http://www.kira.or.kr>

20100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현재와 미래

the here and the hereafter of KAAB(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 KAAB)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종차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의 지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본원의 업무가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 졸업생들의 국제적 유동성을 촉진하고 더불어 건축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상호인정 국제기구인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가 2008년 발족된 것이다. 캔버라 어코드가 결성된 일은 전 세계 건축학 교육 인증기관들의 설립 역사상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당당히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캔버라 어코드와 함께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국제 건축학 교육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프로그램 인증사업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9년 5월에 UNESCO-UIA 건축학 교육 인증/인정 위원회([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UVCAE)])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성과들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재해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인증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기준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캔버라 어코드 회원국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전문학위 과정이 이루어내지 못한 이러한 성과의 혜택이 반드시 후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인증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 일 것이다.

본 인증원은 2010년 현재까지 전국의 21개 대학의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인증작업을 마쳤다. 올해에도 9개 프로그램이 인증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대다수의 건축대학들이 인증준비에 여념이 없다. 일부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의 교육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건축학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 기 위한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각 대학들의 특색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고도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제도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진일보한 인증사업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 등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아직까지 인증 제도를 설립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동양권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을 대상으로 국제 인증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 대상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몽골에서는 국내 인증사업을 참관하기 위해 금년 내에 우리 인증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국제인증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과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앞으로 우리 후학들의 활동무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의구 / Lee, Eui-ko, KIRA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hings we have to do now?

그동안 주변의 건축문화에 대한 갈증과 변화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협회가 이런 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건축계의 통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확신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정관의 총족요구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책임을 느끼고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생각도 강력하게 들었지만, 그동안 10년이 넘게 쏟아온 시간과 열정을 헛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국제적으로는 생활의 대부분이 되어온 협회관련 활동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 주변의 강력한 사퇴만류를 평계로 사퇴를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 협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를 통해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라는 틀 안에서 다자간 혹은 양자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도 여러 나라와 FIA를 맺고 있으며,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국제행사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저 함도 이런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상대국에게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입지를 알리고 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협력의 들은 결국 자국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득을 얻어내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계도 5년 전 의무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변화되면서 회원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 신규 건축사 등록자들은 기입을 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점차 위세를 잃어가며 설 자리를 위축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만 변화의 대세에서 밀리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적인 상황의 변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건축이 건설의 하위분야로 전락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을 건축문화로서 도시를 이루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라는 우물 안의 좁은 시야를 벼리고 과감하게 바깥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통섭’이라는 말이 우리시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협회나 건축사가 되어야 통섭의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나 건축사 회원들이 건축사로서 존재함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성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이미 얻어진 국가의 위상을 통해 우리 건축사집단도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 매체나 출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타 경쟁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등함을 알리고 우리의 건축사 회원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2017년의 UI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FIKA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이나 남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후배들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치활동을 통해 한국의 건축을 더 알릴 수 있고, 유치를 통해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너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작지만 네덜란드 건축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대해 봄은 너무 먼 바램일까요? ■



신춘규 / Shin, Chungyu, KIAI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학력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빛과 소금이 되는 건축의 토양

The soil of the Architecture which light and salt become

OCUS

역사의 흐름을 넘지시 지켜볼 때 변화는 늘 새로움을 동반하곤 한다. 그리고 현실에 깊이 안주하기보다는 늘 상 새로움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할 때만이 그 변화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곧잘 변화의 속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론 전혀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지금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증폭되는 무서운 파괴력은 단기간에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는 빠르게 우리를 그 흐름에 동화시키기도 하고 아주 느리고 조용히 엄습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변화의 속성은 속도에 따라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으로도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매우 사소한 변화가 의외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변화의 속성은 불규칙한 카오스의 성질을 들판 함유하고 있기에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현명한 적응력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마치 그것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할수록 기업이 생존전략에서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점차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건축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환경과 문화, 역사성·사회성을 중시하는 건축사들과 건축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대처 논리는 어김없이 적용된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가는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환경에서 한 몇몇 건축기는 아날로그적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각종 이즘과 트렌드의 변화를 겪게 되는 요즘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새롭게 다가올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현명한 준비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치즈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치즈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치즈가 어떤 내용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정해진 틀이 아무리 작고 불편徜徉이라도 그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변화의 가치를 찾는 것일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우리 건축계도 이제 변화의 흐름을 올바로 직시하고 당당히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건축사의 훈훈한 미담과 건축계의 슬한 담론과 이야기 거리를 담고 소통의 장치로서 작용하는 건축매체 종사자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다채로운 숨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그 차이야 저마다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본질의 순수성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못지않게 풍성하고 따뜻하게 나가온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우리 주변에 진정 이를 옮겨가고 있는 재능있는 건축언론인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세어본다. 몇몇 유능한 선배들, 그리고 하나, 둘, 셋… 머뭇거리다 그 터전의 빈곤함에 끌끌 헤를 차보는 현실이다. 그저 건축언론인들을 양산하지 못하는 태생적 자기자본의 취약성과 명분의 미약, 상업주의에 눈먼 틀에 박힌 현실아주, 양적 팽창을 초래한 시장환경과 경영의 자질부족 등을 탓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생존전략에 우위를 점령함으로써 공룡과도 같이 비대해진 왜곡된 설계집단구조와 이로 인해 야기된 건축환경의 변화는 더욱 재능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건축사와 건축언론인들의 화려한 향기를 질퍽하게 만드는 요인 이 되곤 한다.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 우리 건축계의 현주소는 어떠하지. 하나하나 그 여분을 수렴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세계시장에 부합되거나 커다란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면밀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참신성과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 기워내야 하고 이를 위한 티전의 자리매김, 건축사들의 행동환경을 옮아매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변과 성실, 넉넉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건축사와 그들의 참신한 건축언어와 이를 논하는 진지한 담론들이 가득 넘쳐나는 건축세상이 사회 곳곳에서 풍성하게 펼쳐졌으면 여원이 없겠다. 푸념 섞인 한탄만은 제살을 깎는 침경암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건축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글자 한 글자가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대양으로 성장하는 진정 세상을 바꾸는 일임을 굽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올바른 건축계의 방향성을 찾고자, 더 넓은 건축환경을 위한 밀거울에 보탬이 되고자 신문의 지면을 차곡차곡 채워간다는 실천정신을 가져본다. 보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사색하듯 건축언론을 인식하고 진정 건축계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건축언론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숨죽이며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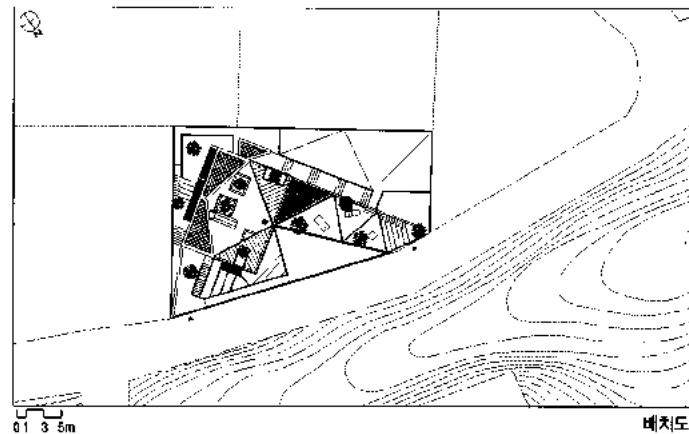
김용삼 / Kim, Yong-sam
건축디자인신문 애이언뉴스
편집국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자금
출판기획위원
- (사)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SOAK) 이사
- (사)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SEDIK) 충보마케팅 위원장
- 서울시 2010서울건축문화재
점검위원회 총보마케팅위원
- 건축문화학교 문화부 전문위원

자안재

Purple hill house

김효만 / 정희원,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by Kim, Hyo-man, KIRA



배치도

면적(평수)	277.5	층간고(층고)	3.5m
면적(㎡)	25.25	층고(㎡)	9.18
면적률	50.5%	기본설계료	1,000,000원
건폐율	30.0%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알리아움판
구조설계	MSI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세라믹
설계인원	1인(2인)	구조설계	오상영, MOA구조
설계일자	2010.09.09	시공사	(주)제호
설계인	김효만	설계담당	장경진, 임지원, 박은혜
설계비	33.80%	사	김종오

용인 광교산 등산로 입구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대지는 주변풍치가 좋은 경사지로서 산속에 개발된 선용주거단지 중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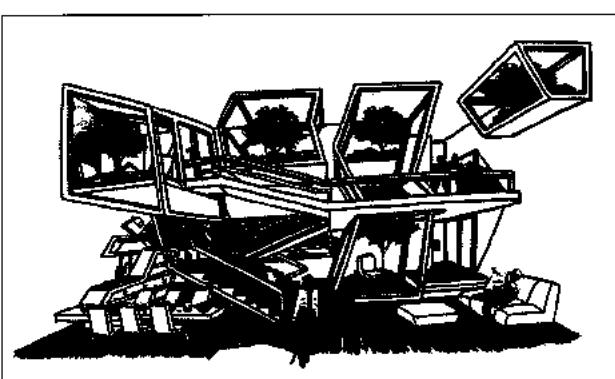
이 주택의 계획은 거실 등의 주요생활공간이 바라다 볼 주방향의 배치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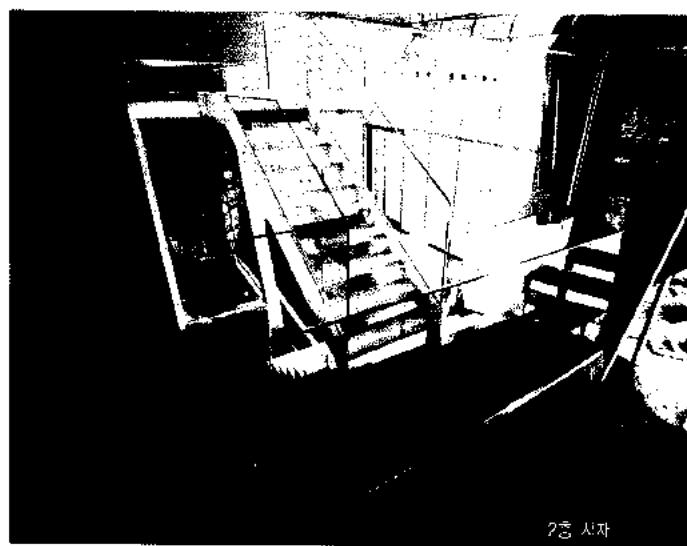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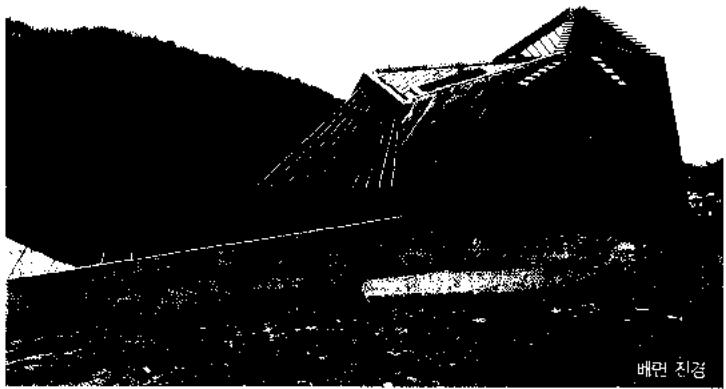
결국 영원히 개발되지 않고 자연녹지로 보존 될 건너편 산을 향한 배치가 선택되어 결정되었고, 이 매력적인 영구적 자연풍경의 도입이라는 선택은 동시에 북서향이라는 비환경 효율적 문제를 가져다주었고, 우리는 남향과 동향의 태양빛을 실내로 유입하기 위한 고민을 또한 해야만 했다.

유용한 태양광을 유입할 여러 개의 '빛의 유리상자'를 실내공간의 여러 레벨에 도입하였고, 이 유리상자 속에는 꽃과 과실수를 심어 유리공중정원으로서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풍경의 도입과 계절적 친환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연스럽게 모든 방들이 개인적 정원을 가지게 되는 복합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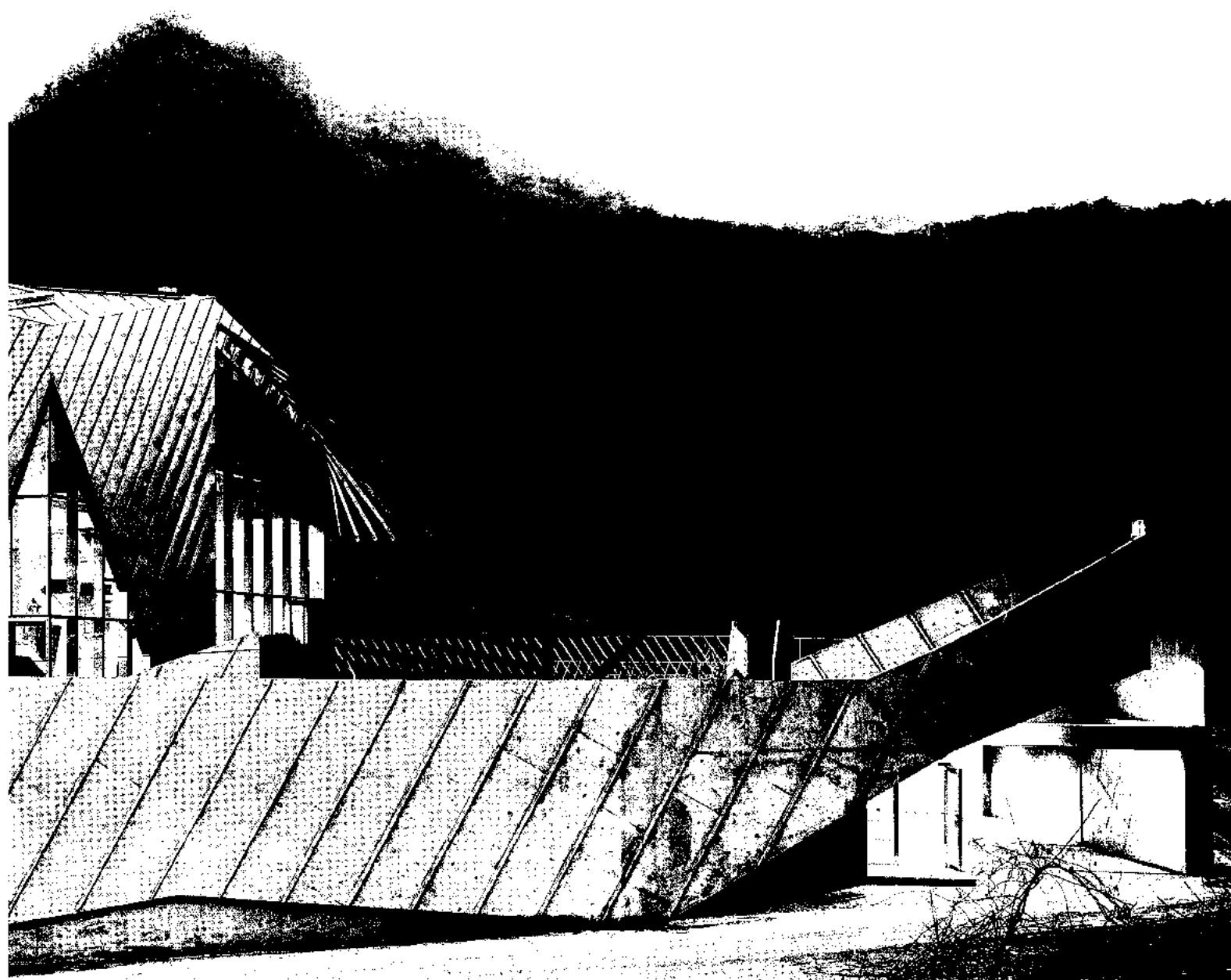
3개 층 높이로 수직 개방되어있는 거실, 식당 등의 주요 공적공간위에 빛을 머금고 떠나는 여러 개의 공중정원인 유리 상자들이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이며, 역동적인 내부공간은 이집의 상징적 인상이 될 것이다.

주변자연의 형태적 맥락과의 동질적 조화를 의도하며 만들어진, 자연을 건축화한 조경적 공간으로서의 이 집이 마치 보라색의 작은 언덕처럼 주변 맥락 속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자연과 공생하기를 기대한다. ■





전면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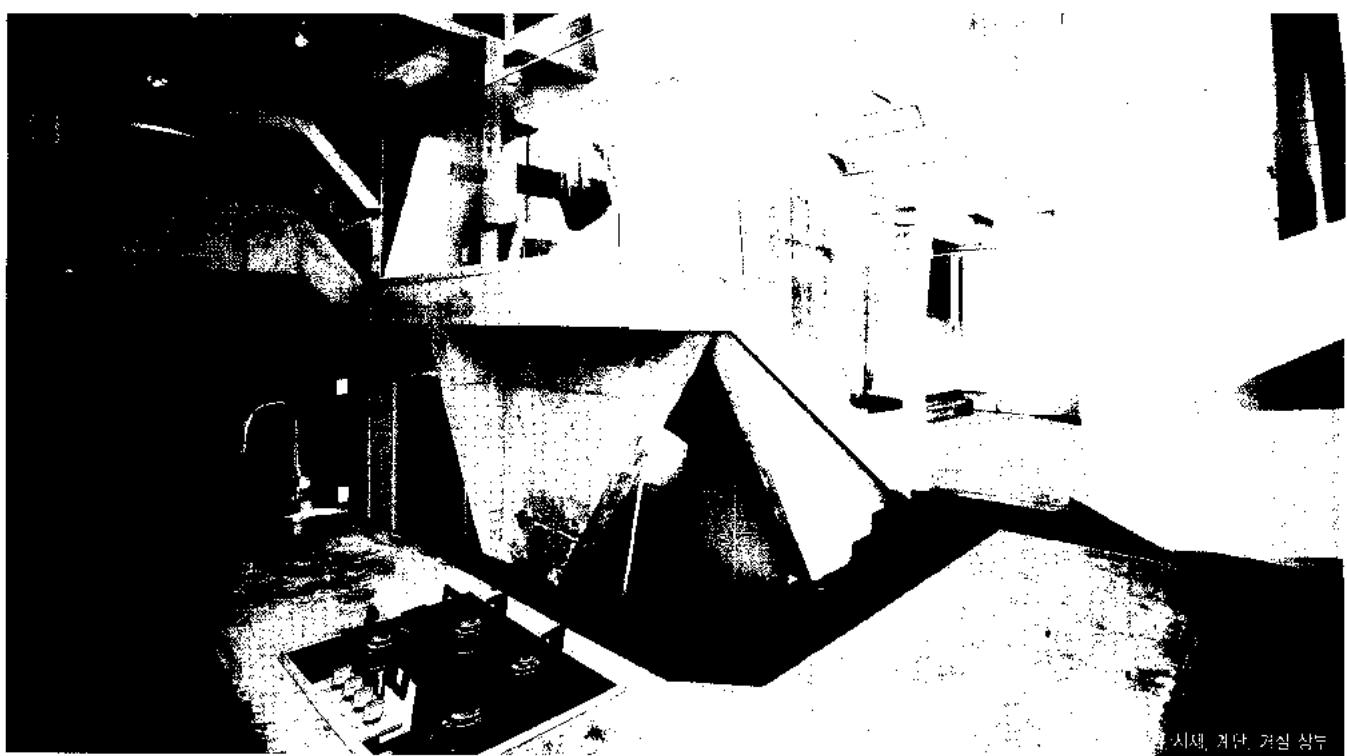




집임 대문 전경



스탠드 전시에서 본 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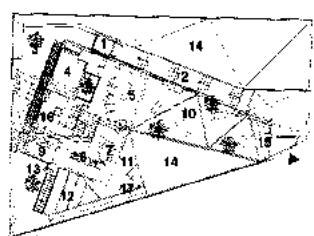


기실 시제, 계단, 거실 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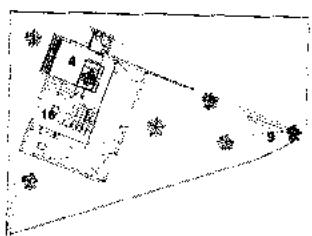
기실 창부

- | | | | |
|----------|----------|-----------|----------|
| 01_ 현관 | 06_ 품마당 | 11_ 연못 | 16_ 서재 |
| 02_ 진입계단 | 07_ 신당 | 12_ 식당마당 | 17_ 폭포 |
| 03_ 후원 | 08_ 주방 | 13_ 주방마당 | 18_ 옥상정원 |
| 04_ 침실 | 09_ 다용도실 | 14_ 정원 | |
| 05_ 거실 | 10_ 거실마당 | 15_ 스팸드마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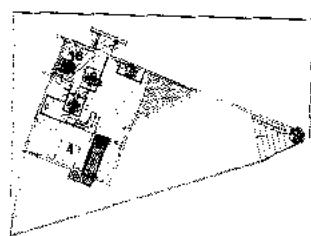


01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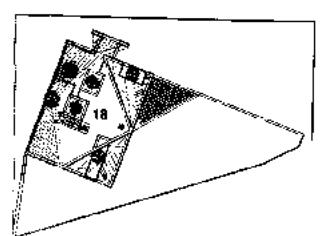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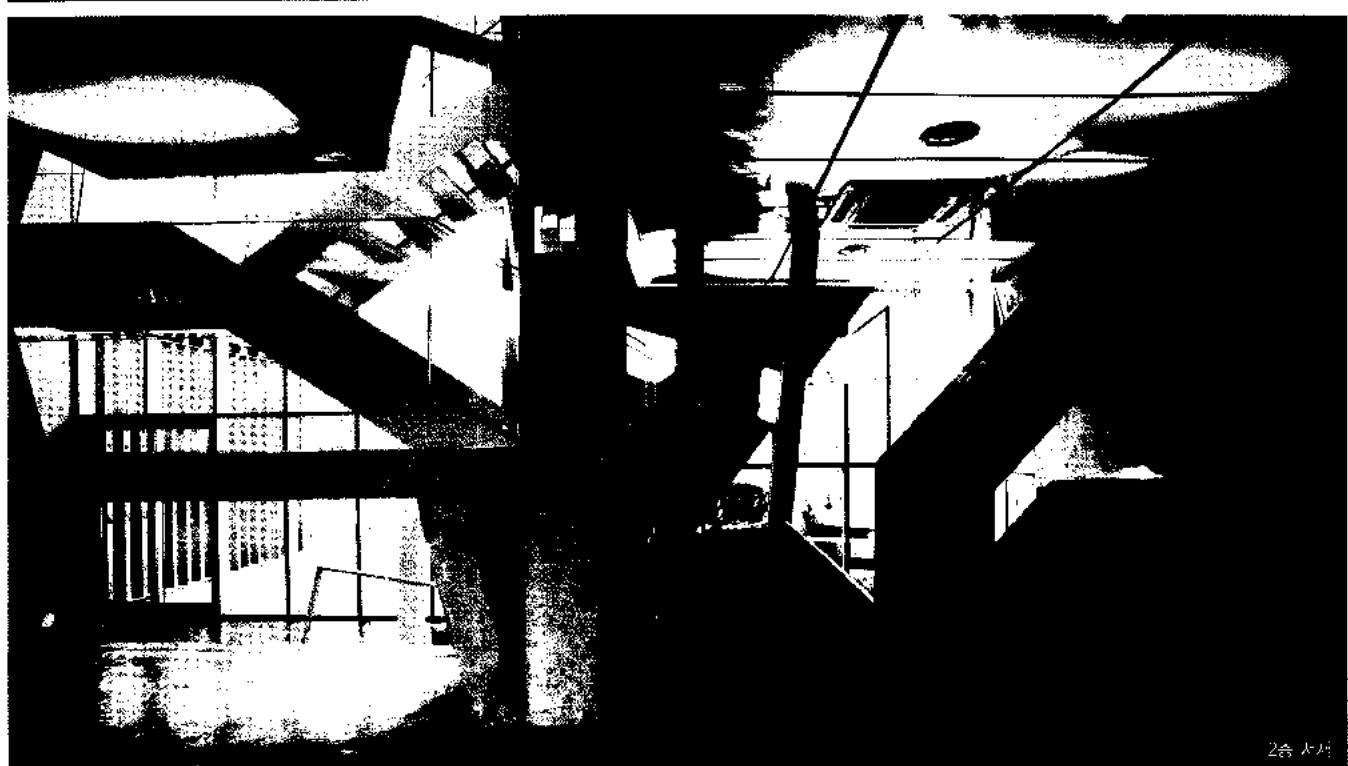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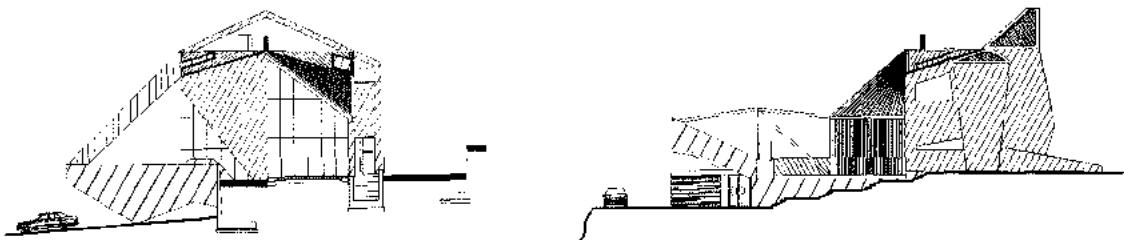
식당에서 본 거실 일부 및 벽난로



2층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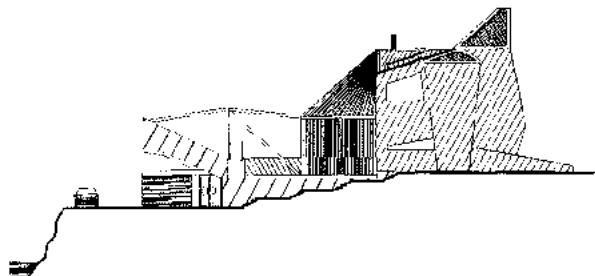


2층 보름지어터 테라 쁜 가실 및 가실전면 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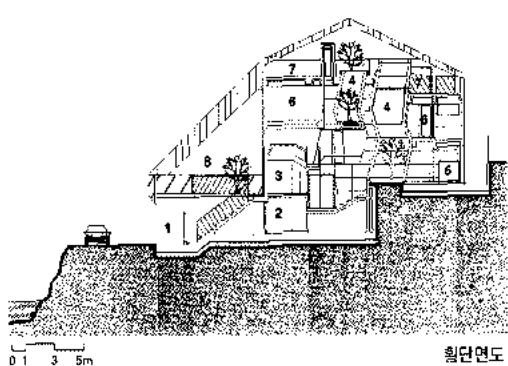


0 1 3 5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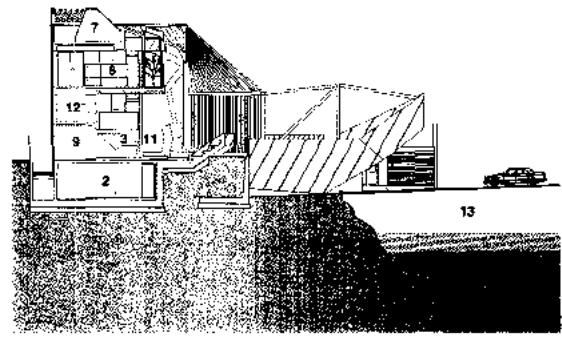


우측면도



0 1 3 5m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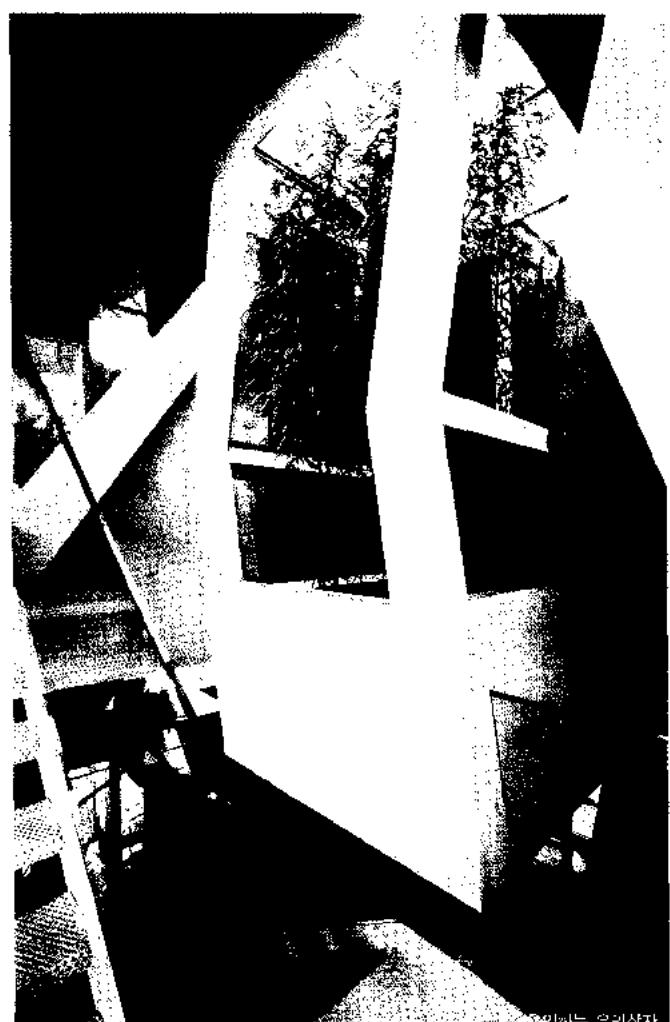


총단면도

- | | | | |
|-------------|----------|----------|--------|
| 01_ 부엌입구 | 05_ 현관 | 09_ 다용도실 | 13_ 계단 |
| 02_ 기계실 | 06_ 창실 | 10_ 서재 | |
| 03_ 주방 및 식당 | 07_ 옥상경원 | 11_ 석당 | |
| 04_ 꽃가당 | 08_ 주방마당 | 12_ 서재 | |



2층 테라스에서 내려 본 식당 및 주방



2층 테라스에서 내려 본 식당 및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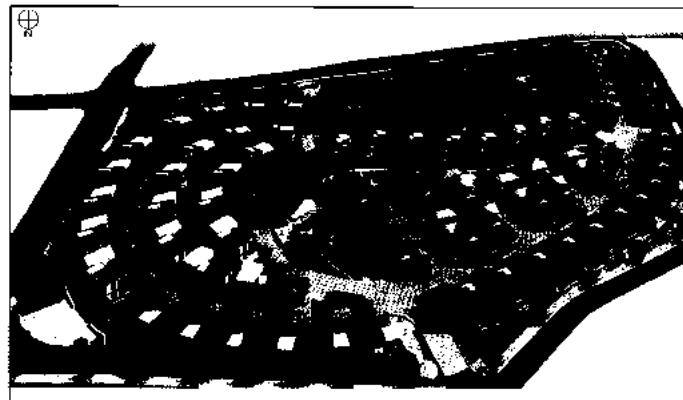
파주교하 원슬카운티

Paju Gyoha Winsle County

고성호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by Go, Seong-ho, KIPA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지역/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단독주택	외부마감 라임스톤, 징크
대지면적 43,265.41m ²	내부마감 라임스톤, 고층식
건축면적 14,916.927m ²	구조설계 (주)도화구조 기술사사무소
연 면 적 21,862.86m ²	시공사 동문건설(주)
건폐율 37.82%	설계담당 이호, 채선길, 오승준, 이용수, 김철기
용적률 55.28%	



배치도

파주교하 원슬카운티는 타운하우스 분양 역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분양에 성공한 시례로 평가받고 있다. 파주교하 원슬카운티는 주변의 비슷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월드메르디앙이나 헤르만하우스에 비해 일반인이 인지하기에는 매우 생소한 브랜드였다.

물론 원슬카운티는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로 파주지역에 굳건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동문건설이 타운하우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이다. 동문건설이 무모한 도전과도 같은 새로운 브랜드 출시를 시도하면서까지 원슬카운티를 분양시장에 내놓고자 한 이유와 그 자신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원슬카운티가 타운하우스 분양시장에서 큰 획을 그은 성공적 분양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슬카운티는 건축주 측에서 다양한 내용의 사전자료를 통해 국내 유명 설계사 몇 곳에 제안한 지명현상 프로젝트였다.

아미 분당, 용인 등지에서 많은 타운하우스를 설계한 국내 유수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된 건원건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하우징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운하우스와 같은 작업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전략적 디자인으로 접근하여 전 세대를 완벽하게 단독주택형으로 제안한 건원건축은 안이 당선이 되었고, 이 안은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 수정안을 거쳐 불확실했던 타운하우스 분양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분양성공이라는 선물을 일으켰다.

최초 건원건축에서는 이 작업을 시작 할 때 당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의 집중을 받던 양지 빌트하우스와 용인 아밀비움, 파주 헤르만하우스를 벤치마킹 하였다. 특히 빌트하우스에 작업 참여한 조경사무실 풍경디자인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빌트하우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의 스텝들은 이러한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대부분 휴양 및 요양을 위한 세컨 하우스 형태가 아닌가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빌트하우스 설계에 참여한 조경회사 풍경디자인이 제공한 입주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세컨하우스 형태가 아니라 실제 거주용으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계층 또한 몇 개의 부류로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주거형태는 개인의 개성을 잘 이해하고 수요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었고, 이 주거 형태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이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찾았다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을 하는 스텝들의 목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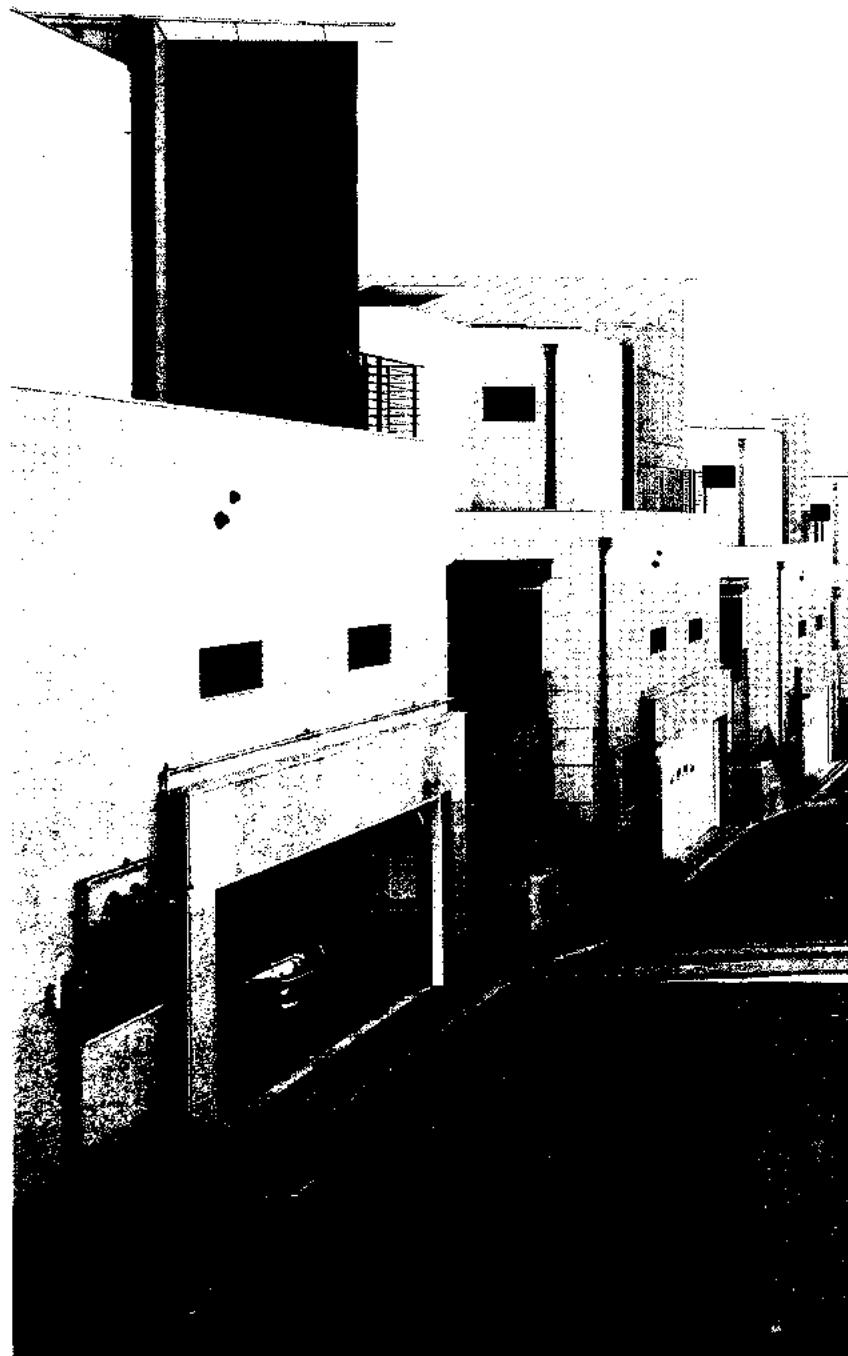
결국 스텝들은 아주 간단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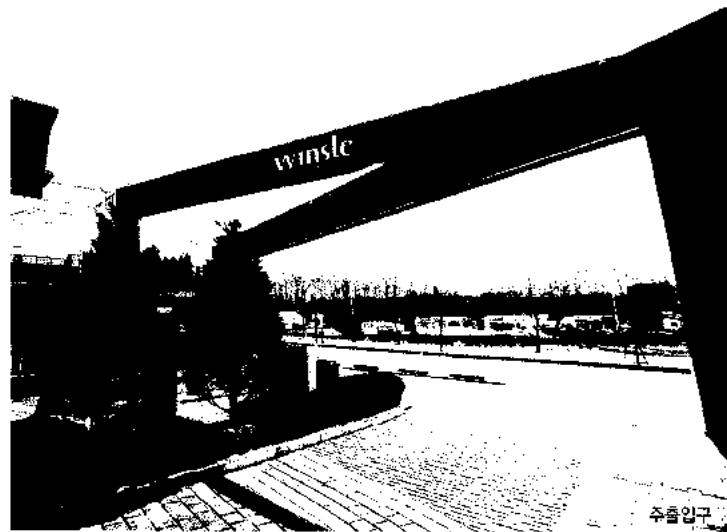
'아파트에 없는 것과 아파트에 있는 것' - Hybrid housing

결국 아파트에 없는 자기 집만의 개성, 예컨대 자기만의 암마당, 자기만의 대문, 자기만의 테라스 같은 외부 공간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히는, 명확한 동선체계와 편리한 주차시설, 효율적으로 용도를 배분하는 토지이용, 품격 높은 커뮤니티 및 서비스 시설 등은 입주자들이 여전히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였다. 즉 아파트를 떠나서 이곳에 살면서도 아파트에서 누렸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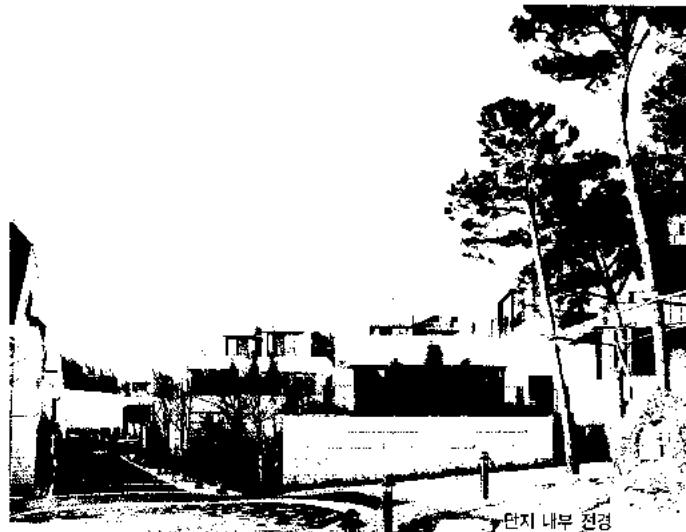
또한 단독주택 형태의 브랜드 하우스는 다소 생소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양성 향상을 위해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공동주택 마케팅은 대부분 분양 단계에서의 판촉활동이었지만, 타운하우스의 디자인 마케팅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호흡을 우선으로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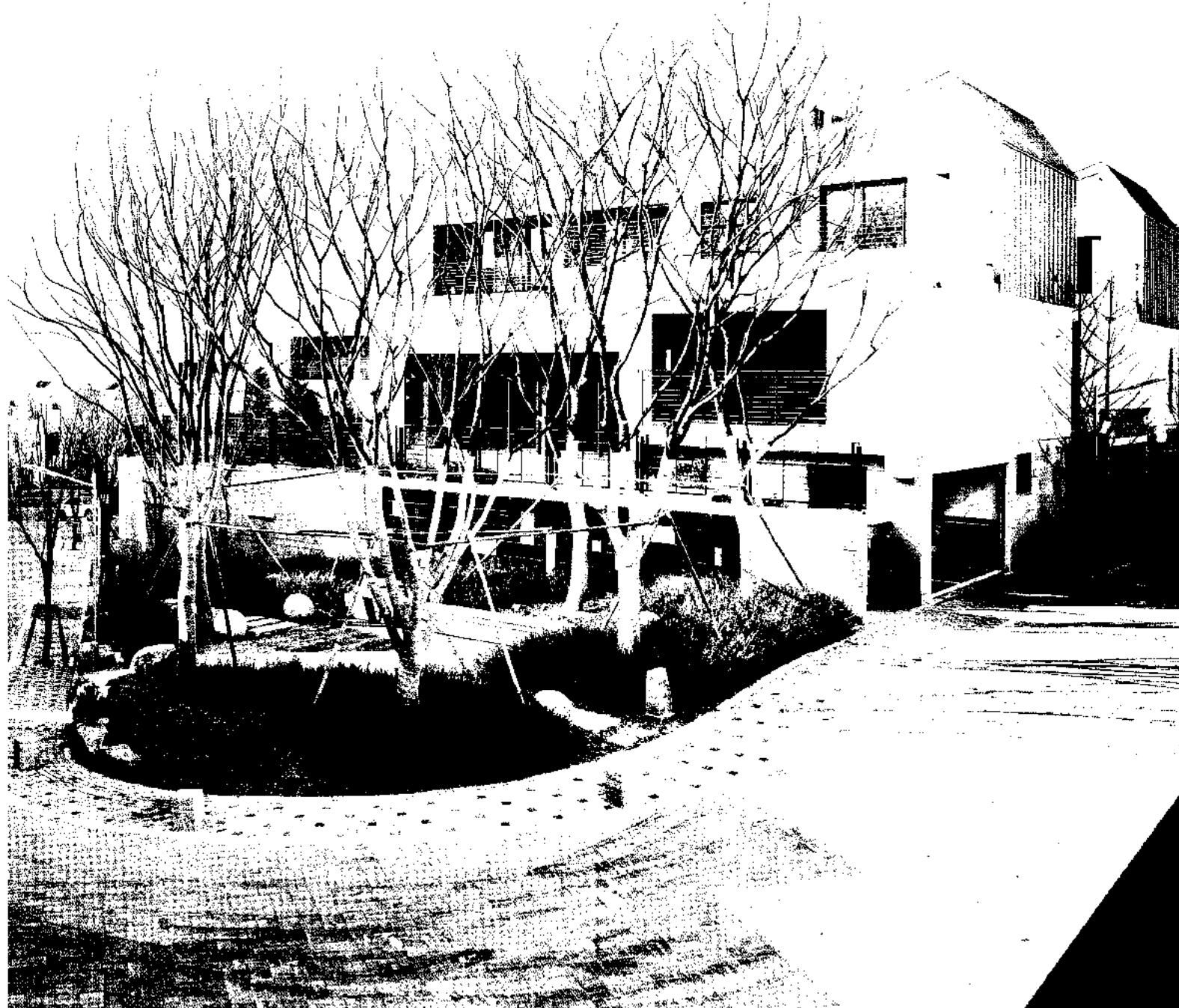


주출입구



단지 내부 전경

내부도로에서 주동을 바라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디자인을 마케팅 한다는 표현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으나 디자이너나 공급자의 시각에서 상품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이해시키려 하는 단순한 판촉행위와 달리 디자인 단계부터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잠재적 니즈(needs)까지도 찾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디자인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단독주택지와의 차별성을 위해 단독주택지에 공동주택의 마스터플랜 기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Land use)에 따라 각각 다른 주택형태별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단지 가운데 대단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아파트단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동선과 시설계획으로 주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자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지만 주택 규모나 입주민 성향을 고려하여 형태나 공간구성을 달리하는 갤러리 타입(gallery type), 패티오 타입(patio type), 클레비어 타입(clavior type), 듀얼 앤드 타입(dual yard type) 등 총 8개의 유형을 계획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세대 전용 마당, 그리고 대단위 테라스 공간 등

단독주택에서 만 제공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소비자들이 아파트보다는 이곳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처음에 3개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 부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단지로서는 상당히 큰 100세대 규모의 단지로 계획하였다.

이는 대형 단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특성에 부응한 것으로 타운하우스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건축계획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의 개념들을 어렵고 딱딱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더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각의 주택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독자적인 브랜드 런칭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 마케팅 & 하이브리드 하우징을 제안하였다.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다고 하여 나쁜 디자인은 아니다. 반면에 소비자가 선호한다고 하여 그 디자인 또한 원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그만큼 다기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건축주에게 건축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꿈이 현실적인 것임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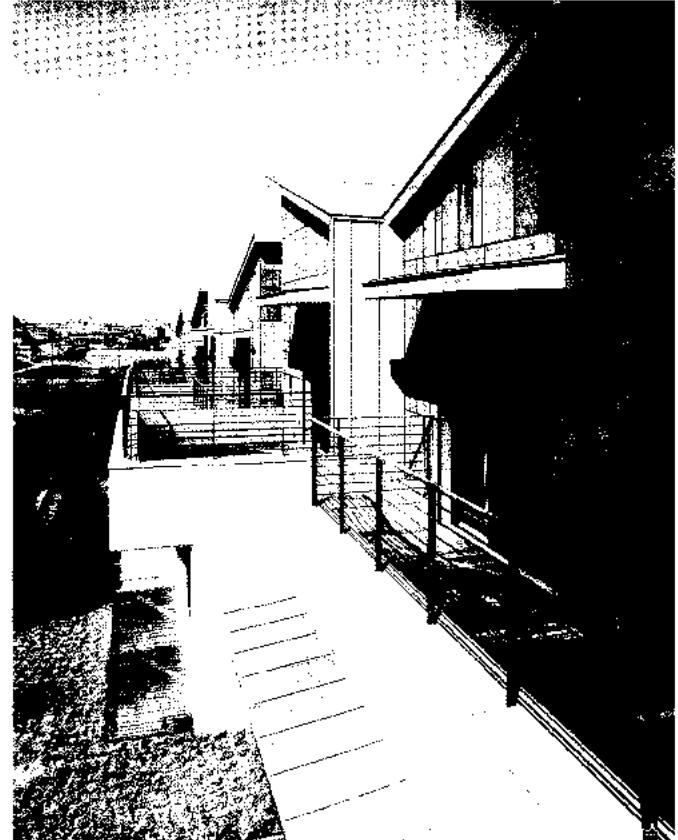
단지에서 바라본 단지 전경

내부도로에서 추동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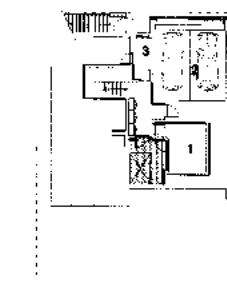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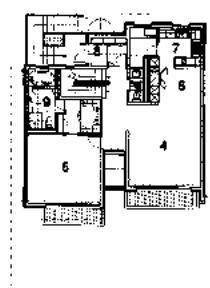
단지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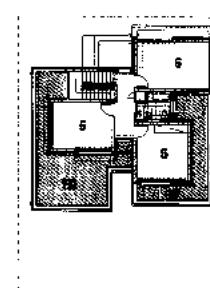
- 01_ 다복식실
- 02_ 주차장
- 03_ 보일러실
- 04_ 거실
- 05_ 침실
- 06_ 식당
- 07_ 주방
- 08_ 환관
- 09_ 화장실
- 10_ 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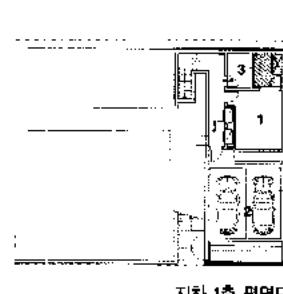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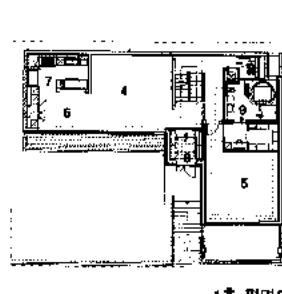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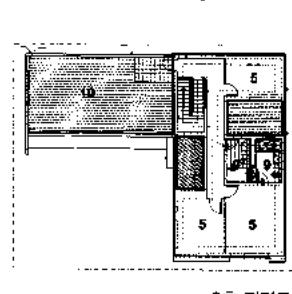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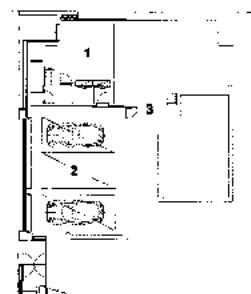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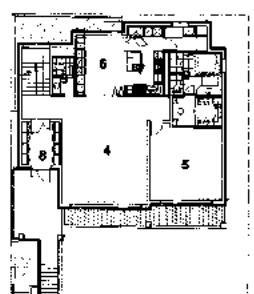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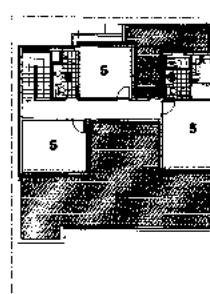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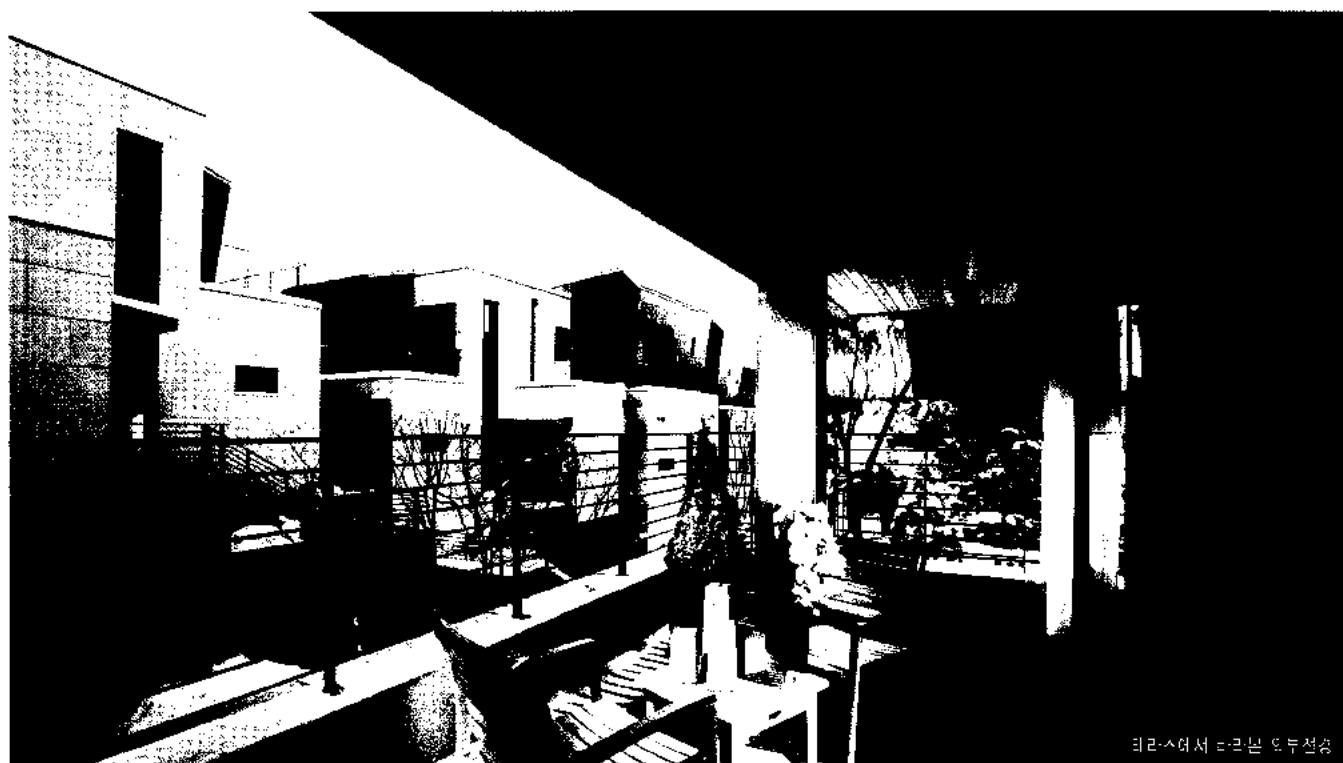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터미널에서 차운 새나 전경



터리스에서 터리스 일부 전경



거실에서 안마당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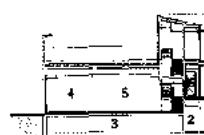
정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 01_ 마도작성
- 02_ 봉도
- 03_ PIT
- 04_ 주방, 식당
- 05_ 거실
- 06_ 전실
- 07_ 드레스룸, 마우더룸
- 08_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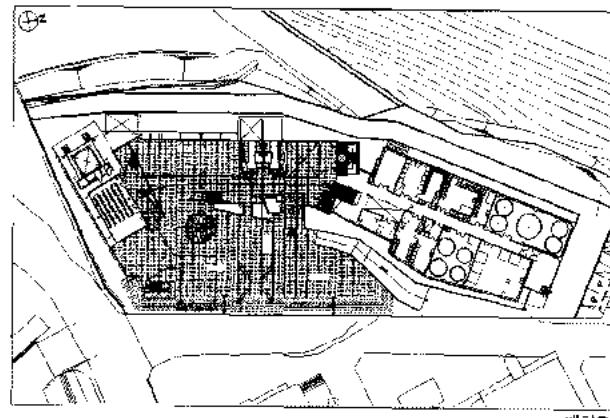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최삼영 / 정희원, (주)기와 종합건축사무소

by Choi, Sam-yeong,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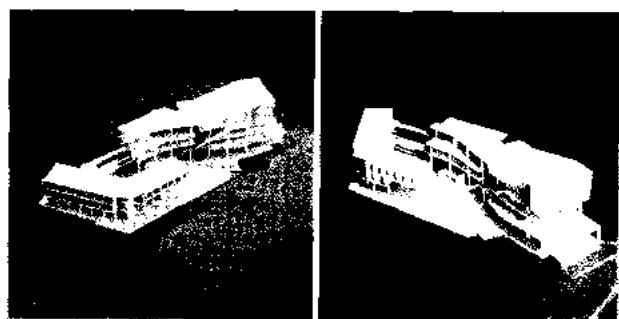
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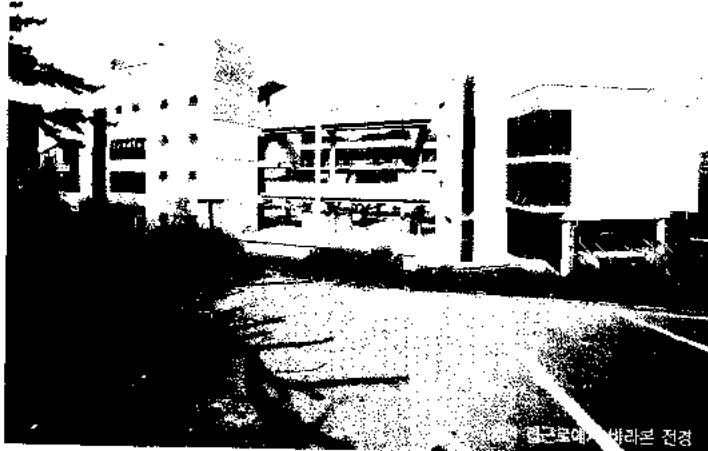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남 통영시 건방동 120번지의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점정지구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숙소동, 지상 3층)
주요 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구 조	R·C조+현금조
대지면적	4,574m ²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건축면적	1,571.66m ²	내부마감	플록체장판기, 수성페인트
연면적	5,419.67m ²	구조설계	박혁환
건폐율	34.36%	설비설계	세아설비
종적률	101.96%	전기설계	대경전기
		사공서	JS건설
		설계담당	박찬규

경상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교내에서 바다와 인접한 대지로 통영대학교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과 캠퍼스를 이어주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주변의 흐름을 반영한 2개의 매스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형태 구성으로 학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2개의 매스 중 바다와 인접한 숙소동은 하부를 필로티로 구성하여 자연과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가진 사잇공간으로 대지의 소통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휴식과 커뮤니티공간으로 계획하고, 연구동은 전면에 투명한 파사드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상하부로 통하는 움직임이 외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이 입면요소가 되고 바다의 풍경이 내부로 투과되어 시각적 연속성을 부여했다.

동선계획은 연속된 주동선을 따라 순환하며 각 실들이 기능별 안정한 배치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연구동에서 숙소동 지붕으로 연결되는 브릿지를 통해서 통영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형성했다.

내, 외부 마감은 재료자체와 물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노출콘크리트와 치장블럭을 사용하여 학교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투명한 커튼월을 사용하여 자연풍경이 투영되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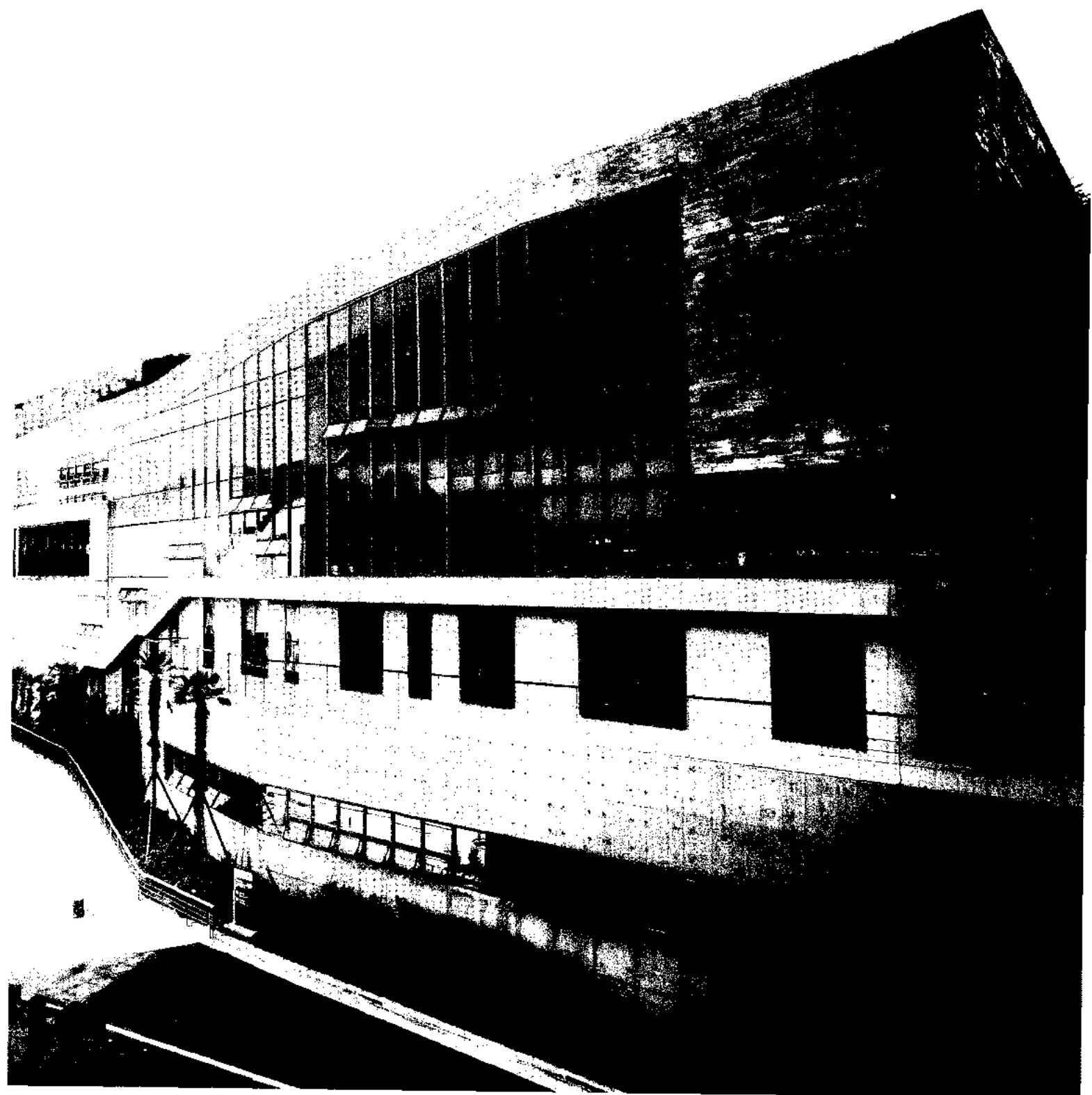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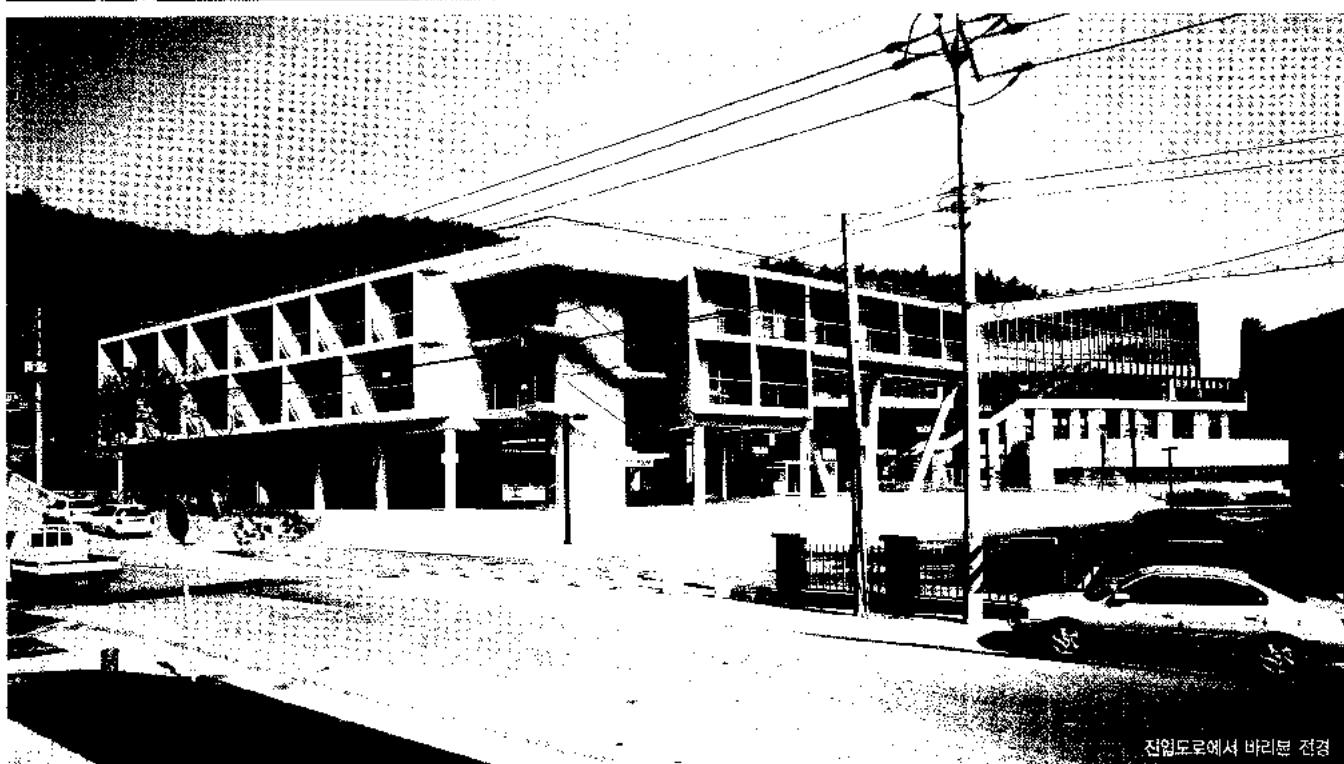


제주도에 버려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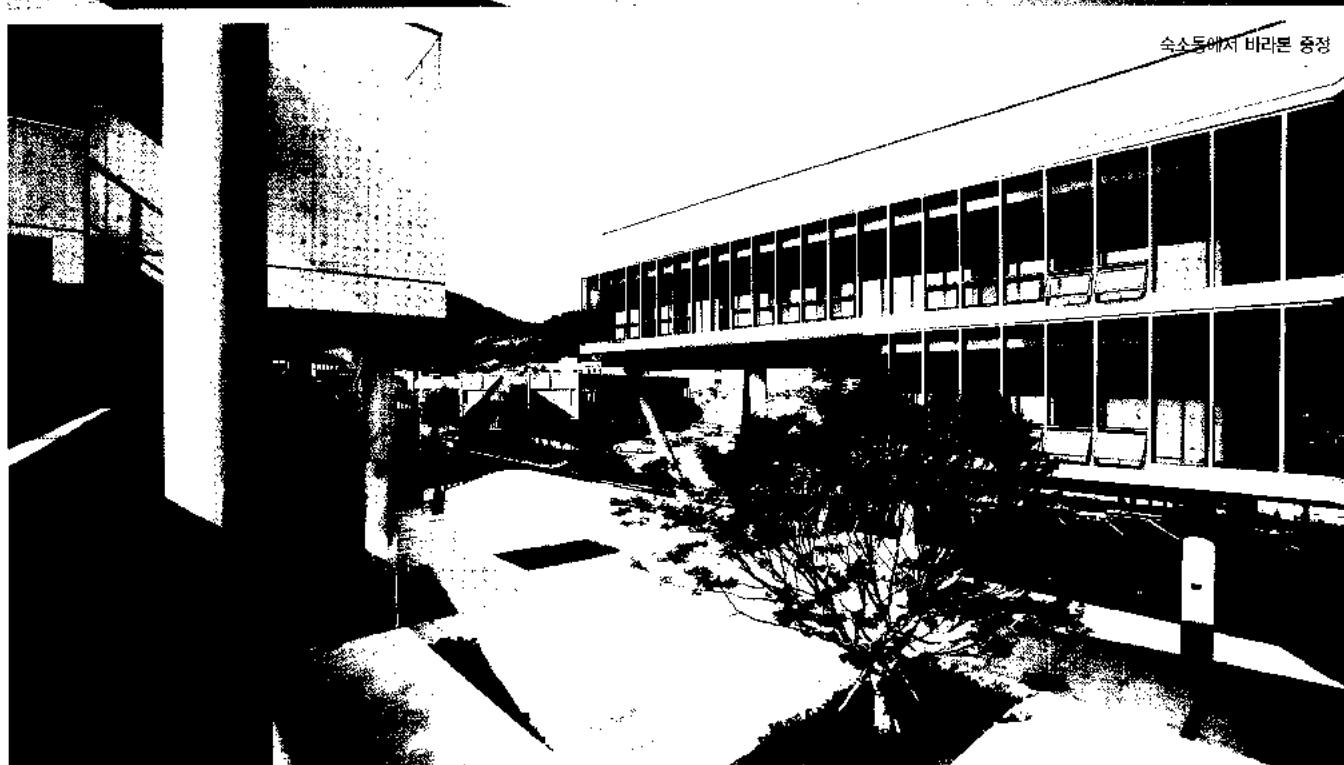


해양생물연구센터 야간 전경





산업도로에서 바리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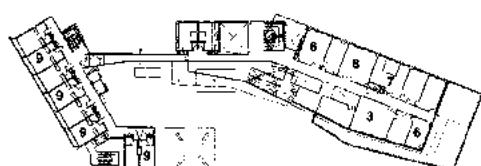


속소동에서 바리톤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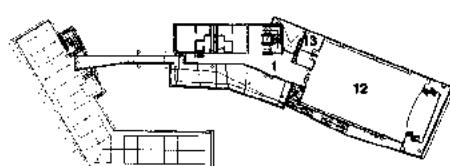


중곡에서 바라본 열구동, 속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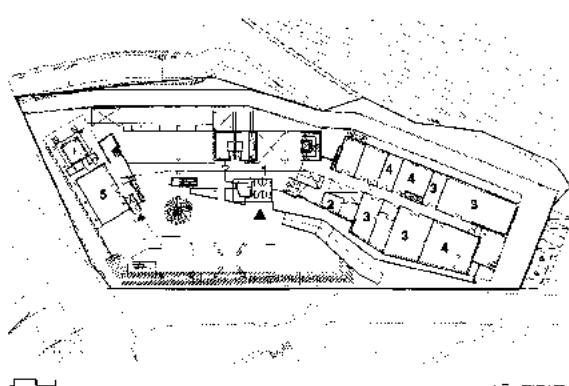
- | | | | |
|----------|------------|----------|---------|
| 01_ 을 | 05_ 강의실 | 09_ 숙소 | 13_ 방송실 |
| 02_ 종보준실 | 06_ 연구실 | 10_ 세미나실 | |
| 03_ 실험실 | 07_ 해양동물병원 | 11_ 스위트룸 | |
| 04_ 사무실 | 08_ 공동기기실 | 12_ 다목적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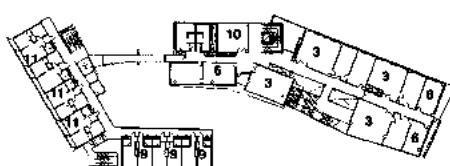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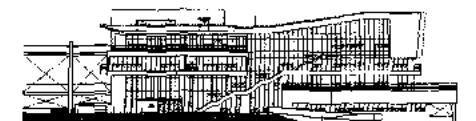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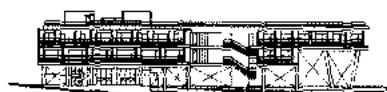


01 S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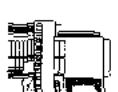
연구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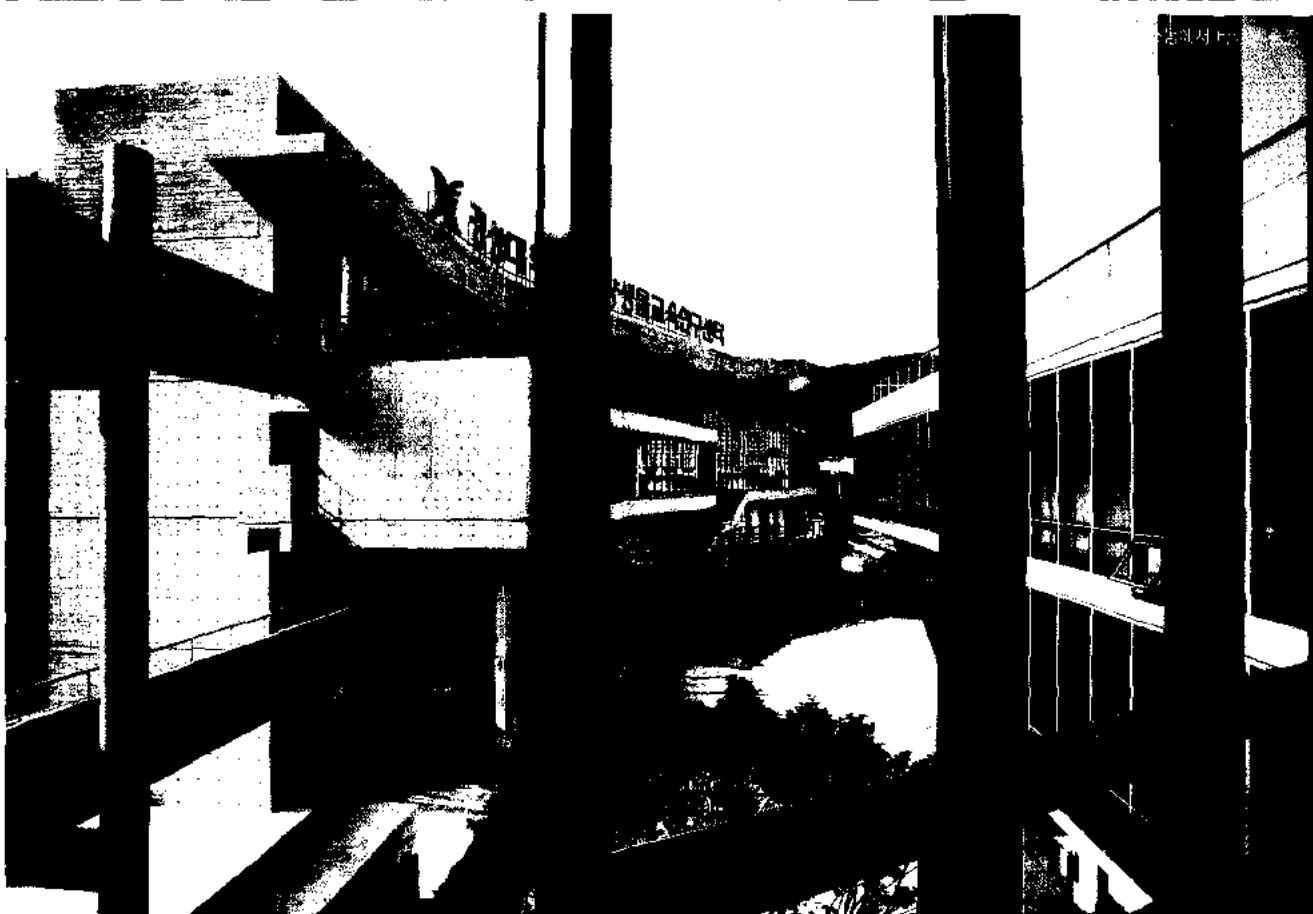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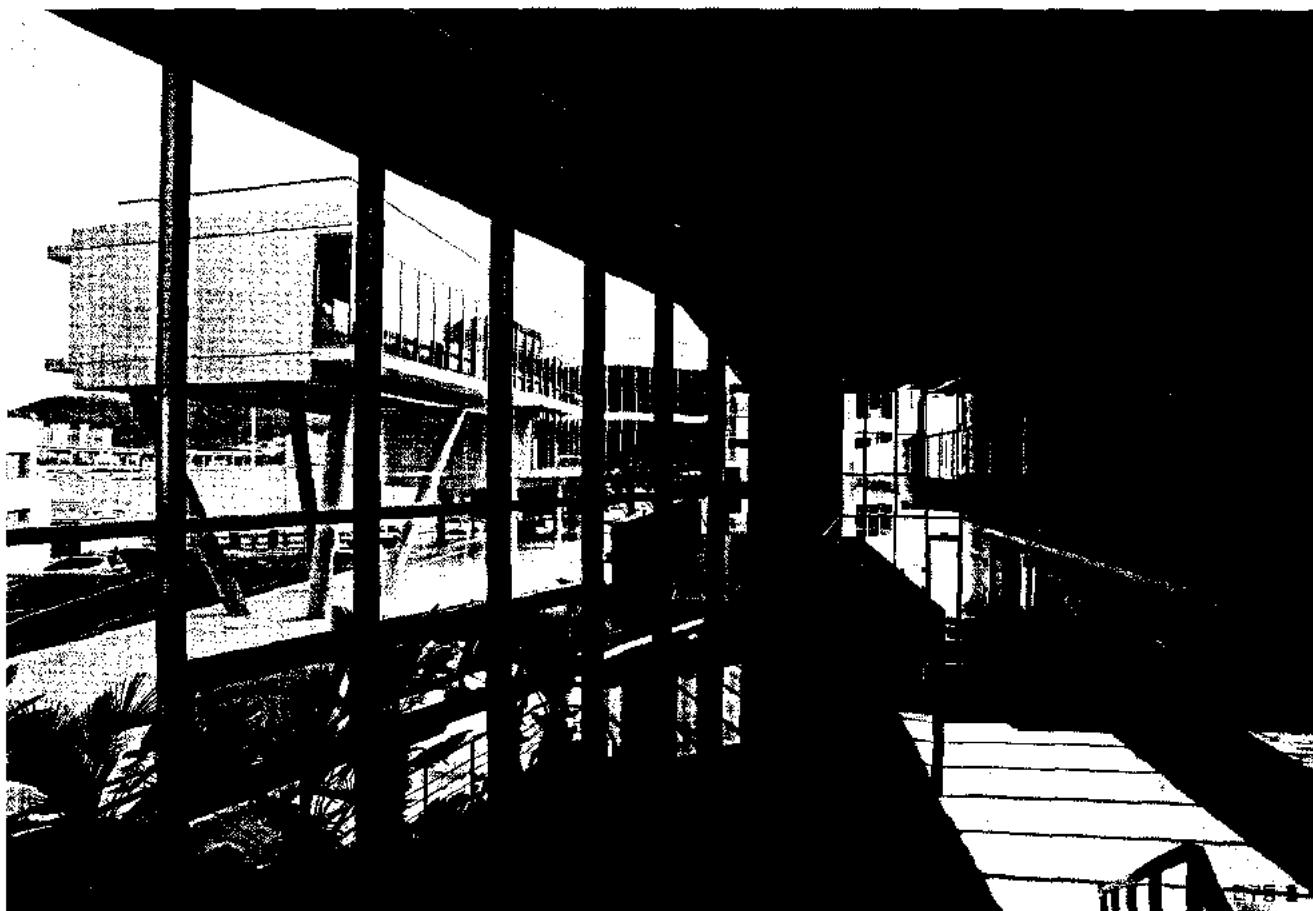
연구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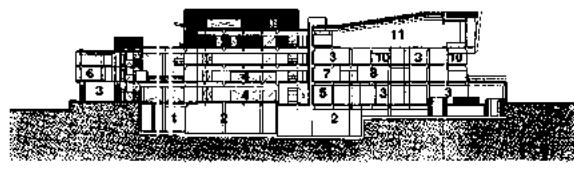


속도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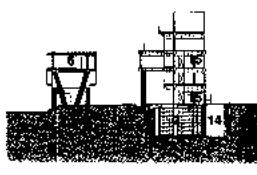


속도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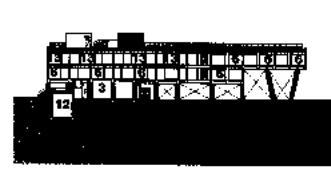




연구동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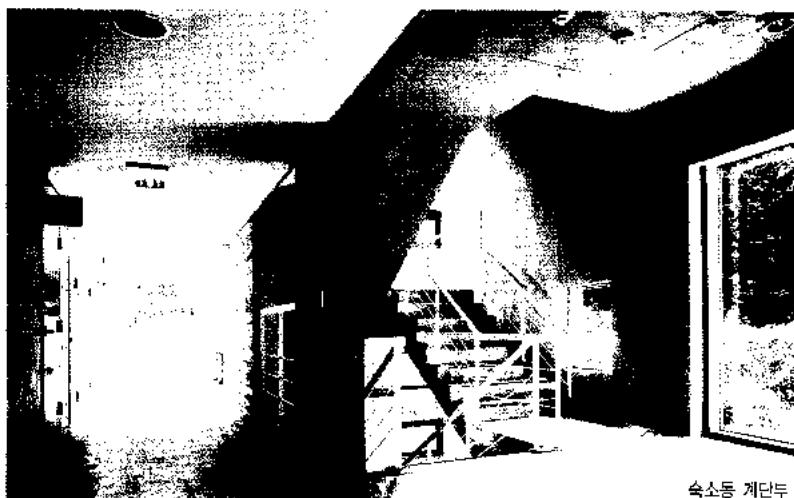


연구동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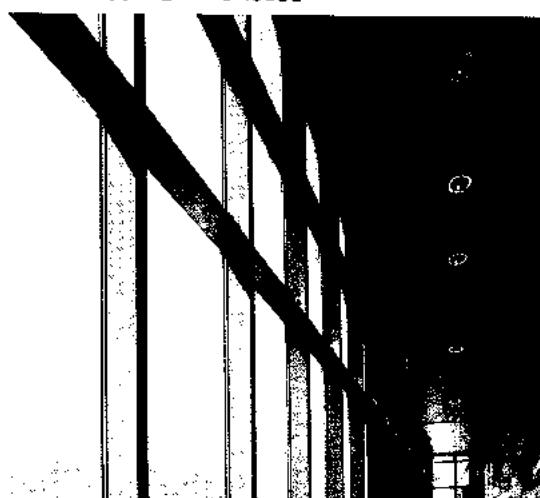


숙소동 중단면도

- | | | | |
|---------|-----------|------------|-----------|
| 01_ 전기실 | 05_ 배양실 | 09_ 해양동물병원 | 13_ 스위트룸 |
| 02_ 기계실 | 06_ 수소 | 10_ 연구실 | 14_ 장비판입구 |
| 03_ 실험실 | 07_ 연구지원실 | 11_ 대목작실 | 15_ 화강실 |
| 04_ 옥 | 08_ 공동기기실 | 12_ 해양실습풀 | |



숙소동 계단부



연구동 계단부



연구동 계단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Chungcheong buk-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Research

윤재일 / 정희원,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by Yun, JaiHil, KIRA

김종욱 /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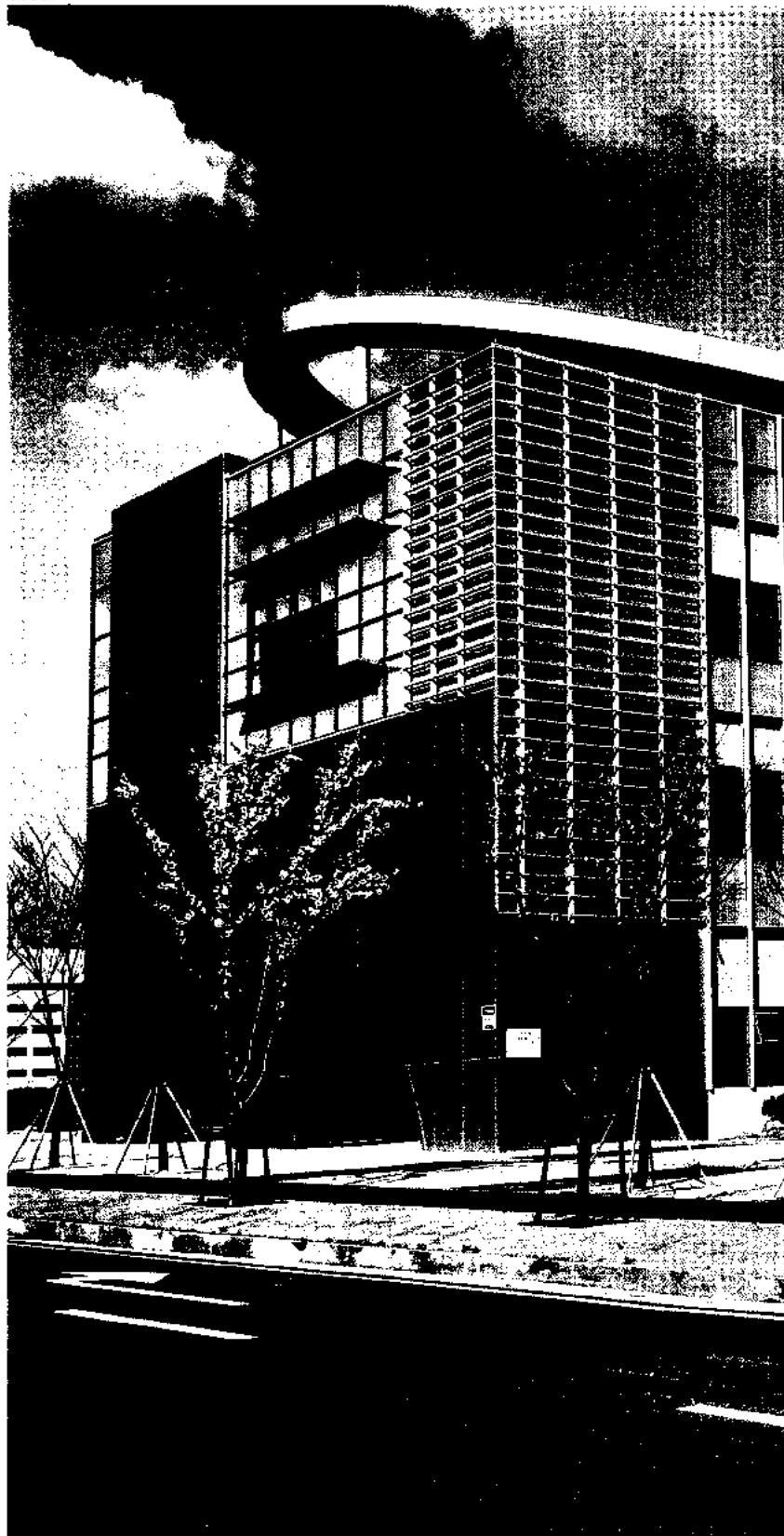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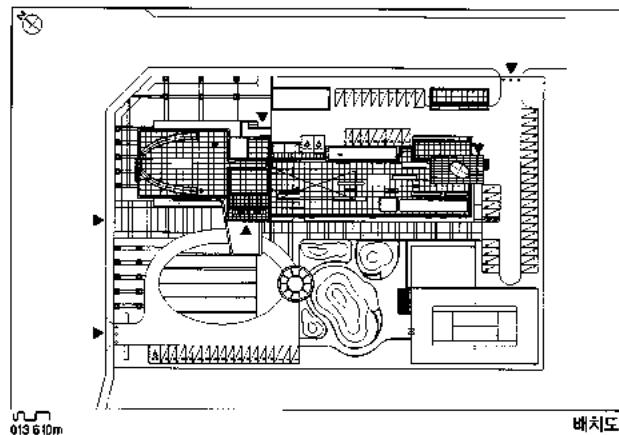
by Kim, Dong-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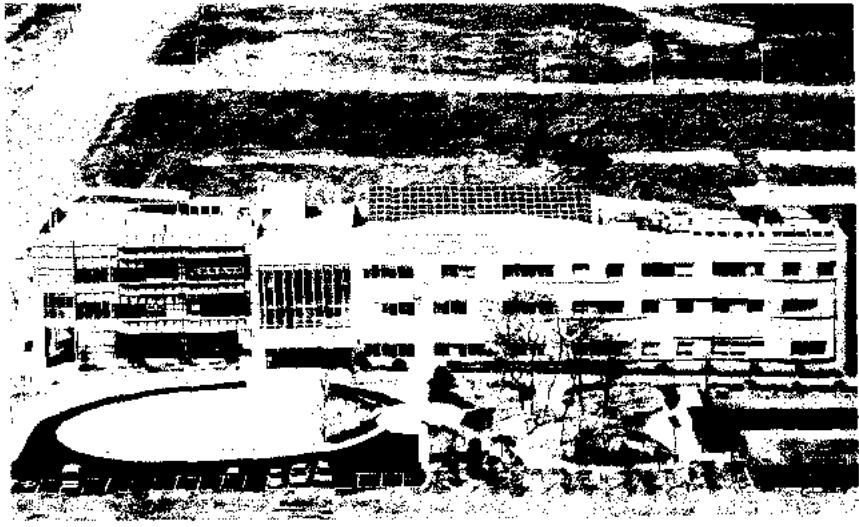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청원군 강화면 연제리 676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30-4블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지역/지구	충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부마감	THK.22 칼라복층유리+THK.6 알루미늄하니컴페널
주요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내부마감	디채무브코트, THK.10폴리싱타일, THK.3호한질비닐타일
대지면적	9,952.80m ²	구조설계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면적	2,050.20m ²	설비설계	(주)센우 난&C
면적률	57.40,30m ²	전기설계	(주)대일라이씨
건폐율	20.59%	토목설계	(주)지호엔지니어링
용적률	5.00%	시공사	동우건설(주)
구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팀장	이경민, 이영제, 김홍기, 오정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충북오성생명과학 단지 내에 위치한다. 오성생명과학 단지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택지 구획만 이루어진 상태로 새로운 건축물들이 신축되므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충청북도의 새로운 현대 건축물들의 집합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오성생명과학 단지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중에서는 선두주자임 셈이다. 그만큼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계획에 임했고 그 성과물의 결과가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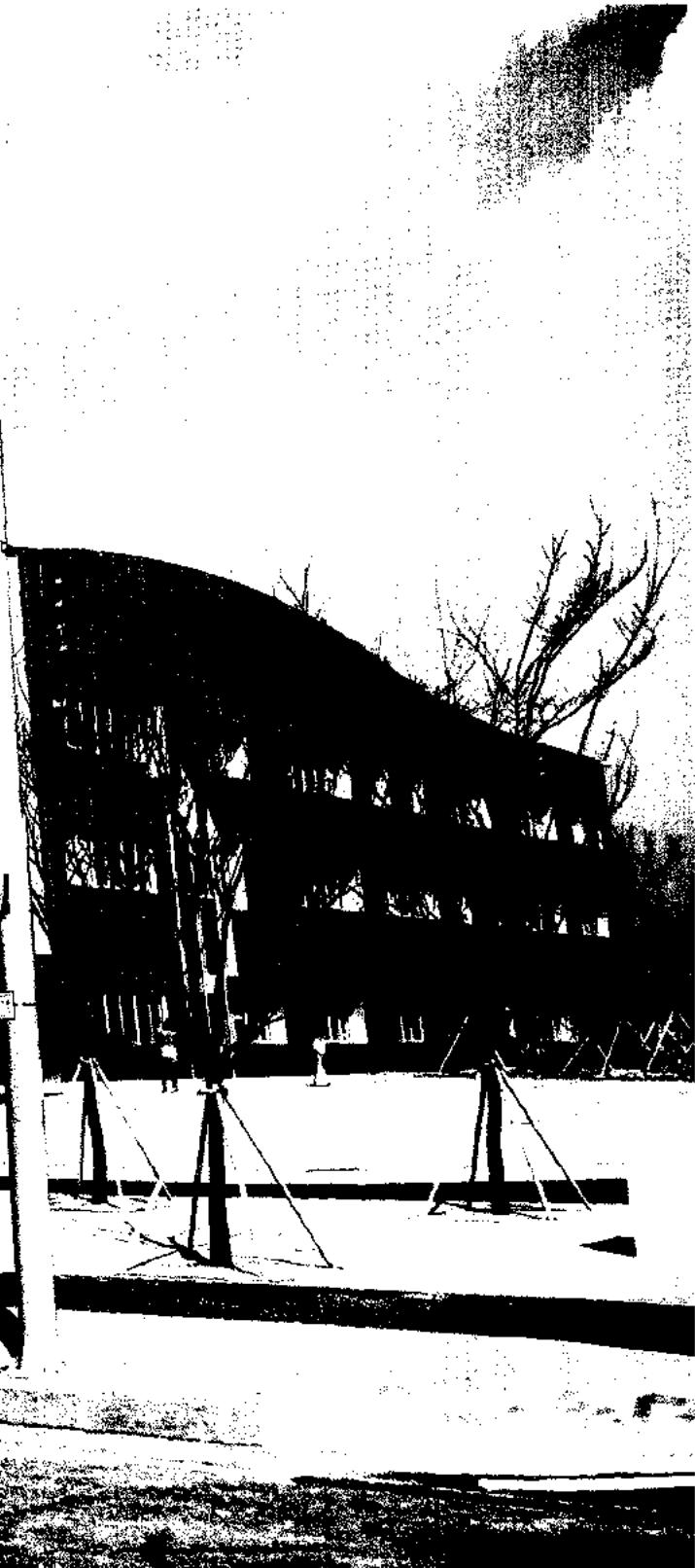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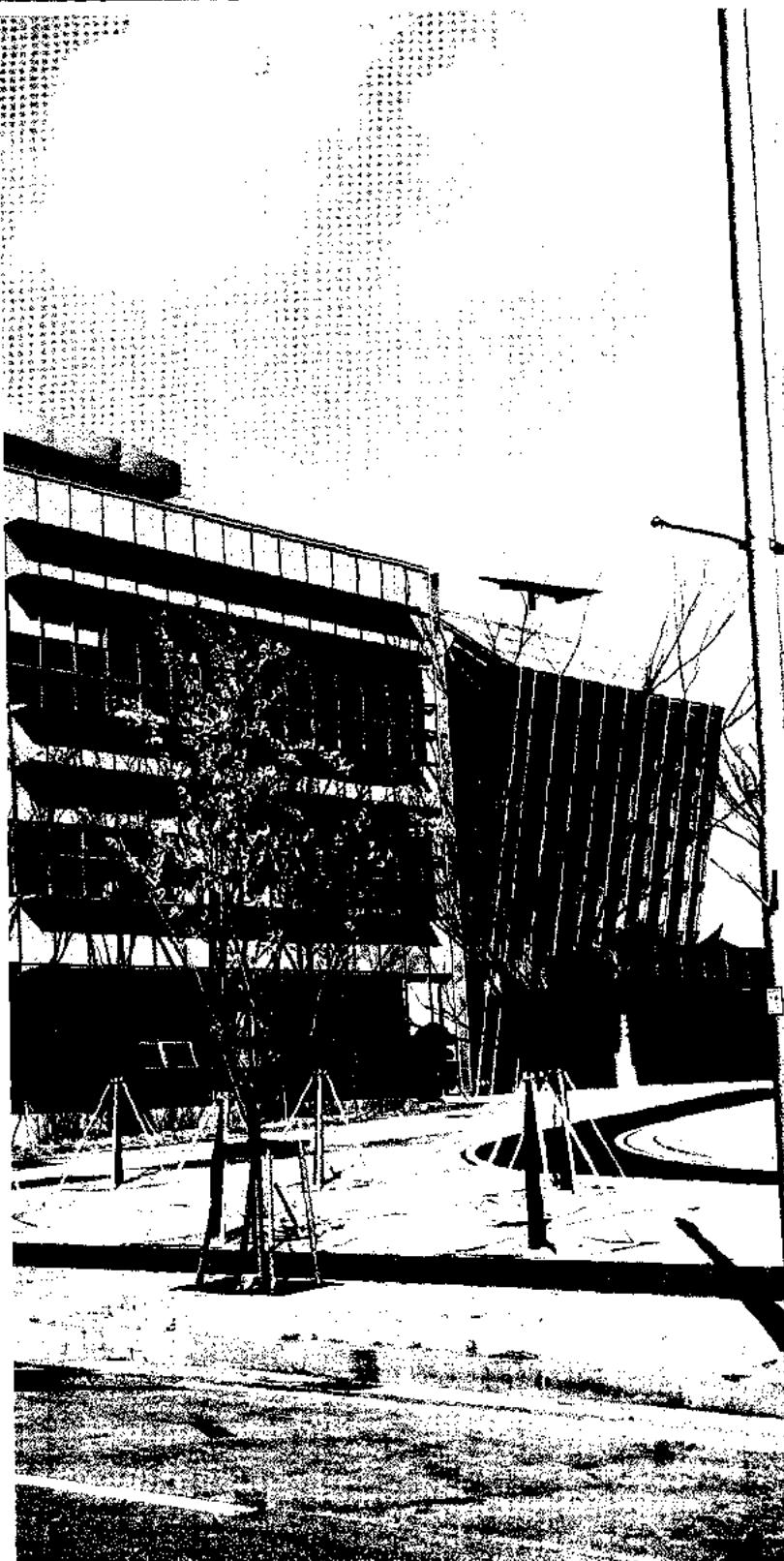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연구소라는 단일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동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동이 연계되어 있는 복합 용도로서의 건축물이다. 연구원측의 절실한 요구 사항은 건축물의 외형에 치중하여 내부사용 시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복잡한 외형과 디자인만을 우선시 하는 외장 재료를 사용하다보면 예정된 공사비로는 연구원들의 요구 사항은 무시되어 버리고 만다. 외형과 내부시설의 균형적인 질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단순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사무동과 연구동의 시각적인 용도 구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무동은 열린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투명성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Void한 Mass 개념으로 접근하여 했으며, 연구동은 사무동과 반대로 연구원들의 연구 집중을 위한 Solid한 Mass 개념을 설정하였다. 열림과 닫힘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을 조화시키려 한 것이다. 건축물 Mass가 단순한 일자형 박스 형태에서의 이 두 개념의 조합은 자칫 너무 단순한 접합이라는 이미지로만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두 Mass를 조금 엇갈리게 연결하였다. 이것은 사무동은 충북도의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반면, 연구동은 충북도 보다는 편복도로 접근해야 각 연구실마다의 필요면적의 원활한 확보와 연구 기능에 적확하게 부합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엇갈림 배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자형 복도에서 두 Mass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충족함과 동시에 Mass의 단순함을 탈피할 수 있는 요소로서도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원측의 요구사항인 외형과 내부시설의 균형적인 만족이라는 요구사항들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가지는 정면성과 배면성 중에 이 건축물은 배면성을 거부하고 배면성마저도 정면성을 가지고 싶어 하도록 대지는 이 건축물에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한 건축물이 두 개의 정면성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설 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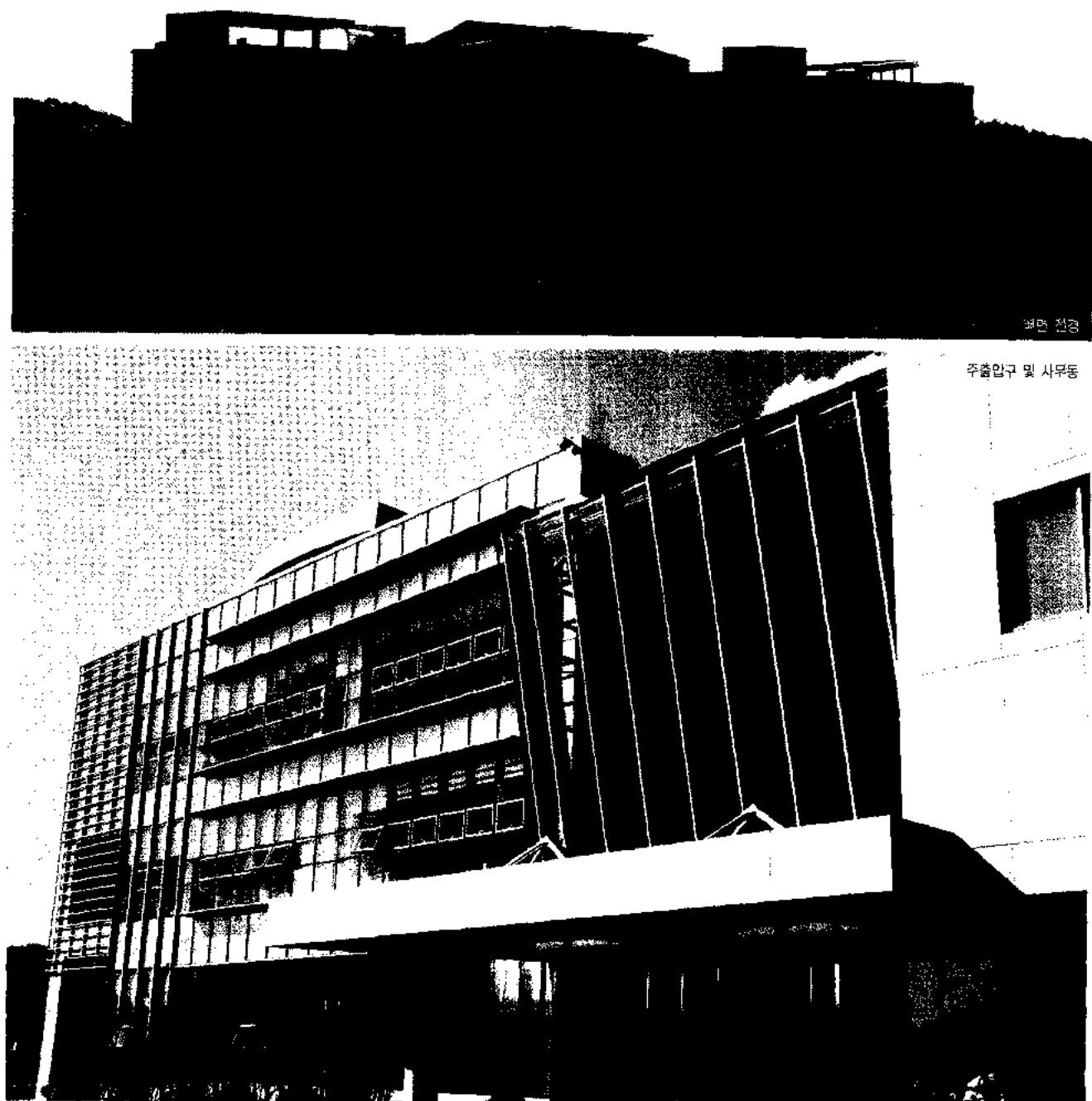
사람에 비유하자면 얼굴이 두 개인 것과도 같은 상황이다. 말하자면 앞뒤가 따로 없이 양쪽 모두가 자신이 암이라고, 정면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형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건축을 자체가 요구하는 디자인은 연구동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동에 설치해야 하는 계단을 일반적인 계단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간 편복도의 중간 부분에 엇갈린 형태의 X형 일자 계단을 설치하여 복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티를 수직적 커뮤니티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계단실의 답답 할 수 있고 폐쇄적일 수 있는 창호를 수평과 수직의 커뮤니티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가 가질 수 있는 개연성까지 어우러지게 하는 대형 원형 창의 디자인 도입은 이 건축물의 인자성도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 디자인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건축물의 배면이 가지고 싶어 하는 정면성에 대한 강렬한 욕구도 함께 충족 시켜줄 수 있었다.

이 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는 엇갈림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이다. 그것은 이 건축물의 Mass변화를 이루는 엇갈림과

계단실의 X형의 엇갈림은 오른과 내린의 소침 공간 형태로 표출되었다. 연구동 벽면의 웨이브 역시 엇갈림에서 나온 디자인이다. 이렇듯 이 건축물에서는 엇갈림이란 가장 중심적인 디자인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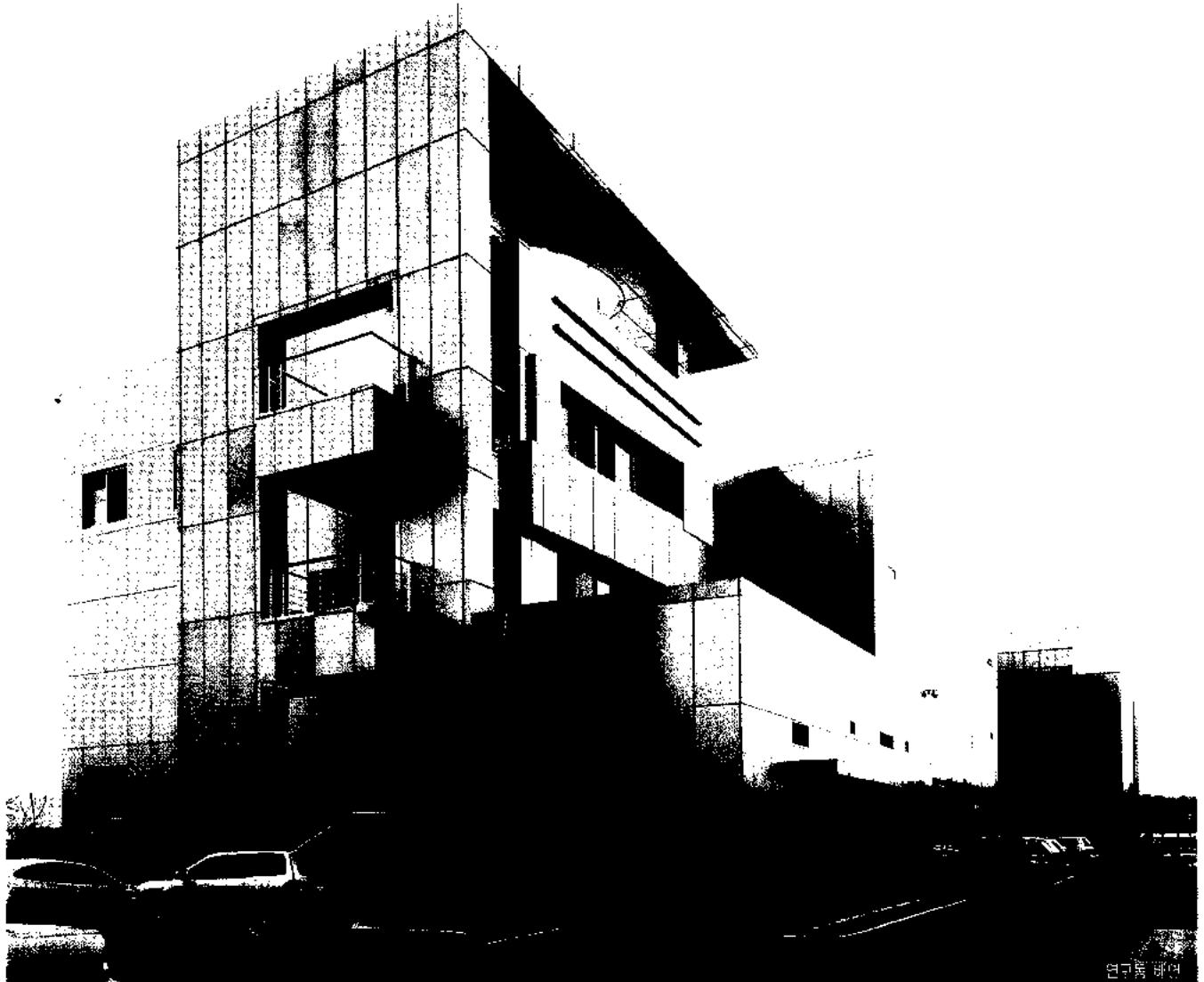
사무동과 연구동을 연결하는 중앙 출은 평면적 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전 충을 오픈하여 공간체적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전면을 키턴월로 처리하여 좁고 답답해질 수 있는 중앙 출을 개방성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게 되었다. 더불어 사무동과 연구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설치는 사무동과 연구동의 기능적 연계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중앙 출의 공간적 감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 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알 수가 없는 일이기에 갈등과 번민이 나를 자속적으로 고달프게 하였지만, 그 순간 내가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는 좋은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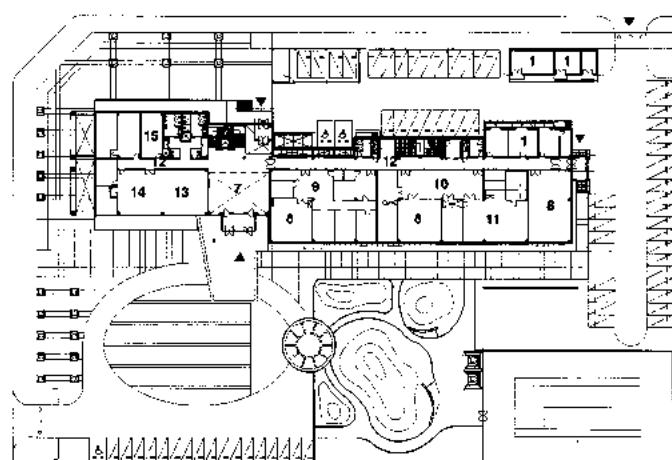


보면 전경

주출입구 및 사무동



01_창고
 02_환경실
 03_증정감시실
 04_기계실
 05_자주조
 06_PIT
 07_로비
 08_사무실
 09_일반설계실
 10_제1설계실
 11_세포배양실
 12_복도
 13_민원실
 14_행정지원과 사무실
 15_과장실
 16_회의실
 17_저온창고
 18_기기운영실
 19_원장실
 20_소회외실
 21_기기실
 22_GMO실
 23_식당
 24_체육관편실
 25_대회외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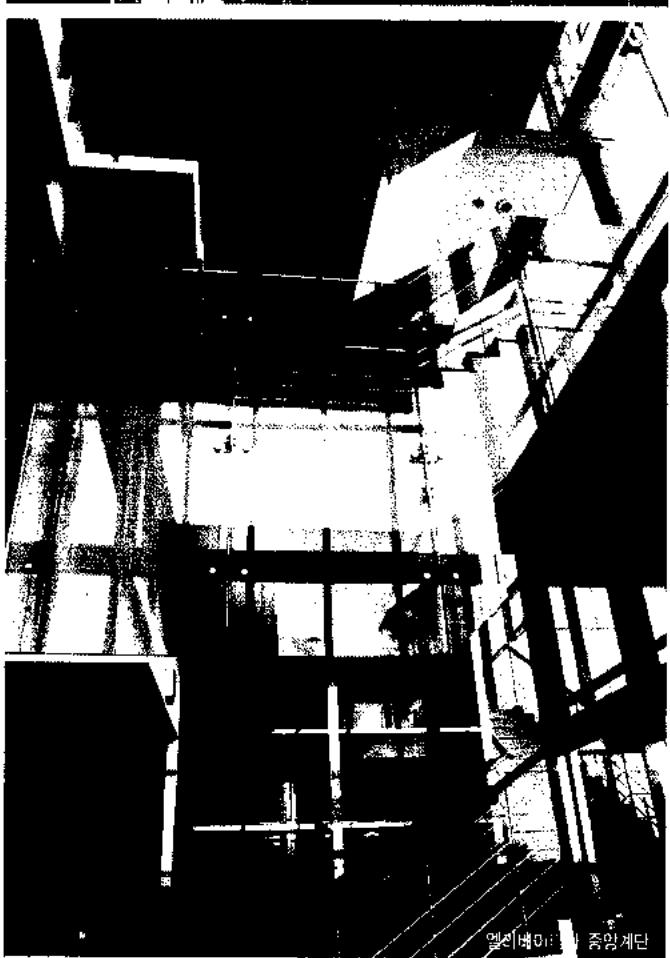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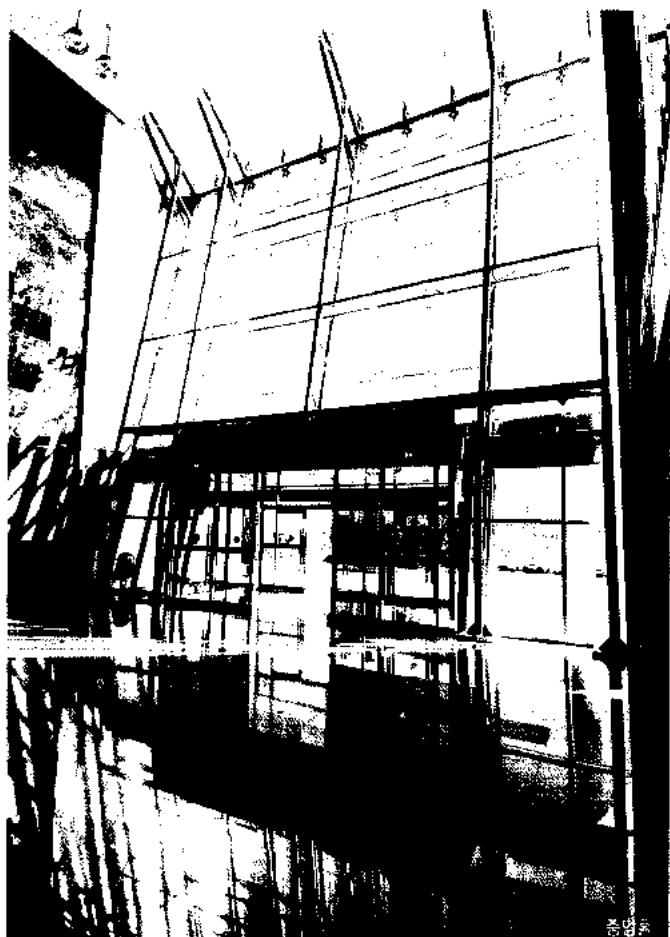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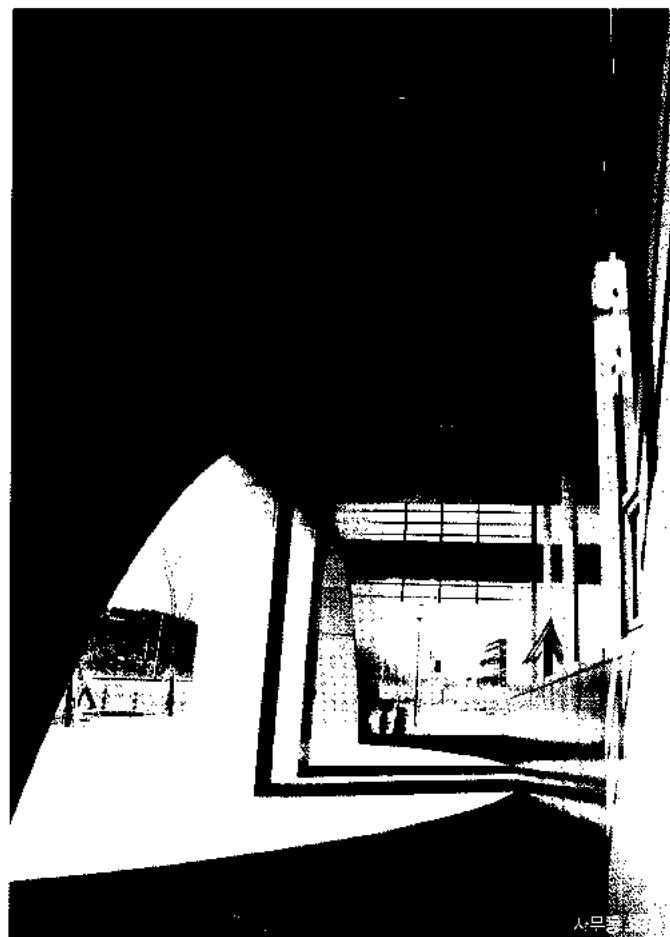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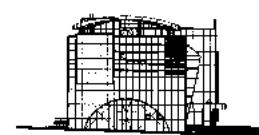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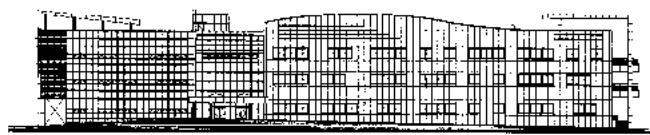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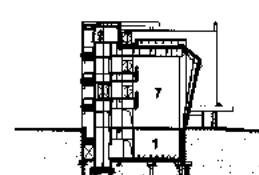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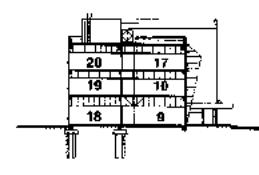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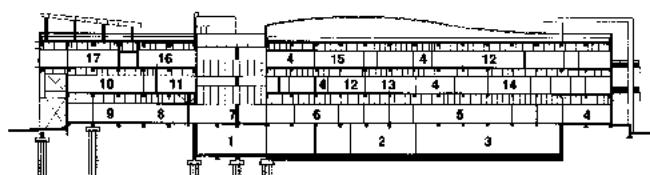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1

종단면도2

- | | | | |
|-----------|-----------|-----------|-----------|
| 01_ 저수조 | 06_ 일반실험실 | 11_ 원장실 | 16_ 식당 |
| 02_ 전기실 | 07_ 로비 | 12_ 기기실 | 17_ 채리던트실 |
| 03_ 환고 | 08_ 만월실 | 13_ 기기분석실 | 18_ 전산통신실 |
| 04_ 사무실 | 09_ 행정지원과 | 14_ 대기실증실 | 19_ 부장실 |
| 05_ 제1실험실 | 10_ 소홀의실 | 15_ TMS실 | 20_ 대회의실 |



서초동 1703-9

박유진 건축사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약 3년 전에 시간건축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랜 숙련과 경험의 박 건축사에게는 큰 자산으로 여겨졌고, 그 경험만큼이나 실무에서의 건축을 보다 신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읽혀졌다.

인터뷰 내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한 박 건축사는 자신의 개업시기가 '약간 늦었다'라고 표현 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용 있는 건축을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건축물에서 박 유진 건축사의 노련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유정훈(이하 유) :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 인터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고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과연 사회와 소통(疏通)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인터뷰를 통한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우리사회에서의 건축의 의미를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박유진(이하 진) : 사회적인 소통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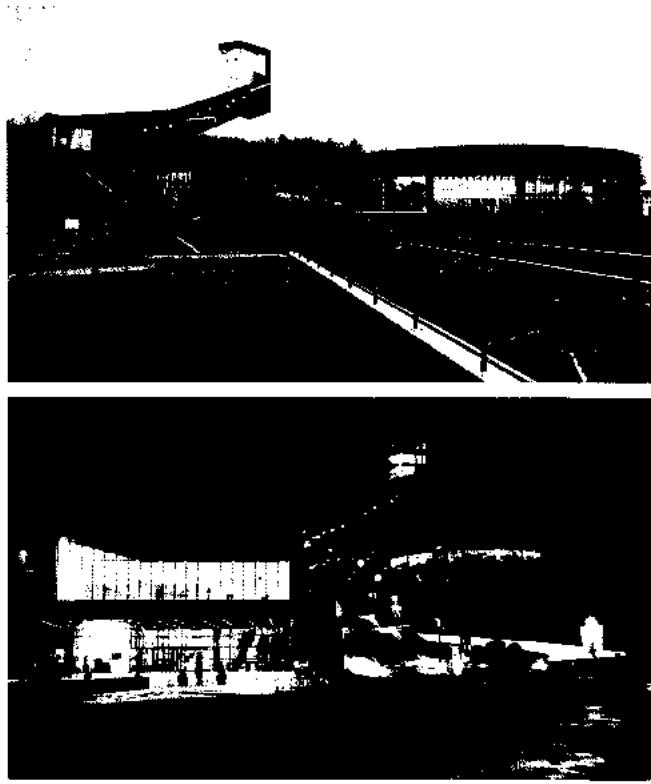
• 유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건축주와의 소통이 있겠지요. 우리 생활에서 일반 대중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는 부동산의 인식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들이 설계를 통하여 어떻게 건축주를 설득하고, 그들을 리드하여 나갈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건축사를 잘 쓰면 건물의 가치(價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인수 건축사와 함께 이런 인터뷰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또 다른 건축사들과 일반인에게 알리는 기록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수(이하 수) : 의미를 더 한다면 잡지라는 매체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기본적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설계하신 분하고 설계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게 '건축사지편집위원회'의 생각이었지요.

• 수 : 사무실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건축(時間建築)이 시작된 지 약 3년 반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인원 수와 지금껏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나빴던 일 하나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진 : 현재 12명이 함께 합니다. 시작은 6명으로 시작했지요. 2007년 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지요. 또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이 같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고, 나쁜 것은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것이 바로 옛 드림랜드에 새로 들어서는 조경과 건축이 함께 들어가는 '북서울 꿈의 숲'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경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당선하였지요. 사실 컨소시엄을 만들어 들어가니, 구성원 간에 잘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좋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당선되고 불과 1년 만에 완공을 해야 하는 엄청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건물만 하여도 10,000m²가 넘고, 제대로 설계도면이 없어 부족하였던 거죠. 너무나 바쁜 스케줄로 축박하게 진행되었고, 사실 감리 계약을 하지 못한 채로 거의 모든 과정을 감리하였습니다. 과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언가 설계를 좀 더 발전시켜서 현장에 갖고 가면 많은 경우 시공이 완료되어 있어서 낭패스럽기도 하였고, 아주 진행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결국 개념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게 참 아쉽습니다.





복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전경(위), 야경(아래)

- 수 : 공원 내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디테일에 주목할 만큼 오래 머무는 곳인가요?
- 진 : 주 용도는 세미나와 공연장, 레스토랑,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 전부터 오시겠죠. 하지만 이 공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생활 공원이고, 주변이 모두 주택이라 정문이 따로 없어 각 골목에서 공원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여타 공원과 차별화되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 말고도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늘 계속하여 방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엄청난 인원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 그런데도 이곳이, 특히 건물이 별로 부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요.
- 진 : 별로 건축의 축면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니 그렇겠죠. 하지만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현 시장께서도 매우 좋아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수 : 현재 12명이 함께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진 : 일부는 전에 일하던 사무실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소장과 실장을 맡고 그 밑에 직원들은 모두 새로 뽑은 직원들입니다. 그 중 1명은 총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때때로 한두 명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면입니다.
- 유 : 어떻게 신입사원을 뽑으시나요?
- 진 : 공개채용은 한 적이 없어요. 필요할 때 교수님들께 추천을 부탁 드리지요. 추천을 해주시면 대개는 채용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습이나 인턴십은 큰 조건 없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 수 : 시간간격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원상 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진 : 쉽게 말하면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요새는 대학 졸업생들이 들어올 때, 디지털 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하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3D 툴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 유 :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입체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학생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캔 것 같은 기쁨이 있지요. 너희들은 건축사이고 건축사가 일반인과 다른 점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게 원가 타고난 것이 있거나 많은 훈련을 하여야 일어지는 것 같아요.
- 진 : 컴퓨터 툴을 잘 다루는 학생들이 보통 큰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무실에 오는 학생들은 컴퓨터 툴에서 상대적으로 모자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툴을 다루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툴을 적절히 다룰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 : 지금 디지털 툴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는 뭐 없을까요? 마음가짐이랄까? 생각해보면, 최근에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와 건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의미도 약해지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혹시 박유진 건축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해서요.
- 진 : 요즘 보면 신입사원들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 첫 회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월급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근무의 조건 즉, 아근이 많은지 등을 보자면, 또는 유명 건축사를 찾아가서 일단 그 사람의 명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경향도 있지요. 이러한 다양한 판단으로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직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회사이건 어느 정도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면, 좀 찬고 속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급여차이가 많을 수도 없습니다.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렇지만 형편상 최고대우를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소 5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참고 속련하여 능력을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 : 그렇게 했을 때 신입사원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 진 : 생각 같아선 전인교육이라도 하고 싶지만…(웃음) 최소한 인격적인 것은 안 되더라도 멀티플레이어 정도는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툴에 대해 능통하는 것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건축의 범위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

지만 건축의 개념적인 것이나, 건축을 생각하는 방법 등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 유 : 사실 전문가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이러한 경험이 단절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사람이 계으른 것인지,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포기한 것인지….

• 진 : 큰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간 기계처럼 정해진 몇 가지 일만 한다고 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큰 회사는 프로젝트도 크니까, 건물에 대하여 제대로 다 배우려면, 한 20년 일해야 건축의 이런 저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많은 분야를 감당하여야 하므로 배우기에는 역시 작은 회사가 빠르겠지요.

• 유 : 시간건축에선 실시설계도 다 하시나요?

• 진 : 우리나라의 설계비 수준이란 것이 실상 실시설계를 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지속적인 수주의 압박이 있지요. 물론 작은 일들은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실시설계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실시설계는 외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외주회사에 맡겼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지요.

• 수 : 그럼 외주를 위한 풀(Pool)같은 게 있으신지요?

• 진 : 그렇습니다. 늘 함께 일했던 팀들이 역시 결과가 좋더라고요.

• 수 : 말씀 중에 나온 설계비 수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설계비용이 부족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주로 처리하면 부족한 비용 중에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진 :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 보다, 실시설계를 잘 하는 팀에 맡기는 것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간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으니, 좀 더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요.

• 수 : 다시 정리하면 결국 비용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에서 실시설계를 외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 진 : 그렇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형 사무소들은 거의 모두가 실시설계를 외주 처리합니다. 같은 문제죠. 운영이 안 되니까.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앞으로도 실시설계를 외주 처리하는 것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수 : 말씀을 들어보면 실시설계 외주는 전적으로 비용과 운영측면인 것 같습니다. 박유진 건축사께서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보완된다면, 실시설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진 : 물론 지금도 작은 프로젝트나 시간이 매우 급박한 것들은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결정요인이 비용과 운영에 관한 문제이니 그런 것들이 극복된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 유 : 인터뷰를 하다보면 20명 정도 규모의 사무실도 실시설계는 모

두 자신들이 처리한다고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 진 : 그런 사무실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인원이 20~30인은 되어야 실시설계 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너무 인원이 적어도, 또 너무 인원이 많아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들이 그러한 비용과 시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수 : 조금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건축 관련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 곤란하거나, 나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진 : 우선은 불편한 게, 설계비에 대해 정확한 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주들과 설계비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참 부족해요. 결국 많이 쓰는 방법이 건설비의 몇 퍼센트인지 인데, 실제로 그 퍼센트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 것인지 모호하지요. 또 엔지니어링의 대가, 정부에서 쓰는 표 등에서 내용이 막 달라져요. 조경에서 쓰는 것도 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설계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기준이 없지요. 설계자가 감리를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감리자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도대체 모르다 보니까 원(元) 설계자가 웬만한 공사에 절반 정도는 공짜로 감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늘 현장에서 부르고, 비용을 줄 방안은 없다고 하고, 결국 공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련법들이 너무도 급하게 또 심하게 바뀌니까 그 바뀌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바꿔야 하는지, 그럼 그 전에 만들어놓은 것은 뭔지? 실례로 전 얼마 전 큰 낭패를 보았어요. 얼마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안하며, 그 당시 제가 알던 법에 따라 150세대 미만으로 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좀 지난 후의 반응은 불과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300세대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완전히 당한 느낌이었어요.

• 수 : 맞습니다. 이 법률들이 건축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데, 이런 법률의 변화에 있어서 건축사들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진 건축사님께서 공간에서 워낙 오랜 시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왜 독립하셨는지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진 : 길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 수 : 짧게 부탁드립니다.

• 진 :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 자신이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 둘 수 있었던 것이고, 저를 알기 위해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 수 : 회사이름을 시간건축이라고 한 이유와 다른 사무실과 다른 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진 : 우선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간에 있을 때, 김수근 선생 생전에 사내지(社內誌)로 '시간(時間)'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져 없어졌지요. 당시 제가 편집장을 하였는데, 그 이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기억 때문에 사무실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시간' 집지의 타이틀은 김수근 선생이 한문으로 직접 써서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건축을 배울 때, 공간, 시간, 인간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건축을 사람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 시간건축이 차별화되는 점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건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에 건축이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지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건축은 건축사의 유희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에 문화적인 것, 장조적인 것을 좀 더 추가하고, 문화적인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수준 있게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축사의 어떤 의도만으로 구성되거나 보다는 사회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거기에 건축사의 재능을 좀 더 얹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하고,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을 중요시하며 저는 설계를 하고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 유 : 하지만 건축주들이 언제나 잘 이해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건축주들은 운이 좋기도,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곤 했습니다. 건축사(建築士誌)에 실린 서초동 프로젝트도 사실 매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건축주가 저의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살 따라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표면의 재료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축주도 건축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가 잘 완료되고, 건축주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건축을 잘 모르는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삶의 수준을 높여준 것이지요.



• 수 : 건축주에 대한 배려가 좋으신 것 같아요.

• 유 : 많은 경우 일반인이 건축주들이 그 배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 말고는 고마워하거나 알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건축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진 : 굳이 표현하자면 배려라기보다는 소통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수 :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더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 : 법원의 대각선 방향으로 법원부지에 붙어있는 땅이지요. 근생의 업무시설로 결코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1인 변호사에게 20~25평 정도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명의 사무장과 1명의 비서 그리고, 1명 정도의 사무직원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정도의 규모이고, 자료수집과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죠. 평면을 보시면 가운데 코어를 두고 양편으로 각 1명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평면입니다. 또 법원에서의 조망이 좋고, 특히 맨 위층이 가장 좋지요.

• 유 : 이 땅이 낭떠러지 아래인가요?

진 : 이게 법원 부지의 끝선이에요. 법원의 대지를 구성하는 옹벽인 것 이죠. 그래서 이 부지에서는 기부제납으로 옹벽에서 건물을 이각하고

도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막혀있지만 다른 부지에 계속 신축이 진행되면 도로가 생기게 될 겁니다.

• 유 : 처음에 대사를 받고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 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서 재미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건

물이 위쪽으로 흐게 된 것은 사선제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보세요. 여기에 사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원 쪽에서 사선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사선제한을 받은 것이죠. 법이란 것이 모든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수 : 이곳은 변호사 사무실 6개소가 개설될 수 있는 건물로서 건축주가 변호사사무실의 임대를 목표로 기획한 것이군요.

• 진 : 건물 주인이 맨 위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제일 좋은 층입니다. 이 동네가 워낙 이런 유형의 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1층을 모두 필로티로 하여 주차로 활용하였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선큰으로 처리하여 지하에 빛을 준 것이 색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또 다른 성격의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은 사회체육용 학원으로 사용하고, 반은 건축주가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수 : 이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나요?

• 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 수 : 혹시 건축주께서 특별한 조건을 요청하신 내용이 있었나요?

• 진 : 글쎄요. 면적으로 최대한으로 뽑아 달라, 임대되기 쉽게 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였지요. 그것을 총족시키면서, 제가 선큰, 지붕, 외장 등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다행히 건축주가 이 제안들을 좋아했어요.

• 수 : 이 건물은 심의를 받았나요? 혹시 그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내용은 없었나요?

• 진 : 심의를 받았지요. 그리 큰 문제는 없었어요. 건물이 워낙 작아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한 번에 통과되었어요.

박: 혹시 이 건물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었나요? 공무원이나, 시공자 또는 컨설턴트리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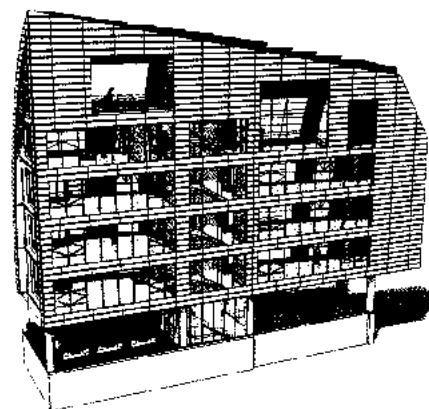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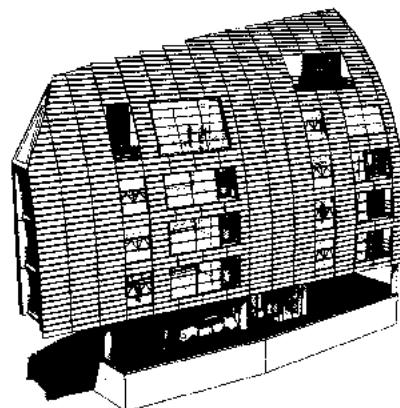
• 진 : 말씀 듣고 보니 다시 시공자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비슷한 성격의 근생을 하나 더 하게 되었고, 지금 공사 중인데이요. 거의 같은 계획인인데도 이번의 시공자는 맨 위층 5개의 철골 기둥을 꼭연 밴딩으로 구부리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윗부분이 부드러운 곡면이 아니라 기울어진 평면이지요. 그래서 서초동 근생의 시공자가 공사를 매우 성의껏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공사비도 낙제지 않았을 텐데….

• 수 : 혹시 그 건설회사 이름은 뭘까요?

• 진 : 중호건설입니다. 예전에도 조금씩 공사를 같이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신축은 서초동 근생이 처음입니다.

• 수 : 공사는 도면대로 잘 진행되었나요?

• 진 : 예. 무엇보다도 도면에 이상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서초동빌딩 모델링

대해 적절하게 질문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시공하였어요. 지금 짓고 있는 근생은 시공자가 시공 중 잘 물질 않아요. 매우 불안합니다.

• 유 : 이 땅을 처음 받으셨을 때, 좁고 길게 보셨나요? 아니면 넓고 짧게 보셨나요?

• 진 : 왜 질문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최초에는 좁고 길게 봤어요. 처음 대지에 갔을 때 근생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폭이 좁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입면이 거의 필요 없는 건물이겠구나 생각 했었지요. 그런데 대지조사를 하고 여건을 분석하면서 법원으로부터의 입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 법원 쪽에서 찍은 사진이 보여주고 있지요.

• 수 : 이 건물의 사진을 보면 곡면 중간에 돌출되어 튀어나온 모습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혹시 패널의 접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요?

• 진 : 이게 다 사정이 있습니다. 건물의 상부가 휘다보니 그곳에 화장실과 복도 등이 배치될 때 충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잘 알아보기 어렵지만 사진에서는 나타나는군요.

• 유 : 대지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 진 : 350.9m²니까 120평이 좀 안됩니다.

• 유 : 암으로 이런 자투리땅을 잘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작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수 : 주신 글에 보면 사선을 경관적으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원 측에서만 이뤄지는 경관인 것이죠?

• 진 : 그렇죠. 사실 골목에서는 필로티와 좁은 입면밖에 안보여요. 그보다는 최상층 내부공간에서 많이 느껴지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창호, 외장 등을 좀 더 설계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수 : 이런 정도 규모의 건물이 향후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유지 될까요?

• 진 :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작은 스케일의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 둘째입니다. 요즘 도시 계획에서 소위 그레인(grain)이라고 불리는 개발 단위들이 너무 커져서 이런 규모의 건물이 유지되기가 참 힘든 것이 안타깝습니다.

• 수 : 그렇게 그레인이 작은 개발은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 진 :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도 이제 바꿔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바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의 북촌을 통상 사용되는 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청운동 뒤편만 가도 플래카드에 “난 아파트에 살고 싶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로서의 건축사들이 사회적 기여를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수 :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이사를 하셔야지, 지금 계신 곳을 아파트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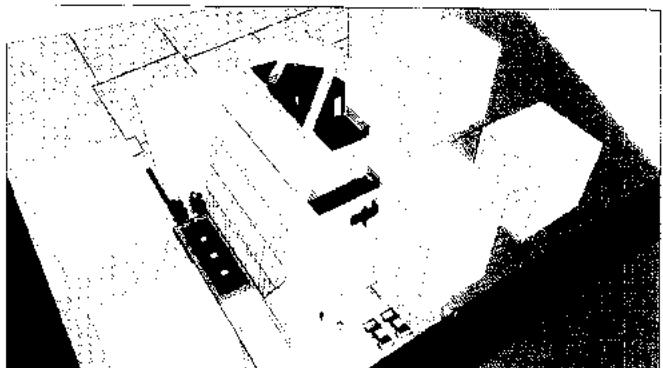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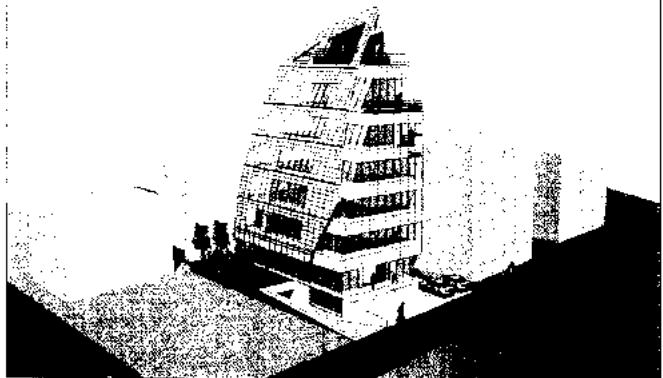
• 진 : 빨리 보상 받게 해달란 이야기이지요. 결국 아파트는 평계일 것입니다. 보상금이 중요한 것이지요. 건축아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해결할 수 없어요. 미래에는 역전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도시에서는 문화적 가치 때문에 라도 저밀형 주택이나 근생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 : 결국 아파트는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였던 높은 인구밀도시절에 썼던 방법이니까요.

• 수 : 서초동 건물의 공시비는 얼마나 되었나요?

• 진 : 일반적으로 근생은 평당 300만원이면 짓는다고 해요. 누구나 싸게 돈을 덜 들이고 짓기 원하겠지요. 이 건물은 좀 더 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임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정도로 지어지는 것 같고, 이 건물은 평당 340만 원 정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 저희가 계속 이런 인터뷰를 통하여,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



논현동 오피스 모델링

주에게 좀 더 부가가치를 안겨준 사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진 : 그래서 제가 좀 장치를 짊어넣었지요. 1층은 어차피 주차장과 조경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땅이 너무 좁아서 지하에 기계주차장을 넣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1층을 필로티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고, 대신 지하층에는 작지만 빛이 들어오는 선큰을 만들어 지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었지요. 필로티 밑에 있는 선큰이다 보니 비가 들어오지 않는 장점이 있고, 아주 강한 빛은 아니지만 비교적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육상은 지붕이 거의 필요 없고 위를 덮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형태의 완결이란 측면과 외부공간이지만 한정되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소유성이 더 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의 테라스가 된 것이지요. 사무실 바깥쪽도 테라스가 생겨서 사무환경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축주가 받은 혜택,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건축주에게 주장을 해서 비용은 좀 더 들었지만 건축주에게 무언가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 유 : 혹시 이 건물이 유효할 수 있는 수명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요즈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100년이나 200년 갈 수 있는 건물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진 : 글쎄요. 건물이 너무 작아서… 하지만, 이 블록이 유효한 상황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수 :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 하도록 하고 다시 사무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간건축의 주 수주방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진 : 현상이 주된 수주 방식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요즘 너무 당선이 안 되어서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BTL 제외하고 현상설계만 4개를 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요새 너무 치열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텐키도 하고, BTL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수주형태로 볼 때 아틀리에 타입 사무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원이나 구성은 아틀리에에 가깝습니다. BTL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3개월 정도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무실과 조인트 해서 진행 합니다. 저희는 군 관련한 BTL을 했지요. 사무실 오픈한 후 두 개 정도 했고요. 올해도 하나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간건축으로는 매우 중요한 수주 방식입니다. 그리고서 남은 것은 수의계약이겠지요.

• 유 : 하지만 BTL이 설계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 수주방식이 아닙니까? 아무리 설계안이 좋아도 건설사의 자본능력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당선이 어렵겠다는 것이 저의 몇 번의 심의 경험에서 볼 수 있지요.

• 진 : 요즈음에는 건설사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없어져서 오히려 설계 안으로 차이를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 수 : 수의계약이라 하시면 친지나 지인 등을 통해 이뤄지나요?

• 유 : 친지는 2년 정도 흐력이 있을 수 있겠죠.(웃음)

• 진 : 맞습니다. 잘못하면 써움 날 수도 있어요.(웃음) 친지는 거의 없고 지인의 소개가 있지요. 주로 예전에 저하고 관련 있던 분들입니다. 공간에 있을 때 만났던 분들이거나 또는 소문 듣고 오시기도 하고….

• 유 : 영업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 진 : 영업을 나가면 매우 어렵게 되죠.(웃음) 하지만 텐키나 BTL 등을 많이 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에선 영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이런저런 상황 맡고 건축을 잘해서 소문이 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반대로 용도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 것인데, 전 사무실에서부터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계속 잘 되지 않으니 힘이 듭니다. 최근에도 문화회관 현상을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 수 : 일반적으로 건축사의 개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진 : 제 생각에는 첫 입사 후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무실에 있었건, 몇 군데 옮겼건 간에…

그렇다면 한 40대 초반 이후가 되겠죠? 만일 그전인 30대에 개업을 한다면 패기야 있겠지만 저번이 확대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수 : 저도 최근에 일찍 개업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개업시기 당시의 실력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군요. 결국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 진 :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수준에서 계속 일이 맴돌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하기 어렵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경험하고 나서 개업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을 시작할 때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수 : 첫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 : 아까 신입사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만 따지는 첫발이라면 결국 당시는 어떨지 몰라도 좋은 건축사가 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도 잘 해야 하고, 건축주도 잘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식도 있어야 하고, 여러 관련인 들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요.

• 수 : 다시 거듭 정리해 보면, 개업하기 위해 15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설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건축주와 대화하고, 수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반 지식도 쌓고, 관련 전문가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진 : 그렇습니다. 큰 회사에 가면 15년이 되어도 건축주를 상대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위치에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판단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 유 :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나요?

• 진 : 네. 인하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 : 그럼 학생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많이 알려주셔야겠네요.

• 진 : 틈나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는 무조건 참고 지내라. 처음에 배우지 못하면 딴 데 옮겨도 또 못 배우니까. 참고 잘 배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 유&수: 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무언가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그는 1945년 해방되던 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복판 익선동 34번지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 꿈인 전투기 조종사는 무산된다

나의 소년시절 꿈꾸었던 희망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중고 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고, 여름엔 수구 선수, 겨울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였으니, 기초 체력단련은 훌륭한 편이었다.

아버님, 삼촌, 형님들이 모두 의사인 집안이라 부모님은 당연히 의사가 되는 것으로 키우셨다. 물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회봉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를 보는 생활과 제한된 사회생활이 싫었다.

그보다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씩씩한 군인, 특히 하늘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다. 물론 노후에는 민간항공기 파일럿이 되어 세계를 다니며 일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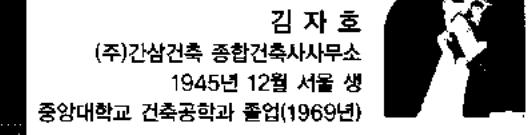
그런데 부모님은 자유직업을 갖는 것은 좋으나 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극구 반대하셨다. 아마도 본인이 6.25전쟁 때 많은 부상자를 치료하다보니 군인을 희망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되어 소년시절 꿈은 접혀졌다.

친구 따라 중앙대학교를 가다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접고 나니 공부도 뒤로 처졌지만 아이스하키 선수로 고려대학교 체육부에서 요즈음 말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

선배 2명과 함께 입학을 권유 받던 중 초등학교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큰 이모가 중앙대학교 이사장이었는데, 대학까지 같이 다니기를 무척 원했다. 지금 보면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리고 말았다.(부모님 역시 계속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그런데 막상 진학을 하려고 하니 희망하는 전공과 학과가 필요했다. 마침 만들고 키우는 소질이 있어 신설 건축공학과를 택하였고, 그때 인연이 된 이명호, 김덕재, 신현식 교수님과는 지금도 사제지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다.



김자호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1945년 12월 서울 생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69년)

머릿속에는 항상 유학의 꿈으로 가득

대학시절 뒤늦게 철이 들어 2년차부터 이명호 교수님의 지도로 건축에 입문하였고, 3년차부터는 ROTC 군사훈련까지 병행하여 명실상부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였다.

3, 4년차에 비로소 건축에 관한 지식을 쌓았고 유학의 꿈도 꾸게 되었다.

유학대신 일본 회사에 취직

1971년 공병장교로 제대 후 못다 한 공부와 사회경험을 쌓으려 고민하며, 독일과 미국에 유학준비를 하고 있던 중 부모님 친구분으로 경제계에서 유명하신 한 분의 권유로 한·일 주거문화와 건설에 관한 회사가 설립된다 하여 우선 일본에 요즈음 이야기로 인턴사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그 당시에는 여권과 VISA 획득이 무지하게 어려웠다.) 건너가게 되었다.

일본의 10대 재벌 회사 중 TOKYU그룹의 부동산, 건설, 설계 회사에서 3년간 인턴사원, 5년간 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일본 1급 건축사 면허' 획득

그 시절엔 한국인으로 건축유학생은 물론 일본 체류인구가 손으로 꼽을 정도(왜냐하면 한일 우호협력이 결정된 지 5년 정도 되었다.)로 재일교포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었다.

열심히 일도 배웠고 매년 실력이 쌓여 성숙된 건축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무엇인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녀 석사나 박사가 되든가, 또는 건설성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자격시험(일급 건축사가 최고임)에 합격하는 길 밖에 없었다. 우선 시험자격부터 문제였다.

(1년에 걸쳐 건설성과 협의 후) 1977년에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유학의 꿈을 접고 정림건축에 들어가다

대학시절 못 다한 유학의 꿈은 동경생활에서도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 동대 대학원에 6개월 연수도 해보았고(VISA 문제도 무관) 독일 하노바공대의 입학허가서도 받았고, 미국설계회사에도 노크를 해보았으나 나의 개인사정(결혼해서 부인과 딸이 있었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일하면 회사임원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회사로 조

서로를 존중하고 사원의 교육과 복지에 신경 쓰고 세심한 아시아 1위의 목표를 지향하는 최고의 Design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간·삼의 철학 비전이므로 자신에게 대를 물려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 한국의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외국서 유학보다는 국내로 귀국하는 길이 옳다고 판단하고 꿈을 과감히 접었다.

그 시절 서울에서는 기술인력, 특히 외국유학생들이 활약받았다. 현대건설, 서울건축, 정림건축에서 면접을 하였고 최종 선택한 곳이 그 당시 국내 제일로 설계회사다운 정림건축에 취업하게 된다.

Design보다는 기획실을 담당하다

1979년 4월에 정림건축에 입사하여 김정철, 김정식 회장님 밑에서 한국사회와 건축계, 또 처음으로 동년배, 선후배 건축인과 접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

사회생활의 기본 틀이 처음 일을 배우던 일본과는 너무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가 10년간의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다.

디자인의 접근방법과 건축주의 수준 또한 건축일을 하는 사람을 건설회사 일부 다루듯 하는 게 심기가 불편하였다.

디자인보다는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인식을 변모시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을 느끼고 회사 조직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우수한 회사로 만들려는 의욕과 욕심이 생겨 일본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회사 기획업무를 시작하였다.

정림건축 입사는 장래 사장이 되는 것

1979년 10월에 박대통령 서거, 12월엔 12·12사태가 발발하여 혼란한 사회가 계속되고 건축행정 또한 우왕좌왕 하던 시절, 회사들을 잡는데 열중하던 중 지금의 간삼건축이 지향하는 파트너십에 몰두하여 회사에 제안해 보았으나, 임원 측의 답변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을 느꼈다.

1981년 우연히 원정수, 지순 교수님을 한국은행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정림건축과 협력하여 본점 설계를 하는 TF Team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나름대로의 보람은 김수근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새로운 면과 깊이 있는 건축관, 학류계에서의 풍류를 가르쳐 주셨고, 그때 상세양, 승효상 선생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건축에 대한 진솔하고 깊이 있는 생각은 결국 지금 간삼건축의 상호를 지어 받게 된다.

정림건축 복귀 대신 사무실을 차리다

정림건축과 일양건축(원정수+지순)의 합작된 한국은행 본점 설계는 정부 관료의 무책임과 사대적 흐름에 부응 못하고 용두사미로 프로젝트가 공중분해 되어 버렸다.

1983년 37세의 나이로 한창 기쁨이 불에 들어간 듯,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열심히 일하고 놀던 시절에 기가 죽을 수는 없어 한국에 돌아온 지 4년이 되면서 완전히 국내사정에 익숙해졌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선배님도 많아져 후원자가 늘었다.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는가! 이제는 독립할 때라 생각하고, 현재 단국대 이병재 교수와 간삼 창립멤버인 이광만 회장과 삼선교에서 결의하여 사무실이 창립되었다.

그날이 6월 29일이었다. 그 해 9월 주식회사 간·삼건축이 창립되며 원정수, 지순 교수가 주주로 영입되어 명실 공히 간·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수근 선생님의 작명으로 間·三이 되다

40명 정도의 명실상부한 설계회사로 성장 되었으니, 김수근 선생님께 작명을 부탁드렸더니 空間의 속은 비었으니! 너희는 時間과 人間을 더 넣어 '間·三'이 좋겠다. 특히 가운데 점은 세간의 間이 합쳐지고, 즉 자기란 뜻이고, 또 三자는 많다는 뜻이 되는 완벽한 숫자이나 글로벌 시대를 예측하여 'Group-3'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알려질 것이다 하여 그분의 깊은 뜻이 지금도 감사하고 영광으로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1984년 다시 한국은행 본점 현상설계가 당선되면서

세상이 변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최첨단으로 바뀌고 다시 본점 신축이야기가 나와 다시 현상설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간·삼에게는 신이 주신 기회였으니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원, 지 교수님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회였다. 결국 우리 Team은 당선되었고 준공이 되면서 국내의 오피스빌딩 설계 집단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영풍빌딩, 1989년 포스코 빌딩, 1990년 초 테헤란로 유니온빌딩, 과천 코오롱본사 사옥, 동국제강 본사사옥 등 매년 30%로 성장되는 모범회사로 성장하게 된다.

인터뷰 후기

내가 한국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조직 중 가장 모범으로 삼아 말하는 곳이 간삼건축이다. 이유는 다른 대 조직들은 뭉치는 커도 결국 한 사람의 오너십에 의해 디스려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그룹의 비호를 받거나 하는데 비해 간삼은 사무소 명칭에서 3인의 창립자가 나타나고 현재는 더 많은 주주에 의해 이끌어가는 명실 공히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회사라고 읽혀지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기간에 500명에 달하는 대 조직을 만든 데에는 이러한 분권체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확고한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자호 회장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만나면 건축이야기는 노골적으로 골치 아프다고 하며 노는 일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모습에서 아무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친화력이 느껴진다. 간삼의 향후의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일지 김자호 회장이 은퇴 후의 간삼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지 관심 가는 바이다.

인터뷰-최동규 건축사자회원회 위원장

간·삼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회사가 아니다

간·삼건축은 창립 할 당시 주식회사로 시작되었지만 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되었다. 자기가 맡은 전공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역할분담도 분명히 정해 모두 합심하면 무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졌고, 그 조직은 28년째 계속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일하면 회사임원 및 주주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회사로 조직되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원의 교육과 복지에 신경 쓰고 세계 10위권, 아시아 1위의 목표를 지향하는 최고의 Design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간·삼의 철학 비전이므로 자식에게 대를 물려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언젠가는 은퇴하고 후배양성에 힘쓰는 영원한 간·삼인으로 남는 것이 희망이다.

세계건축설계를 리드하는 지존으로 남고 싶은 (주)간삼건축

(주)간·삼건축은 한번 관계를 맺은 건축주는 영원한 건축주로, 항상 다시 찾아주는 회사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 이외에도 무엇이든 컨설팅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service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무와 사람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다'는 교훈으로 (주)간·삼건축은 Design사관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우수 직원을 교육시켜 장래 간·삼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무한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유학생 까지도 지원하려 한다.

(주)간·삼의 리더는 직원이면 누구든 할 수 있다

회사가 지속가능하고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워주며,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 100%리더교육을 구상하여야 하며, 앞으로 건축시장의 축소로 인한 대비에 각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스스로 '自'자에 넓을 '浩'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오늘 안 되면 내일이 있고 주변과 같이 모두 즐거워지려고 노력한다.

한국건축계의 문제점은 전 방위 부패구조라고 생각 한다

한국건축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우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해서 건설회사나 건설행정 공무원의 시녀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다.

소위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 스스로 찾아 덕망 있는 건축인으로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설계, 감리비도 꺼아주고(대서방 수준) 건축주들의 대서역할 정도로 실력과 철학도 없어지고, 건설회사가 시키는 대로 수긍하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

또한 일부 건축 설계회사들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회사는 수주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공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하는데 일부 한눈파는 분도 계시고, 학문의 전당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또한 후학 양성과 연구에 몰두하여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다른 곳으로 한눈파는 분들도 계시니, 우리 사회가 특히 건축분야는 깨끗해지고 공명정대한 분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구로 미디어아트센터

Guro Media Art Center

당선작 / 조영돈 조경원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16의 5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문화시설
주요용도	문화 및 전시회시설
대지면적	1,801.00㎡
건축면적	1,057.90㎡
연 면 적	9,881.88㎡
건 폐 율	58.74%
용 칙 률	317.23%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발 주 처	구로구청
설계담당	이승상, 정일섭, 박상은, 북선영, 윤미라, 김지희, 박우정, 윤재웅

- IT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첨단산업
의 '빛'

-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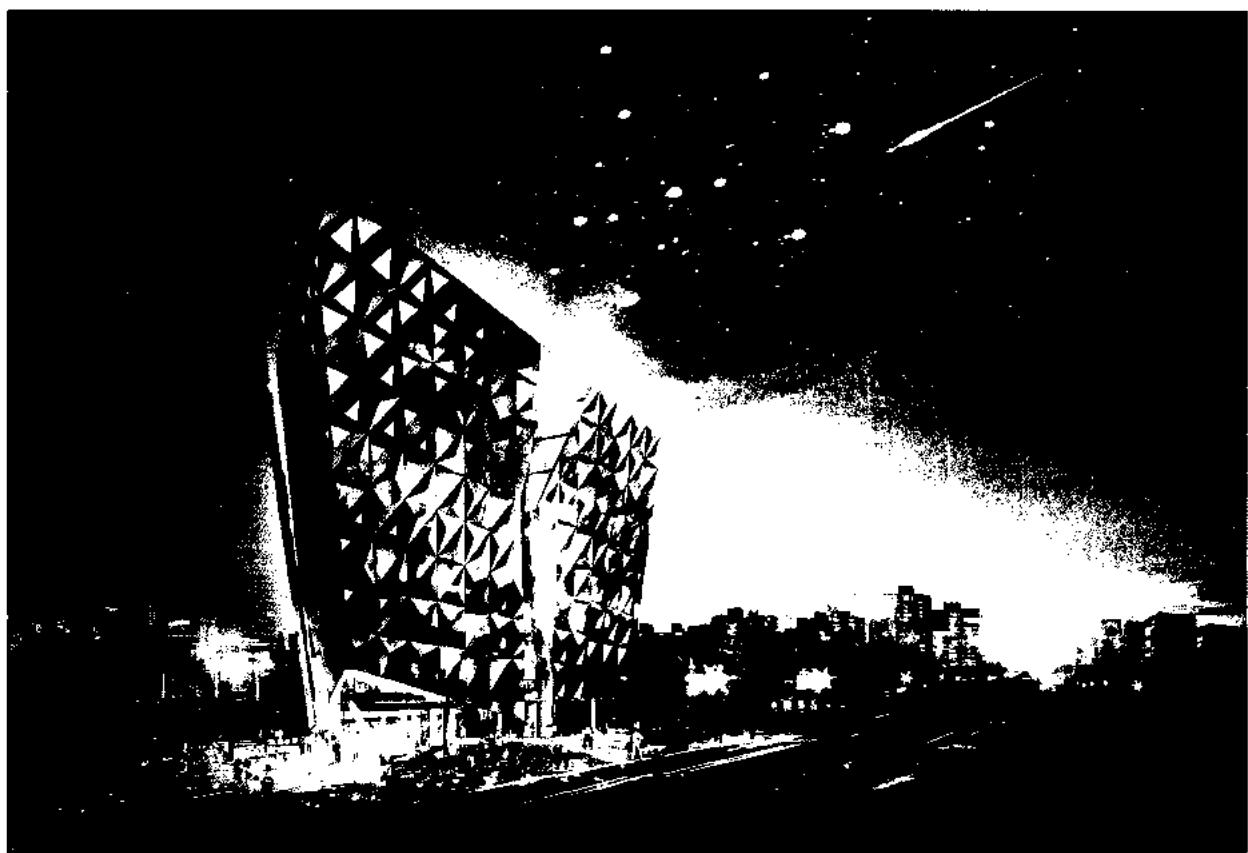
- 인간,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의 '빛'

프로젝트의 배경_산업단지의 성격이
강한 서울 서남권지역의 구로는 수출산
업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제조업체의 밀
집 지역이자 회색의 공단지역으로 점철
되어져왔다. 하지만 첨단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식중심의 IT, Venture
Valley로 변모한 구로는 미디어를 중심
으로 한 새로운 문화성장의 중심이 서
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의 공
간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만
들어나가는 '빛의 조각'으로 계획하고
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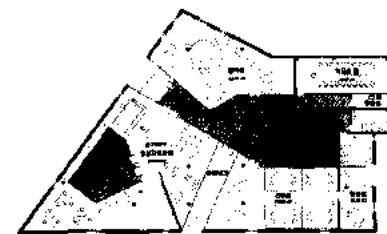
디자인 개념_본래 대지 형태에 순응한
계획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대로변
오픈 스페이스 확보를 통해 대지 전체
의 개방감을 가지며, 동시에 시민을 위
해 새로운 멀티 문화 공간을 형성한다.

전시, 공연, 사무, 교육의 각 기능별 분
리를 통해 이루어진 조닝은 명확하고
간결한 동선 체계를 구축한다. 미디어
라는 특색에 따라 빛을 형상화한 구로
미디어아트센터는 문화 네트워크의 중
심점으로 하나의 '빛의 조각'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빛의 조각'은 단
순한 문화적 소비의 장소가 아닌 세대
와 지역 간의 공유와 교류를 통해 새롭
게 문화가 창조되어지는 무한한 가능성
을 가진 열린 공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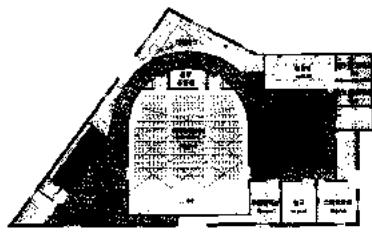
프로그램 구성_지상 7층, 지하 3층 규
모의 본 설계안은 크게 전시장과 공연
장, 갤러리의 전시공연영역과 강의실,
시청각실, 정보화교육장의 교육영역,
그 밖의 아트샵, 휴게실 등의 편의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이용
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진입과 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계획되었다. 전시
장은 무장에 공간을 전제로 세대 간의
교류를 추구하며, 입체적 동선의 구성
으로 상황에 따른 공간 구획을 가능하
게 한다. 공연장은 이용자가 자연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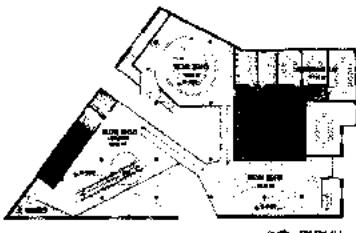
게 유입되는 선관에서의 아와 공연장과 옥상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연장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이용자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각 프로그램들은 친환경 보이드 공간의 연계로 창조적인 문화공간으로 제안되어지며, 충고변화를 통해 개방감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외부 공간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하며, 내외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리듬감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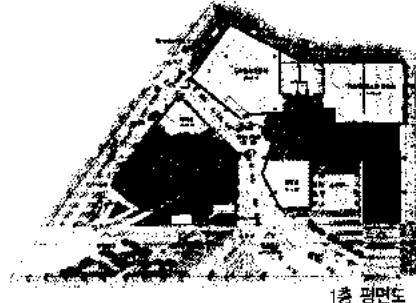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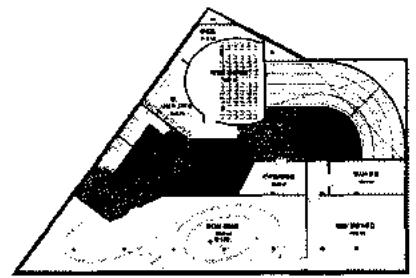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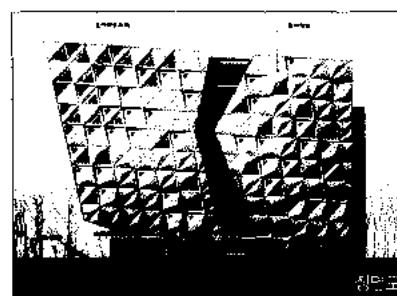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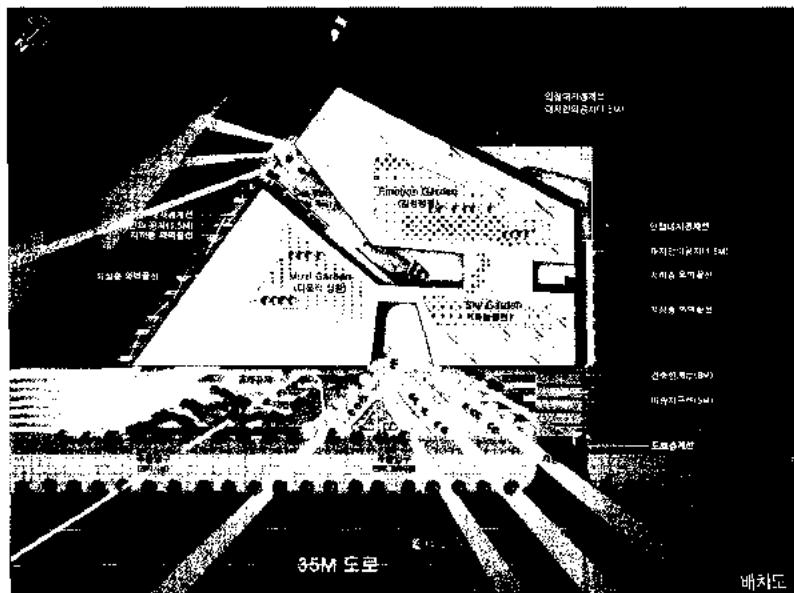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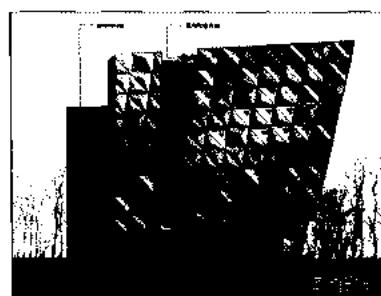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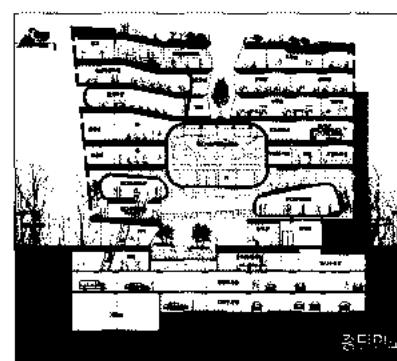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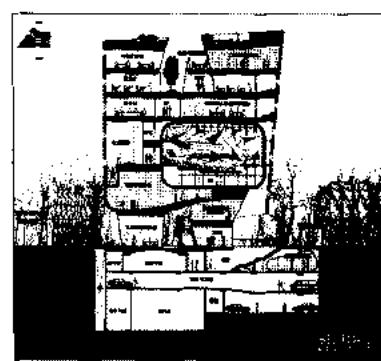
시민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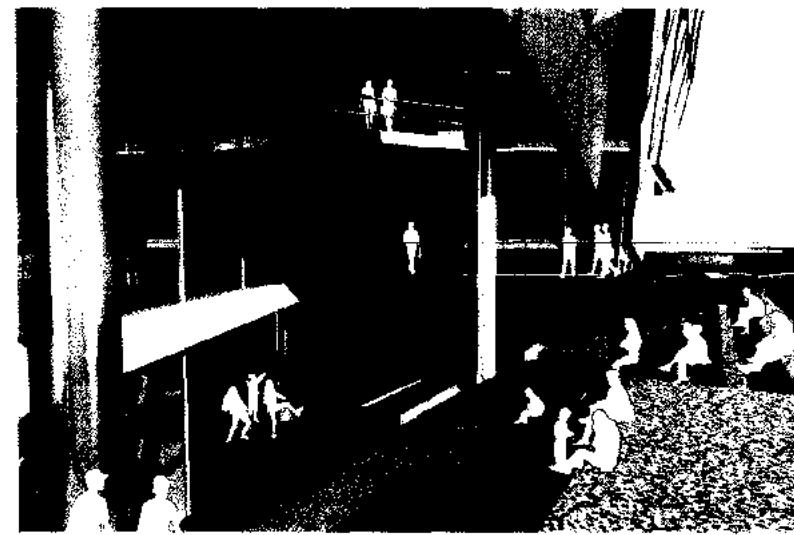
시민포



층단마포



층단마포



구로 미디어아트센터 Guro Media Art Center

우수작 / 함인선 향현

(주)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상길 (주)에이티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승욱 (고려대학교)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3-16외 5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전시시설

대지면적 1,801m²

건축면적 1,058.44m²

연 면 적 10,511.59m²

건 빼 을 58.77%

용 적 률 348.1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설계담당 선진_전영성, 김동수, 김대영, 신현수,
윤영준, 양준성, 송인수, 김희철
에이티_조준호, 김도훈, 금동윤, 박상억

IEG "Imagination Engine" in Guro

무한한 상상력은 자유로이 재탄생한다.

매체예술의 창작, 실험, 체험이 상호 소통하는 상상발전소가 되다.

-동구장 연계성 : 동구장의 스케일 큰 매스를 도시의 배경으로 해석(Mega Screen)

-Interactive Plaza : 도심과 소통하는 Urban Space / 동구장의 Solid Mass를 받아주는 열린 광장(Floating Light Box)

-Media Facade(Media Wall) : 끊임없는 정보전달과 도심과 교감하는 Urban Screen 역할

-형태적 의미 : 상상발전소를 감성적인 유선형 모티브를 이용해 절제된 Mass로 형상화함. 구로미디어센터(Imagination Engine)는 디자인 구로의 상징으로서 작지만 임팩트 강한, 건물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아트로서 도심의 Imagination Icon이 된다.

배치계획

-대지주변의 컨텍스트와 전면도로에 의한 축형성

-전면도로(35m 경인로)에서의 접근성 및 정면성 강조

-동구장의 차량출구를 고려한 차량 진출입 설정, 동구장을 벽으로 인식한 코어 위치 계획

평면계획

· 1층 평면_1층을 과감하게 비워 소통의 마당으로써 수많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Interactive Plaza 조성

-LED 바닥, LCD창 등 미디어아트의 요소들을 감각적인 오브제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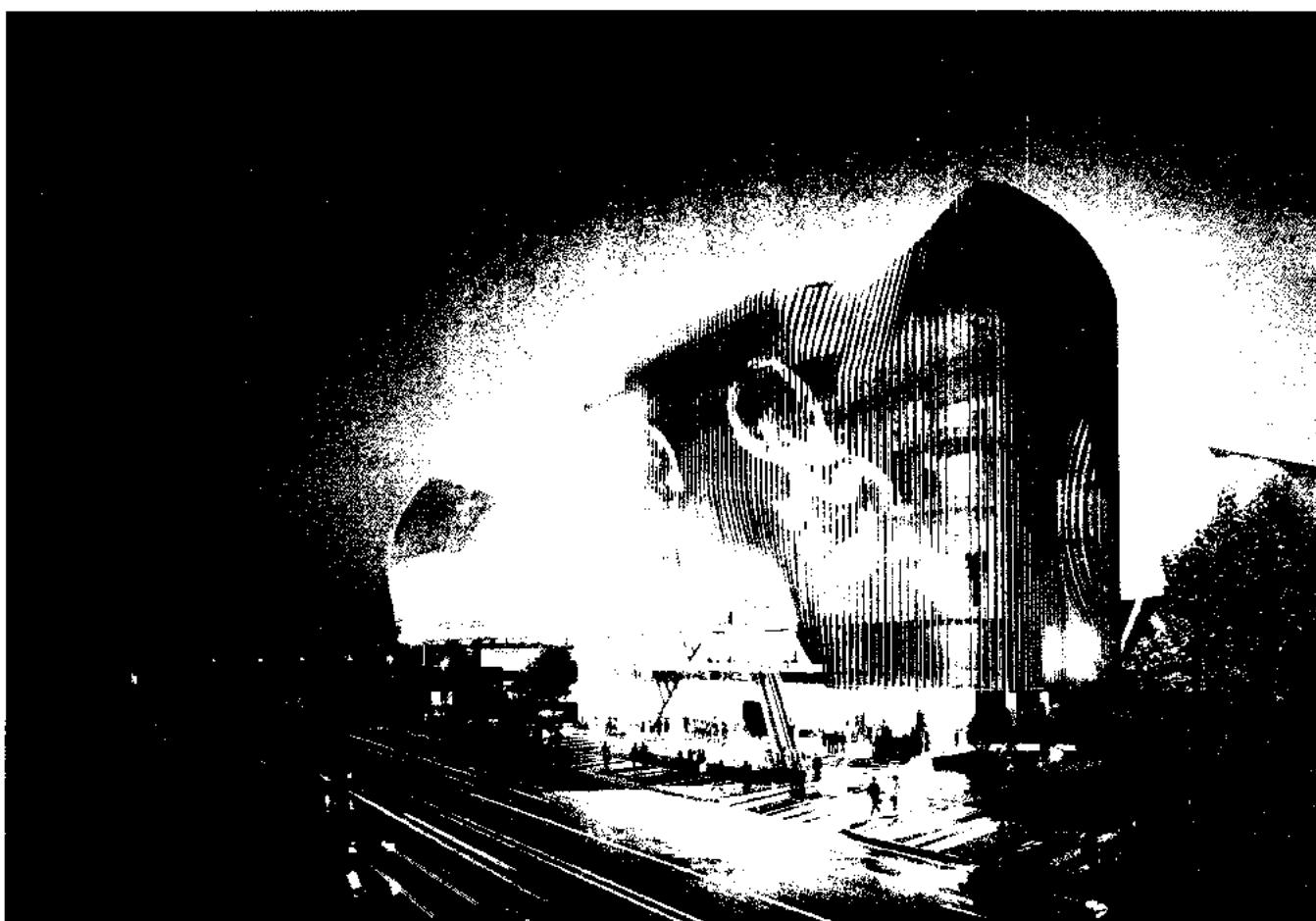
-바라보는 공간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 가능한 Interactive Landscape

-2~5층 평면_가변형 공간

-가변형 로비 : 이벤트, 전시, 영화상영 등 다양한 용도로써 사용 가능한 가변형 로비 계획

-전시장 : 가변형 로비와 연계하여 전시 목적과 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 전시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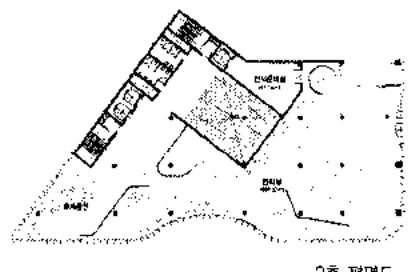
-미디어 씨어터 : 이동식 관람석을 적용하여 다양한 Media Performance가 가능하도록 계획



- 6~7층평면 : 실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 공간배치
 - 사무 교육의 채광이 중요한 Glass Box를 남측에 배치하고, 갤러리, 아카이브 등 Solid Box를 북측에 배치
- 동선계획_ 체험, 교육, 관리, 서비스 각각의 동선을 입체적, 합리적으로 계획**
- 다양한 출입구 계획 : 교육, 관리, 문화원은 1층 로비사용, 2, 3층 전시관 출입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동선 유입, 지하 강의실은 선큰 계단 이용 가능.
- 지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차량동선 간소화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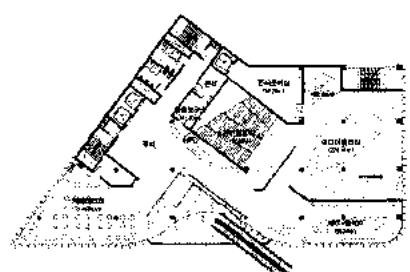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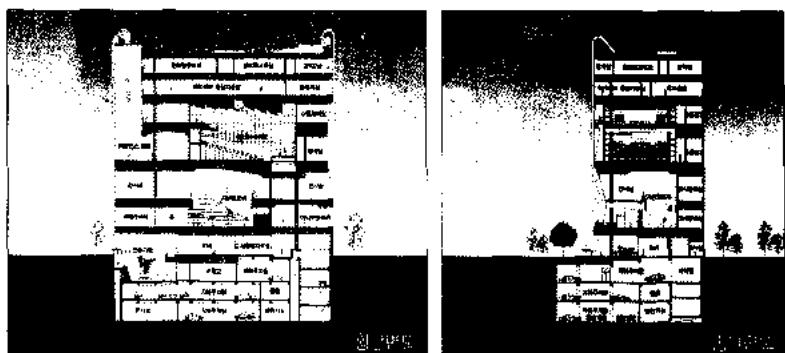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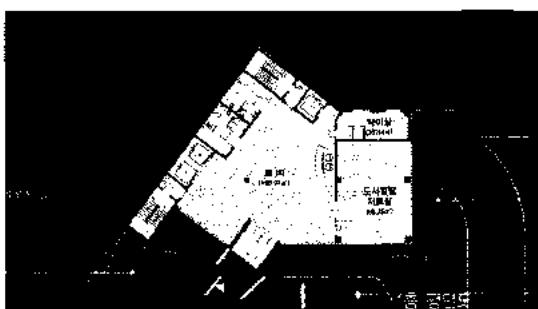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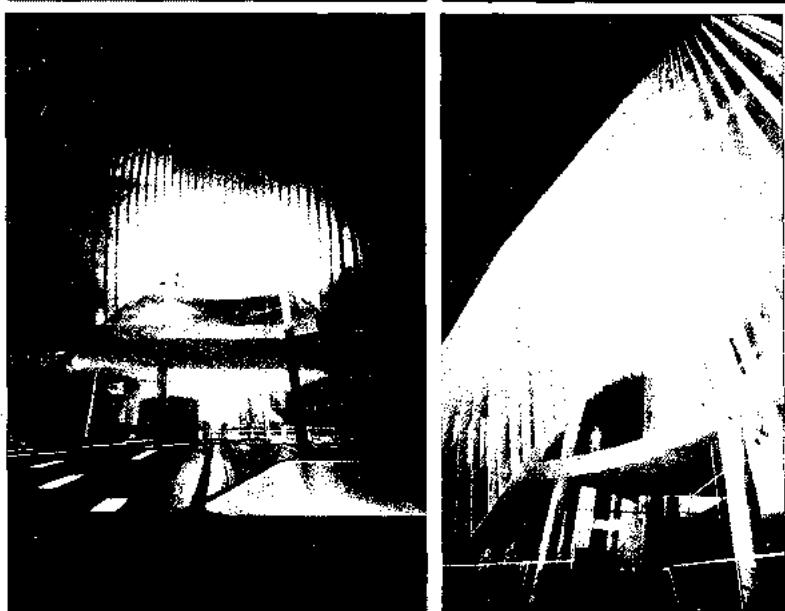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구로 미디어아트센터 Guro Media Art Center

가 작 / 이종석 (주.에드 건축사사무소)
+ 박영택 (에이큐브 건축사사무소)
+ 임재순 (스튜디오 제이에스엘)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63-16외 5필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문화시설

주요용도 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 1,801m²

건축면적 1,078.12m²

연면적 9,996.19m²

건폐율 59.86% (법정 60% 이하)

용적률 312.88% (법정 400% 이하)

규모 지하 3층, 지상 7층

설계담당 에드건축_장덕수, 안재충, 이용혁, 정은영

이정민, 김형술, 박지훈

에이큐브_박영택, 이정대

Concept_구로구 미디어아트센터는 구로의 디지털 문화인프라에 일조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써 동구장, 디지털박물관, 미디어아트 센터를 묶는 문화 콤플렉스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하여 지역 문화 인프라 핵심시설로 문화 사방방 역할이 기대되며, 35m 대로에 접변한 대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와 가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디어 아트는 현 시대 예술을 바라보는 창으로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었으며, 장소 및 시간의 기준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공간으로 인간과 관계 맺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코어로 프로그램의 흐름 및 유기적 공간의 연계를 통해 감각과 경험을 확장하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링크하여 지속기능 한 건축의 혼적으로 투영된다.

도시 가로의 흐름을 수용하는 동시에 인접한 돔 구장과의 형태적 맥락을 고려한 유선형 곡선요소를 도입하여 도시 컨텍스트에 대응하고, 추출된 유선형의 요소들간의 충돌점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Medium Core를 형성한다.

배치계획_다양한 공간감과 편의성을 확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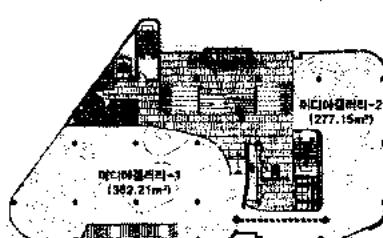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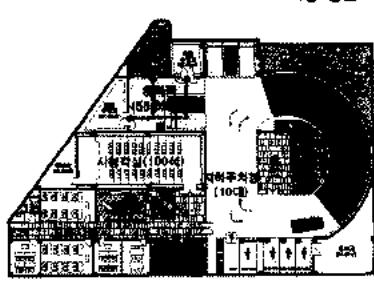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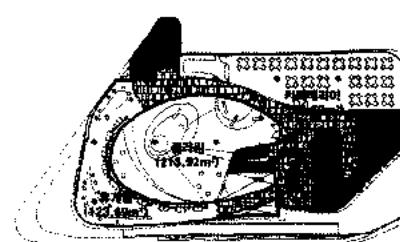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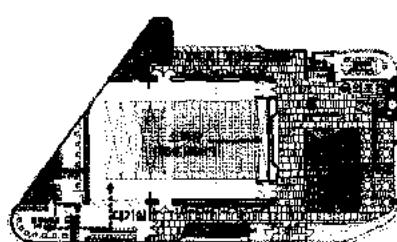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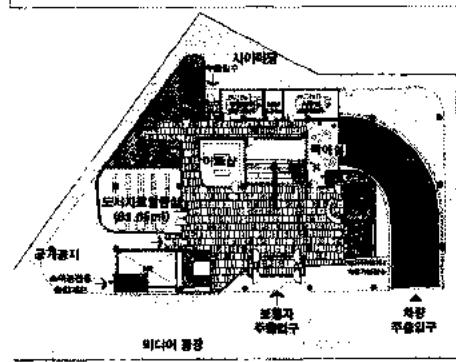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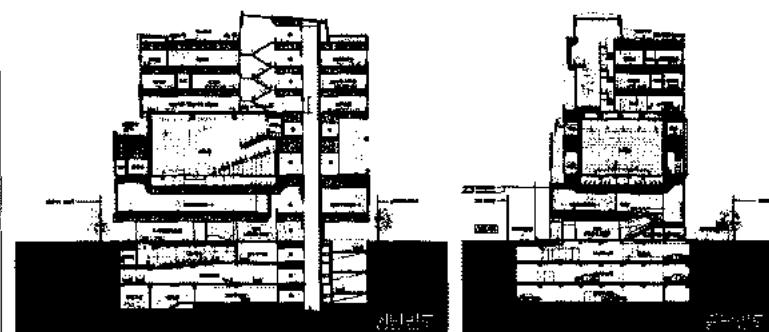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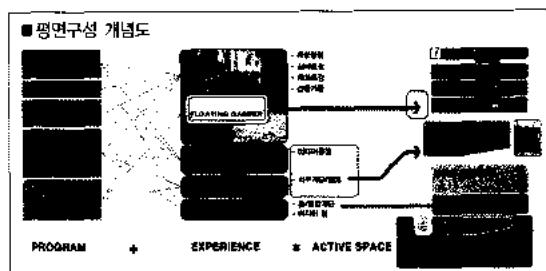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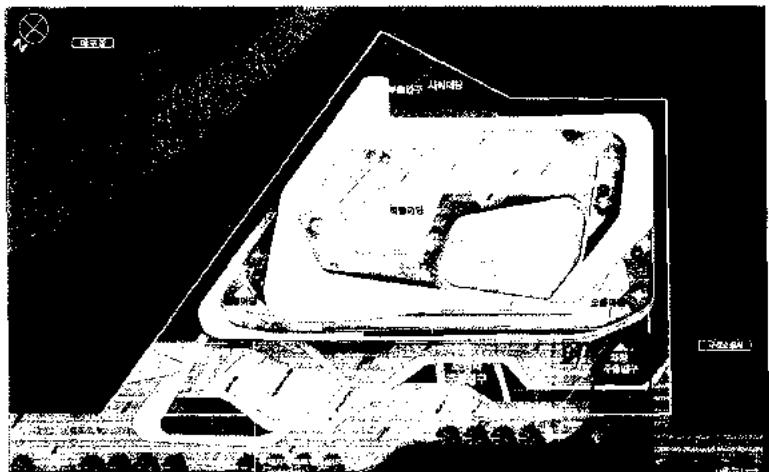
기 위해 대지에 접한 가로마다 대응하는 입체적인 진출입을 계획 하였고, 활성화와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이벤트 공간을 경험하게하기 위해 외부조경을 통과하여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였다.

평면계획_지하 1층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선큰을 계획하였다. 선큰을 계획함에 따라 수직동선이 추가로 계획되었고, 좀 더 다양한 공간감을 취할 수 있었다. 지상 3~4층은 다목적 소극장 개념의 가변화를 고려한 무대와 관람석이 구성되었다. 3층에는 이동식 관람석과 수납식 관람석을 이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4층 부분은 발코니 형태의 고정식 관람석을 배치하였다. 이동식 관람석과 수납식 관람석을 조합하여 공연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가변식 공연장은 관람하는 이로 하여금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는 즐거움까지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공연 대기자의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극장 층, 후면에는 분장실 및 대기실을 배



치하였다. 또한 대기 및 휴게를 고려한 옥외 조경공간을 구성하였고, 상부층 옥상조경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사로를 계획하였다. 6층은 각종 강의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원이 구성되어있고, 5층 실내조경의 연장선상에 아트리움을 구성하고 7층 문화원 갤러리와 연계된 동선체계를 계획함으로써 공간에 수직적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7층은 유선형으로 감아울린 매스의 형태와 동질 성격의 갤러리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휴게 공간은 조망을 고려하여 외주부에 배치하였으며, 5층부터 시작된 실내조경이 7층까지 오픈된 아트리움을 형성하였다.

입면계획 사람이 미디어아트센터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를 접하고 이에 감동하여 문화적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에서 다섯가지 키워드를 추출하여 입면을 패턴화하였다. 단면계획 기본적으로 요구된 프로그램 외에 삶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창출하였다. 옥외공간 조성으로 피난동선 및 자연환경을 도입하고, 로비와 미디어 갤러리의 적극적인 수직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아우르는 아트센터를 계획했다. 수장고를 중심으로 최단거리의 동선을 계획하고, 기능적인 하역공간과 설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수직동선을 계획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당선작 / 김병현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
대지면적	149,372.00m ²
건축면적	21,743.00m ²
연 면 적	124,492.52m ²
건 폐 율	14.56%/(법정 70%)
용 칙 률	77.80%/(법정 350%)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2층, 지상 41층
설계담당	담당_양 용 참여_정석호, 지중훈, 김경주, 김혜림, 김대왕, 장두석, 김운섭, 김태훈, 임승모, 정우랑, 김혜미, 흥순필, 김혜연, 김진형, 정기룡, 배성준, 공경미, 조인동, 김메아리, 이비아

계획안 에너폴리스는 에너지와 정상에 위치한 도시를 뜻하는 아크로폴리스의 합성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상의 하이브리드'를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수직 및 수평적 이미지를 가진 초고층 업무 시설과 저층시설은 넓은 대지 내에 자연지반을 최대한 유지하는 시설집약적 구조로 배치되며, 생(환경)·동(인프라·스트럭처)·감(콘텐츠)을 담고 있는 감성적인 친환경 외부공간과 통합되어 계획된다. 미래적 이미지의 초고층타워는 선의 유려함과 상승하는 희망을 형상화하고, 혁신도시 내 상징적 축 상에 배치되어 조형성이 강조된 다양한 정면성을 제공한다. 정면의 상징적 리플렉팅풀과 후면의 문화체험공간 및 그린에너지파크는 커뮤니티공간의 가치를 혁신도시 전체로까지 확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Landmark_신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주도하게 될 한국전력공사는 초고층 빌딩 형식, 시설의 집약적이고 합리적인 배치 그리고 특화된 조형 및 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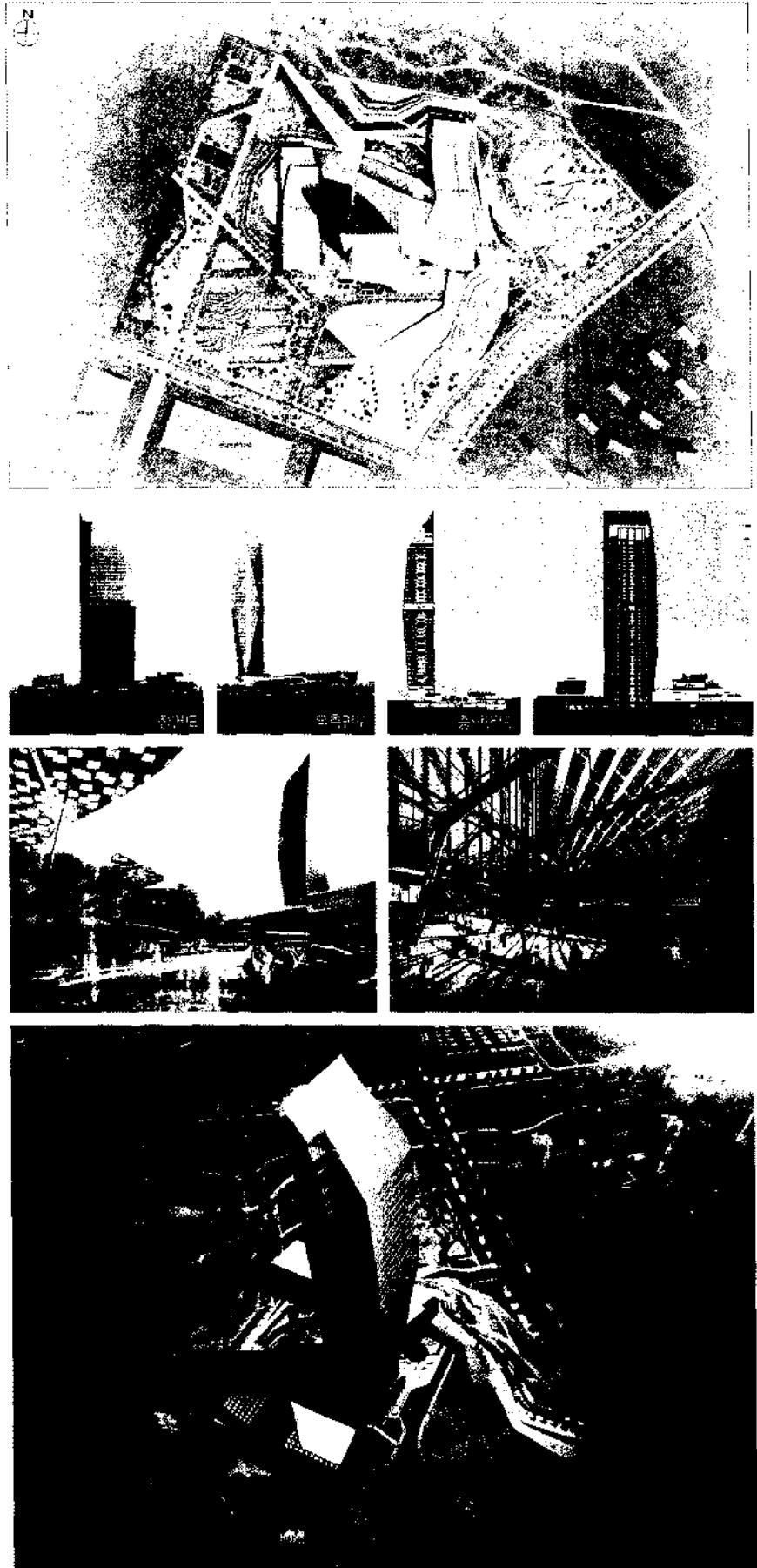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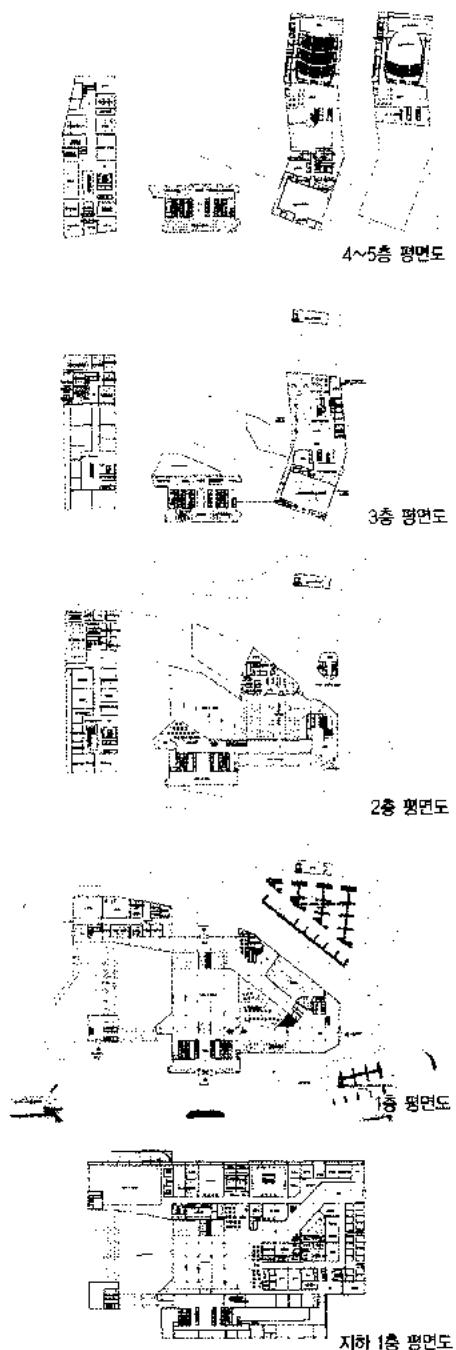
으로써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공기업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Green Building 에너지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시스템은 기존 사옥 대비 60%의 에너지 절감과 50% 탄소배출량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입체 자연환기 시스템**-이중외피를 이용하여 고층건물 외주 부에 신선의 기를 공급하고 동시에 Thermal Labyrinth(열미로)를 통하여 양질의 공기를 실내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 **지중 축냉 시스템**-동절기에 사용된 지역열원의 폐열을 냉열원으로 치환하여 지중에 저장하고 이를 하절기에 냉열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수자원 활용 시스템**-자연정화습지를 활용하여 우수 및 중수 활용을 극대화하여 약 42%의 수자원 절감효과를 갖는 물 순환 시스템
- **신재생 에너지**-단지내 연간 1200kw를 생산하는 PV패널을 설치하여 공



용공간과 그린 플라자 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
Community_도시와 접하는 단지 내 모든 장소
를 커뮤니티를 위한 그린 에너지 파크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을 지향한다. 시민들
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린플
라자 공원과 시설, 다양한 편의시설이 연계된 중
앙아트리움, 직원들의 휴게와 회의공간으로 활용
되는 타워 출면 아트리움, 그리고 혁신도시를 조
망할 수 있는 최상층 전망대 등을 통해 한국전력
공사 '에너폴리스' 를 인체적으로 체험하며, 상호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한다. ■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우수작 / 손명기 · 박도권 · 권순우 · 유승호
(주.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상목 (주.SD파트너스 건축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

대지면적 149,372.00m²

건축면적 21,948.43m²

연면적 121,896.65m²

건폐율 14.69% (법정: 70%이하)

용적률 72.31% (법정: 700%이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40층

설계담당 삼우건축_황의만, 신병철, 이건섭, 하상훈,
정용식, 정복선, 김병준, 박은주, 박현준,
박형우, 한상우, 권영훈, 양준영, 이인실,
오명근, 조희영, 김아름, 박성오, 권도엽
SD파트너스_노종철, 노영자, 임경욱

ARUP_Mark Richardson, Dr. Trevor S. K. Ng

광주, 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의 선두기업으로
서 새롭게 조성될 한국전력공사 신사옥은 친
환경 녹색 에너지기업을 상징하고자 한다.
영산강을 품에 안은 나주평야에 위치한 빛가
람 혁신도시는 중앙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수
공간의 블루, 녹음의 그린, 문화의 휴먼 네트
워크가 연결되며, 한국전력공사 신사옥은 그
접점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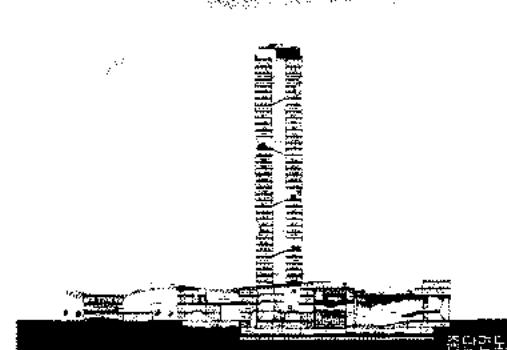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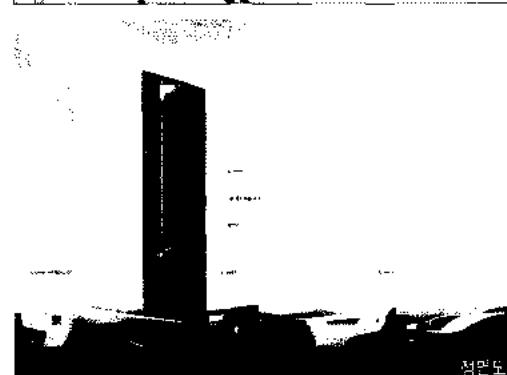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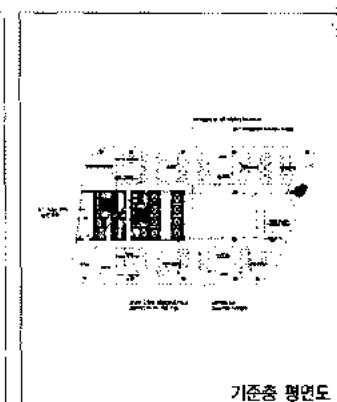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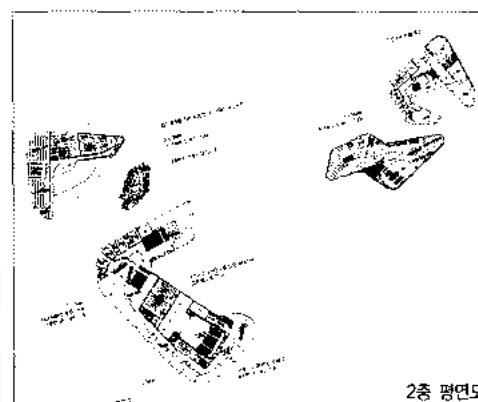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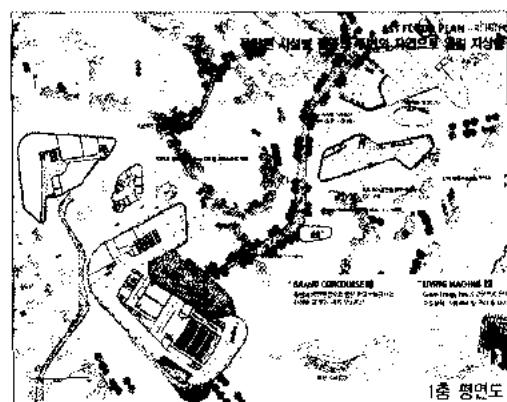
대지의 주변으로 조성될 다양한 자연 요소 중
주요한 근간을 이루는 물, 녹지, 문화 등을 담
은 공공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그린 에너지
그룹으로서의 열린 이미지를 구현하고자하였
고, 에너지의 '생성과 소모' 개념을 '환원과 순
환'으로 치환하여 도시의 컨 넥스트를 따르며
대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Energy,
Eco, Evolution의 흐름이 통합된 한국전력공
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였다.
설계에 있어 첫 번째 고민은 대지의 입지여건
에 따라 사이트와 건물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었다. 먼저, 대지 북측의 생태공원에서 들어
오는 물과 자연의 흐름을 끌어들이고, 대지

남측의 녹도를 받아들이며, 사람과 문화의
흐름을 이어주는 유선형 매스를 통해 대지 전
체를 유연하게 흐르는 저층부의 형상을 디자
인하였다. 또한 건물에 의해 대지가 양분되
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매스를 분절하여
바람길과 물길을 열어주었다. 마치 영산강이
굽이치는 듯한 저층부의 형태는 빛과 에너지
의 파동과 흐름을 형상화하며 내부와 외부의
프로그램을 생성 통합하여 대지 전체를 유기
적으로 연결하게 하였다.

또한 오피스 타워는 디지털 정보의 흐름을 상
장하는 입면 패턴을 적용해 건물 전체가 기존
전력망에 IT정보를 접목하는 Smart Grid
Technology를 상징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건물 형태에 대자로 흘러들어오는 녹지의 흐
름을 연결하여 타워부 최상층까지 휘감아 오
르게 함으로써 자연과 건물이 하나를 이루도
록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추구하는 그린 에너
지 공급 시스템인 Smart Grid를 기반으로한
도시의 landmark로서 Identity를 확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두 번째 고민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구하는 Green Building의 실현으로, 이번 현상설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는 건물 에너지 저감 방안의 제시였다. 이를 위해 신사옥의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인 $300\text{ kWhr}/\text{m}^2 \cdot \text{y}$ 이하로 설계지침에서 요구하였다. 저탄소 녹색빌딩을 실현한 E-Stream 151은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재로 에너지, 제로 탄소 전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자원절감, 운송절감,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추진하였다. 건물의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녹색빌딩 실현을 위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해 맥스 및 평면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자연 환기 및 자연 채광을 보다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에코 아트리움, 에코 테라스, Prismatic Light Shaft, Sunlight Scoop을 적용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사옥 대비 34%까지 낮추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현 사옥 대비 23%까지 낮추는 에너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E-Stream 151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51\text{ kWhr}/\text{m}^2 \cdot \text{y}$ 로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현사옥 대비 77%까지 절감하는 친환경 녹색빌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제주 국제학교

Jeju International School

당선작 / 한규봉 정재현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양 건 허현 (가우 건축사사무소)
+ 이상윤 (연세대학교)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교육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
대지면적	39,212m ²
건축면적	11,430.54m ²
연 면 적	28,497.3m ²
건 빼 을	29.15%
용 칙 률	62.95%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설계담당	장수학, 신성호, 이남호, 안병규, 권병인, 송기덕, 이호, 강옥분, 신예림, 이재현, 김정희, 이경일

디자인테마_국제자유도시 안에 세워지는 국제학교라는 위상에 걸맞는 제주를 닮고, 세계를 담은 학교.

사람을 닮고, 교육을 담아내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디자인컨셉_건축물들은 인위적인 개념설정이나 디자인이 아닌 제주의 자연 요소를 대지안으로 끌어들여 비움과 채움을 유기적으로 조작하였다.

비움은 제주와 대지 주변 경관을 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채움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이 두 개의 장치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서로 연계토록 하였다.

배치계획_서쪽의 내부간선도로의 소음에 대한 대응, 북측 공원녹지와의 연계, 배움의 길에서의 접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제주의 자연과 교육을 함께 담은 친환경 학교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옥외공간계획_제주도 전통민가에 나타나는 올래, 올래목, 안마당, 안뒤(안체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또는 밭을 지침 하는 제주 방언)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리듬감있고 기능에 맞는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공간구성은 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공간적 체험을 하게 한다. 주진 입로인 온누리길은 팔로티인 올래목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며 안마당인 어울림 마당에 이르면 한라산, 산방산, 저지오름의 풍경을 담아낸 공간을 볼 수 있다.

건축계획_교육, 생활, 관리, 지원영역 등 영역별로 평면을 분리하고 동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간이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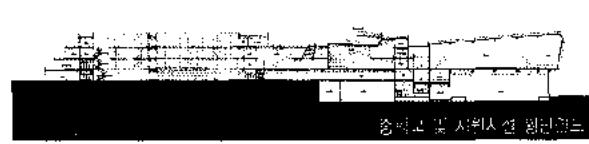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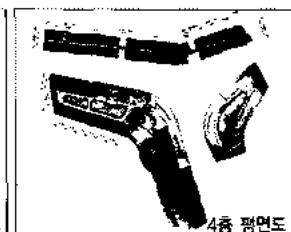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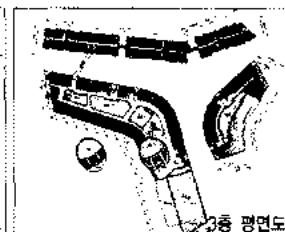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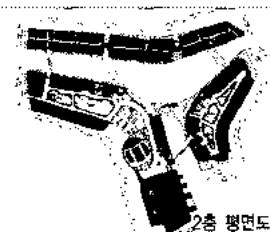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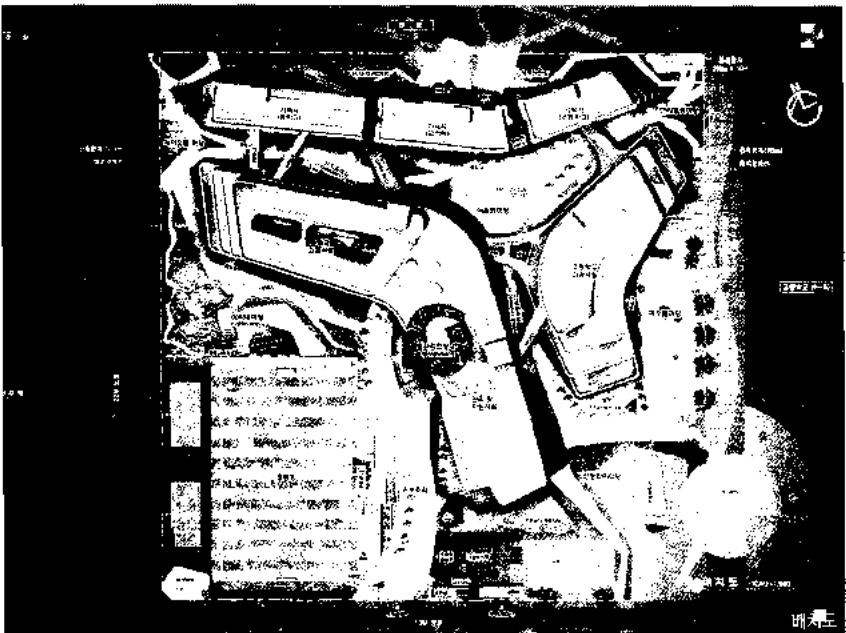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에 성격이 다른 중정을 계획하였다. 초등학교에는 초등 학생들의 놀이, 휴식,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Atrium을 계획하고, 중학교의 내부에는 Hybrid Court를 계획하여 외부공간이면서도 건물내부의 휴게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계획하였다. 각종의 복도에는 알코브형식의 발코니를 계획하여 소규모 커뮤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내부공간들은 영어학교라는 프로그램



을 고려하여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들간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형태 및 시설을 계획_흐르는 공간, 비움과 함께 채움의 형태인 매스도 유선형의 흐름으로 디자인하였다. 계단형의 건물 형태는 유품의 형태를 차용하였고 흐르는 듯한 입면은 제주의 바람과 파도를 은유하여 디자인하였다. ■



제주 국제학교

Jeju International School

우수작 / 민병직 · 김인기 경력

(주)현대종합설계 건축사사무소)

+ 김창우 (우신 건축사사무소)

+ 정무웅 (단국대학교)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교육 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9,212m²

건축면적 12,588.36m²

연 면 적 28,316.98m²

건 빌 을 32.10% (법정 40%이하)

용 력 률 68.04% (법정 16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김호일, 윤창모, 황정범, 김태종, 정우진,
이상군, 최영택, 이대규, 유통학, 서진석

배치계획_제주국제학교가 위치할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으로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최적화된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글로벌 영어교육도시로 조성될 것이다.

더불어 제주국제학교는 오픈 중심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영역을 설정하고 학교건물을 집약 배치하여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적인 캠퍼스로서, 각 건물 사이를 열어 녹지의 유입과 원활한 바람길이 형성되며, 교육시설 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정을 중심으로 영역을 명료하게 분리하고 각 시설별 연계로 편리한 국제학교로 계획하였다.

건축계획_교사동은 가로세로 8.1m크기 4개의 방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형 교실 블록으로 다양한 변형조합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교사동의 핵심 공간이다. 다이아몬드형 교실 매스는 직교체계의 교육시설과 긴밀히 결합됨으로써 캠퍼스의 내외부 공간에 역동성과 강한 조형성을 표출시키는 주된 디자인 요소가 된다.

도서관 및 식당은 중앙광장과 인접하고 초등 및 중학교 교사사이 중심에 배치함으로서 캠퍼스의 코어로써 기능하도록 했으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근접시켜 캠퍼스 타운의 교육 커뮤니티를 강화시켰다.

체육시설과 강당은 교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편의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한 동선계획으로 안전한 체육시설로 계획하였다.

기숙사는 쾌적하고 조용한 대지 북측에 배치 시켜 공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으며, 중학교 기숙사는 남/여로 동별 분리하고 브릿지를 통해 연계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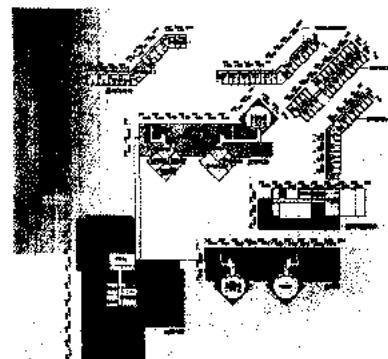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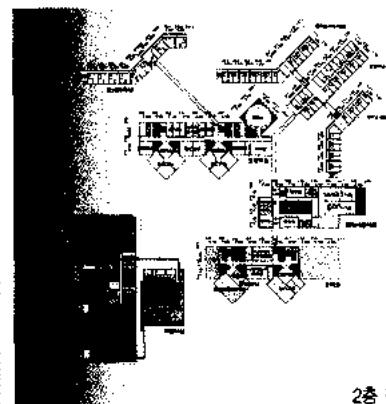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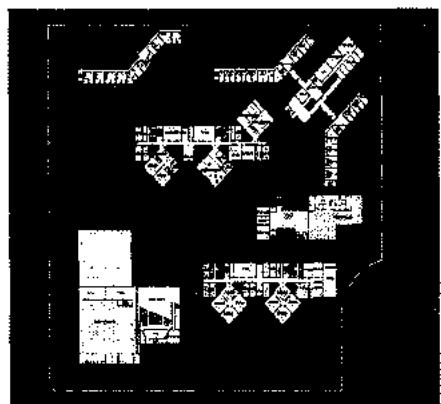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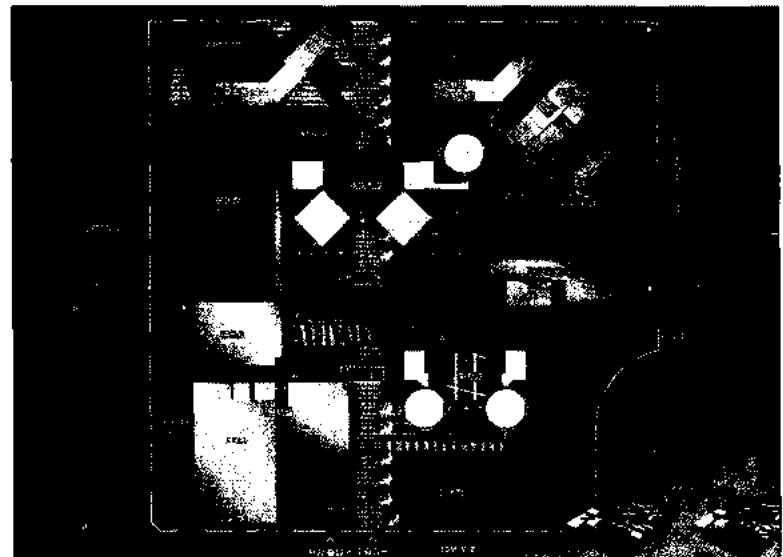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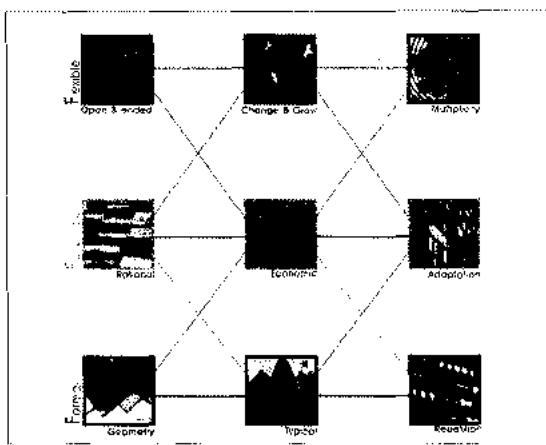
주요 CONCEPT_국제성(열림, 교류, 다양성)
/ 학교시설(균질, 비대칭, 단정, 비위계적 공간구성)

Program Concept

- Flexible_국제교육시설로서의 열린/가변의 유연한 공간구성



- Functional_모듈의 다양화에 의한 용도/규모/공간성능 변화의 대응
- Formal_기하학적 구성에 따른 단장한 학교건물의 형태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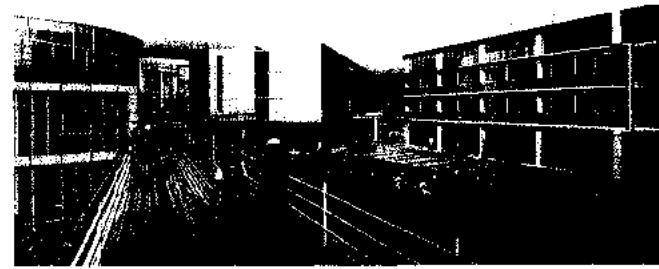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제주 국제학교

Jeju International School

가 작 / 김수희
(주.사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육시설용지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39,212.00m²

건축면적 15,531.41m²

연 면 적 28,208.02m²

건 폐 율 39.61%

용 적 률 66.24%

규 모 초등학교_지상 3층

중학교_지상 4층

관리지원시설, 체육관, 수영장, 극장_지상 2층

기술사 및 교직원 숙소_지상 4층

설계담당 하종원, 임준혁, 김정렬, 김대섭, 배성욱

프롤로그_한국을 너머…또 다른 세계로의 첫
관문에 국제명문학교가 될 새로운 Eco-
Nest는 사랑 가득한 안전한 맘터·자연을 담
은 친환경 배움터·다함께 즐거운 문화 놀이
터·미래를 위한 희망 품터로써 세계의 꿈·
희망을 잉태하는 초록등지로 계획하였다.

먼저, 대지레벨 및 주변환경과 단지를 분석
하여 흐름을 읽고 곳자왈을 부지 안으로 끌어
들여 새로운 탄생을 위해 대지의 품에 안아
다듬고, 레벨을 이용하여 기능별 조닝과 매
스로 공간을 빛내며 매스의 비음과 이음으
로 소통의 길을 열고, 주변 자연과 하나되어
세계로 나가는 첫 게이트를 자연에 스며들어
꿈꾸게 하였다.

배치 계획

-영어교육도시로 진입되는 주도로가 단지를
순환하여 도로축을 형성하고, 곳자왈을 중심
으로 긴 생태축과 대지로 흘러오는 녹지축.
그것을 활용하여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부지 동측 스쿨존의 중심에 보행로로 이어진
커뮤니티축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다.

-부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면부에 체육장

시설기준에 맞는 운동장을 남북으로 길게
배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시에 사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는 각각의 기숙사를 인접되도록 배
치하였다.

-기숙사의 중앙부에서 에코 스트리트로 이
어지는 서측에는 체육관, 수영장, 극장, 카
페테리아와 도서관 등의 지원영역들이 그
린 커뮤니티존을 형성하며 배치되었고, 이
그린 커뮤니티존 상부에는 학교의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될 푸른광장-‘글로벌 그린파
크’가 새롭게 탄생되었다.

동선 계획

-서측 주도로에서 교차로부근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보행자 진입구를 계획하고, 스쿨존으
로 이어질 동측 보행자도로와 광장으로 단
지내 커뮤니티축이 형성되도록 다양한 보
행자진입구를 설정하였으며, 북측 공원으
로의 연계동선도 함께 고려하였다.

-남측 부도로에서 차량출입구를 형성하여
지하·지상주차장으로 분리 계획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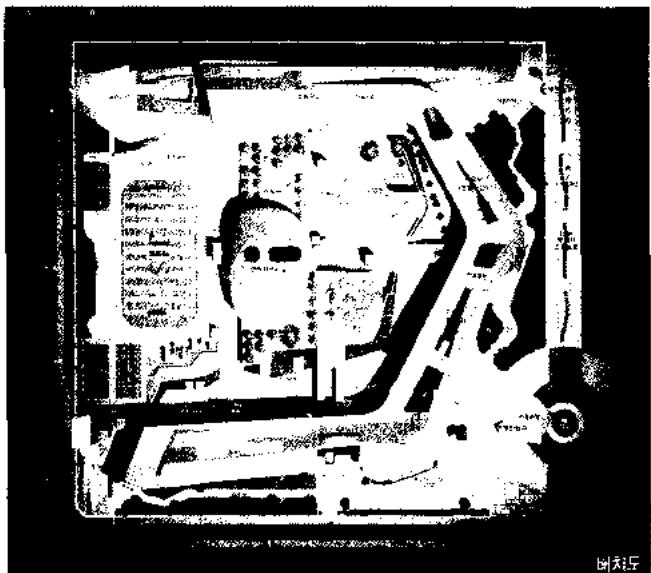
완전한 보차분리가 되도록 하였고, 관리지원시설은 학교의 중심이며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접근이 양호한 보행녹지축의 중심부에 운동장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였다.

- 교직원숙소는 지상주차장과 인접하고, 특히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대지내에는 외부에서 각각의 건물로 이어지고, 각각의 길에서 옥상 하늘정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올레길을 계획하였다.

평면 계획

- 기능별 영역별 수평, 수직 조닝하여 평면을 계획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학년별, 층별로 쉼을 배치하고, 중앙부에 에코튜브와 아트리움 등을 계획하여 실내환경도 함께 고려하였다.
- 기숙사의 저층부에는 공용지원실들을 배치하고, 에코중정을 통해 추후 성(性)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감실과 부사감실을 층별, 영역별로 배치하였다.
- 에코 스트리트를 따라 중앙부엔 지원시설인 체육관과 수영장을 함께 배치하고, 극장과 식당 또한 학생 동선이 이어지는 교차점에 두었으며, 2층에는 학교의 중심인 도서관을 '글로벌 그린파크'는 푸른광장속에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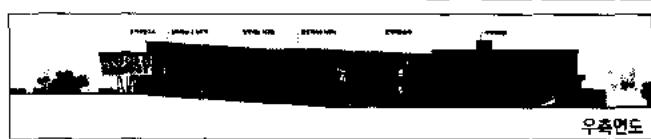
입면 및 단면계획 국제적 감각을 살린 미래적인 디자인과 세계로 나가는 역동성, 전통미를 가미한 현대적 리듬감과 기능적 디자인, 지역사회에 심별이 되는 형태로 제주의 풍경과 상징이 되도록 입면을 계획하였다. 특히, 대지레벨을 적극 이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단면을 구성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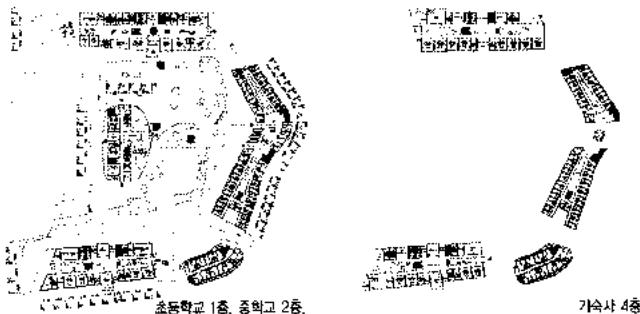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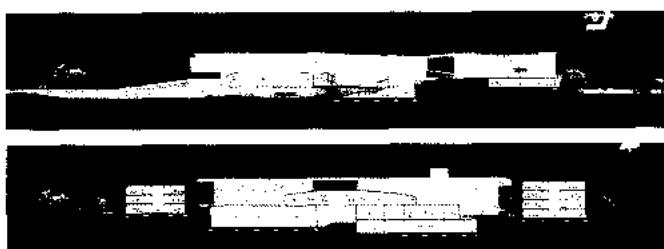
교직원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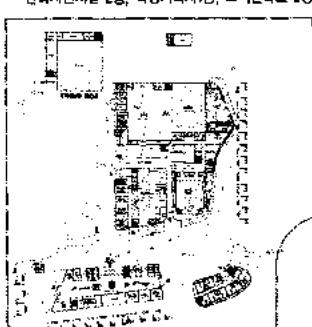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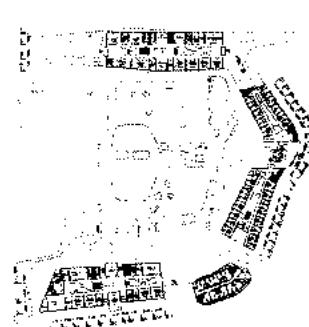
우측면도



기숙사 4층



중학교, 관리지원시설, 지원시설, 교직원숙소 1층 평면도



초등학교 3층, 중학교 4층, 교직원숙소 4층, 기숙사 3층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망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연식을 지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흑

독한 문초를 뜯어내고 솔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종조부었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화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둘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난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담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어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의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_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봉화대로의 고개, 죽령_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9. 죽령 고개를 넘다니는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_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등기현과 사월_The Chu-tz scholar in Iyun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좋아낸 「횡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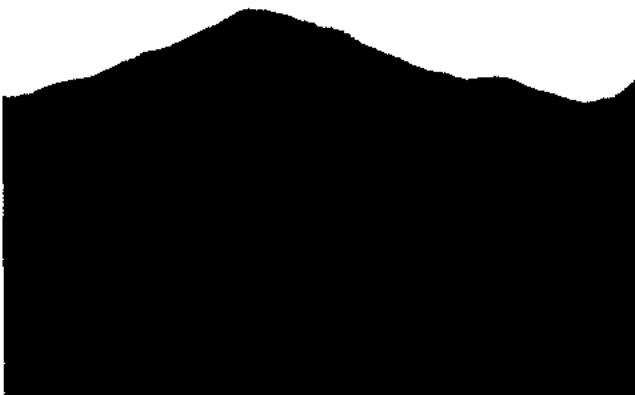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

- 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

산, 두악산과 덕질산, 그것의 장소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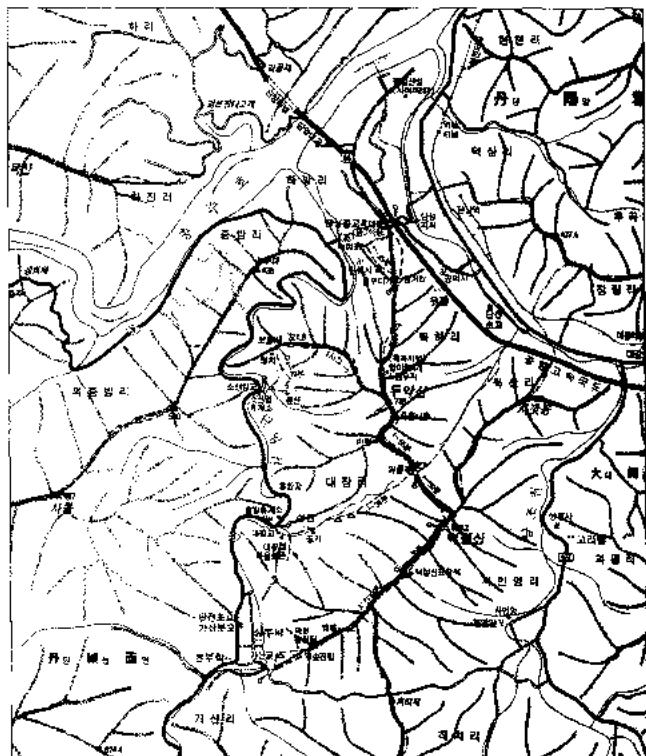
(그림 1) 하빙리에서 본 두악산

두악산 품에 안긴 단성면에 산그늘이 깊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상 반복되는 일이었으나 오늘따라 서쪽으로 지는 태양은 유난히도 붉을 단(丹) 빛(陽)을 조합한 단양이라는 지명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붉은 빛을 더해가는 것 같았다. 해가 더 기울기 시작하자 흑암의 대비는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산등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백산 줄기가 남북을 가로막고 동서로 질려가는 이곳은 분명 충청도였으나 산 모양새와 느낌은 충청도의 산들과는 사뭇 달랐다. 충청도의 산들이 나지막하면서 동그스름한 모양새로 유연하다 못해 답답할 정도로 완만하게 흐르며 대음을 품고 서해바다를 향해갔다. 이것에 비해 소백산 줄기의 산들은 드높으면서도 날이 선 모양새로 각을 이루며 솟구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 산줄기는 충청도를 한참 지날 때쯤이면 평야를 느린 걸음으로 행보하는 풍경으로 바뀌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곳 산들, 중방리 봉산과 연결된 사봉(887)과 제비봉(722), 상방리 성재산 등줄기를 이루고 있는 두악산(722)과 덕질산(780) 그리고 강 건너 금수산(1016)줄기의 가은산(567)과 말목산(720), 이를 줄기는 분명 충청도의 것이었으나 강원도의 산처럼 제 몸으로 평야를 다 차지하고 앉아 비탈진 밭떼기와 그 터에 눌러앉은 올망졸망한 집들 바로 눈앞을 숨 가쁘게 가로막았다. 원래 충청도의 산들이 부드럽게 출렁이는 불결임에 비하면 소백산 줄기의 산들은 폭풍을 물고 내달아치는 겹겹의 성난 파도 같았다. 그런 탓인지 나는 살이 오른 충청도지방을 답사할 때마다 그곳 산에서 뿐만 아니라 친근감 같은 것을 느끼곤 했지만 모든 것이 느려 변화가 없는 멋진 풍경을 투덜거리곤 했다. 하지만 등줄기에 날을 세운 이곳 산줄기의 모습은 그 변화무쌍함이 살徘徊다 못해 위압감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긴장감을 주었으나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반도의 칠 할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제각기 크기와 모습이 달랐으나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이 수두룩했다. 그 크기

나 모습이 걸출하지 않은 것은 이름조차 얻기 힘들었으나 비슷한 척자에 있는 이곳 산들은 곳곳마다 봉우리마다 이름이 있었고 나름의 사연을 갖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자연과 관계를 맺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자신의 속살에 각인이라도 하듯 밤길 닿는 곳마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잊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 자연의 조화를 따라 까마득히 먼 세월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삶의 터를 일구며 살아왔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의 사람이 됨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산행을 한다는 것은 곧 더욱 깊이 있게 단양이란 도시의 정체성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 2) 두악산 등산로



(그림 3) 두악산과 덕질산 산길

그렇다면 상방리와 중방리 하방리의 산들은 어떤 모습이던가. 지명이 충청북도 단양군이었고 강원도와 접경지였으므로 열핏 생각해 보면 가파르게 훌려내리는 강원도 산의 행보가 충청도 느린 그것으로 뒤바뀌는 첫 머리였으므로 강한 반전을 기대할 만 한곳이었다. 헌데 산세는 그렇지 않았다. 행정적으로는 충청도였지만 는, 밭을 속으로 품고 있는 텃인지 집들은 산비탈에 줄지어 늘어서 있고 눈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의 산을 쑥 달아 있었다. 대학원시절 처음 이곳을 답사했을 때만하더라도 일정에 쫓겨 건물보기 바빠 산줄기는 면발치로 바라보고 다니며 길을 죽이기 여념이 없었다. 어찌다가 산사나 마을의 배치를 살펴보아야 할 때나 되어야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 살펴보곤 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건물뿐이었다. 그렇게 무량수전을 보려 부석사를 들락거렸어도 기억나는 것은 부석사 안양루 밑을 훌려가는 소백산 줄기 흐름의 아름다움에 정신 팔려 그저 경관이 대단하다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지형을 꼼꼼히 쟁겨보는 여유와 깊이를 갖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산은 도시의 풍광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읽어내야 할 도시 단양의 바탕인 지형으로 변하고 보니 그 자리자지함의 남 다른 점과 그것이 지난 장소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선 상방리를 에워싼 두악산의 쓰임새만 하더라도 하방리의 성재산과 중방리의 봉산은 크게 달랐다. 성재산은 적성산성을 머리에 이고 있었고 사봉과 제비봉을 등에 업고 단양천 서편을 막아선 중방리 봉산은 봉수대가 있는 봉산이었으므로 두 산은 군사적 목적의 관방기지로 쓰임이 있는 산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산과 구별되는 나름의 역사적 콘텐츠와 주소를 지난 실체였으나 지금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라는 과거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이 소금무지 산이라고도 하는 두악산은 좀 달랐다. 아직도 단성향토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이 두 산을 제쳐놓고 매년 정월보름이면 이곳의 발전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소금무지제를 지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두악산은 사람과 자연의 질서가 하나 되길 바라는 곳임이 분명했다. 단양사람들의 삶의 내음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잠재의식적으로 짙게 배어 있는 이곳은 뿌리 깊은 보살핌의 장, 염원의 장, 바로 그런 장소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설정은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훌려오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 산은 마치 역사에서 소외된 곳처럼 보였다.

그 때문인지 사람의 인적을 소리 없이 거부하는 듯 침묵으로 일관한 체 아무런 반응조차 찾아 볼 수 없었던 이곳 두악산 풍경 속에 차곡이 쌓인 어둠은 내가 아곳에 있는 것조차 아랑곳없다는 듯 검은 장막을 산과 들에 펼쳐 올렸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밭두렁 길조차도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꺼리는 듯 무심했으나 하방리로 이어지는 상방리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으로 그 긴 고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로에서 소로로, 소로에서 골목길로 골목길에서 고샅으로, 다시 고샅에서 밭두렁 길로, 산길로 이어지면 통로의 변화가 무너져 내린 낯선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의 모습에 냇을 잊고 서 있던 나를 일깨워준 것은 십이월 어둠으로 깊어가는 장막 너

머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채운 기러기 떼였다. 그들은 하늘을 어지럽히지 않고 대오를 지어 날아가며 우짖음도 정확히 박자를 맞춰 합창을 해 댔다. 엄동이 열린 이 산 북녘에 솜털 같은 보드라움과 따스함을 살포시 낮게 내려주던 해질녘의 햇살은 이미 사라지고 들물을 줄달음쳐온 매서운 바람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귀가 시린 것이 문고리에 손바닥이 찍찍 들어붙면 사라진 겨울을 실감케 하자 뒤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귀동냥한 이 산의 전설이 생각났다.

하필이면 산 정상에 소금을 묻고 산 이름마저 소금무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까닭에 단양 사람들은 두악산에 소금을 묻고 살아야 했을까. 소금과 땅, 그리고 산 정상, 이런 것이 의미하는 상징과 건축과 도시공간…혹시 단양이란 지명과 두악산의 관계는 아닐까…이런 생각에 밀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정상을 향했던 고개를 마을로 되돌렸다. 하지만 성재산도 봉산도 넓고 좁은 들녘도 고즈넉이 계절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산야에 밭불이 고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겨울나기 조심스러운 듯 몸짓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두악산은 생뚱맞게 도 머리에 소금을 담아 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산이 지니는 의외로 움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리 잡음을 살펴보면 더 기이했다. 남한강을 가로막고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산 줄기가 바로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덕질산을 딛고 일어나 산성봉(912)과 도락산(964)을 거쳐 황정산(959) 수리봉(1019)에 이르게 되면 해발 천 미터를 넘어 갔다. 산은 멀면 멀수록 높아졌다. 이곳에 자리한 수많은 산들은 제각기 그 크기와 모습이 달랐으나 정작 이 두 산은 높이와 모양새가 서로 꼭 빼어 달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두악산은 정상에 담아 있는 것이 하필이면 소금이었고 그렇다하여 산 이름마저 소금무지라 한데 반하여 그 줄기에 이웃하고 있는 산을 덕을 예로 갖춘 산이라 하여 덕질산이라 한 점이었다. 이 어인 깨닭일까. 우연인가 필연인가. 물론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금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나 신앙이 생긴 사실을 모른바 아니었다. 그러나 예(禮)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례와 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퇴계 스스로도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온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조선전기 무오(戊午, 1498), 갑자(甲子, 1504), 기묘(己卯, 1519),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 50년간 대표적인 사회를 다 겪은 그는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임금이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학의 대강을 강의했다.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설(圖說)에서 핵심을 끌라 책을 성학십도¹⁾로 엮어 각 도식 아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마음의 지도를 왕에게 강론하곤 했던 사람이었다.

또 사람들은 소금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다고 믿었던 관계로 소금 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소금이 사신(邪神)이나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가장 널리 믿어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단양사람들이 나쁜 것을 쫓는데 소금을 뿌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할 것 하나 없는 한민족적인 보편성이었다. 예의(禮儀)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 생각했던 선비들이 4대 사회를 통해 술한 피

1) 심도(十圖)란 태극도(太極圖)·서명도(西銘圖)·소학도(小學圖)·대학도(大學圖)·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인설도(仁說圖)·심학도(心學圖)·경재장도(敬齋藏圖)·숙종이매작도(夙興夜寐圖)의 10가지이다. 1681년(숙종 7) 오도일(吳道一)이 간행하였으며, 1741년(영조 17) 증간되었다.

를 뿐리지 않았던가. 이런 사연으로 미루어보면 두악산(斗岳山)이 단양천(丹陽川)의 하류를 감싸며 단성면의 주산으로 또 올창한 숲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산으로 자리하고 있는 까닭은 제암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오리 남짓 떨어져 덕절산(德節山)이 멀리 신선봉 도락산 황정산 같은 고산준령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도 자연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금무지 두악산과 쌍을 이루고 있는 덕절산, 이 두 산은 그 자체로서 자연의 일부이자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그것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존의 증거를 각인하는 장소임이 분명했다.

현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방리에서 오르지 않고 단양천 하류 소선암 공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보통재를 지나 먼저 소금무지 봉에 오른 다음 밟걸음을 되돌려 두악산 정상을 지나 능선을 타고 뒤품재로 내려가 오른편 길로 돌아 하선암이 있는 대장리로 내려가곤 했다.

상방리에서 오르는 사람은 산나물을 캐는 동네사람 빼고는 거의 없었다. 원인은 단봉사 갈림길에서 시작된 산 오름이 만만치 않아 서이기도 했으나 상방리보다 소선암 공원이 더 관광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산행방향으로 보면 두악산을 오른다는 것은 소금무지 전설과 단성읍의 연관성만 보아도 상방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설사 사람들이 그런 원칙을 무시했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이곳을 스쳐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산줄기를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자연에 틀려 싸여 일부가 되어 있는 단양의 장소성 깊은 곳을 체험한 증인이 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나마 산그늘에 고인 하늘의 붉은 기운마저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자 어느새 틈새를 비집고 밀려온 추위가 나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나날이 추워지는 겨울은 산자락에 이르면 한층 더 치열해졌다.

두악산 산록에 앞을 다 떨군 채 용기종기 서 있던 나무들이 어둠 속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십이월 중순 저녁, 푸르름을 자랑하던 소나무 아래 잎들이 마저 누릿누릿 변색해기다 못해 어둠에 숨어들자 남빛 하늘에 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서서히 하루가 저물어갔다.



(그림 4) 1980년대 농지

2) 북하리(北下里)의 옛 이름

두악산 산행, 산촌은 산길을 먹고 자란 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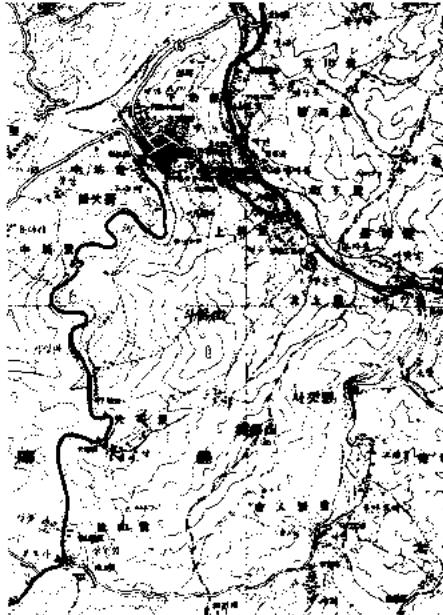
그동안 단양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며 상방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두악산을 바라보았으나 장작 이 산을 오르려고 산행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방리에서 두악산 사진만 찍어왔으므로 눈으로 보는 두악산만을 생각해왔다느낌이 들자 단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두악산에서 내려다본 하방리의 모습이 난데없이 궁금해진 것이다. 만약 몸으로 이산을 느껴 본다면 구태여 이곳에 살지 않아 하더라도 두악산이 아닌 장소성의 깊은 삶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일기 시작했다. 혹시 원초적인 산길 유형이 아직도 남아 있거나 않을까 하는 소박한 궁금증이 안개처럼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해발 720m인 이 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었으나 초행 산길이었으므로 구태여 새벽길을 재촉하며 오를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숙면을 하고 산행하기로 작심했던 것이다.

이튿날, 날이 밝자 곧장 두악산, 덕절산 산행을 작성한 나는 집 안 주인이 차려준 밥상을 간단히 물리고 차를 몰아 곧장 상진대교를 건너 종도리와 현천리로 나아갔다. 단성역 앞을 지나는 5번 국도와 변전소 사이에 숨어있는 죽령천 고샅길로 접어들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벗어나니 금세 단양천 물소리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달려와 귀전에 잡힌다. 불과 삼십년 전만해도 이곳 고샅길 앞 뒷풀²⁾에는 단양역이 있었고 마들이라 불리운 단양역 동편 들판은 마늘산 지로 유명했다. 이곳 사람들은 북하리(北下里)의 옛 이름을 아래忸들이라 했고 역전을 중심으로 서남쪽과 북상리(北上里) 사이에 있는 들판을 샛들이라 불렀다. 그리고 역전 서남쪽 서낭당이 있는 들판을 서낭당들이라 했는데 특히 그 부근의 들판마저 꼭 집어 웃마리들이라고 한 것이다. 역전 동남쪽에 있는 들판을 아랫들이라 할 정도였으므로 그들은 들판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산처럼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단양교를 중심으로 다리 위쪽을 웃여울이라 했고 아래쪽 여울을 아랫 여울이라 했다. 지금은 토목공사로 모든 것이 훼철되고 말았으나 웃여울에는 제법 깊은 소가 있어 강당소, 동감소라 했다. 지금은 경제성이란 미명하에 필요한 물을 대는 수로 이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하천처럼 버려진 죽령천, 충주호 담수로 황량하게 내팽겨 쳐진 이 들판도 한때는 이 땅의 농부들의 손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제법 쓸모 있는 땅이었음이 그들의 옛 이름을 통해 절절히 느껴졌다.

아래 들플에 한겨울의 추위가 웅크리고 앉았는지 하얀 서리발이 아직도 땅에 가득했다. 차가 단양교를 건너 농재로 나아갔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서자 하방리를 빠져나온 5번국도가 죽령을 향해 북하리로 내려가는 마루터과 마주쳤다. 두 길이 높이 차이가 있어 연결이 마땅치 않자 언덕길을 원편으로 돌려내려 마감한 엉거주춤한 접속부가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 이런 어색함은 단양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길이 원래 두 갈래 길이었음을 알려주는 흔적이자 증거이기도 했다. 일명 노터(路梯), 노현(路現)라고도 했던 이 고개는 단양의 모든 길을 상방(上坊)리에서 하나로



(그림 5) 1935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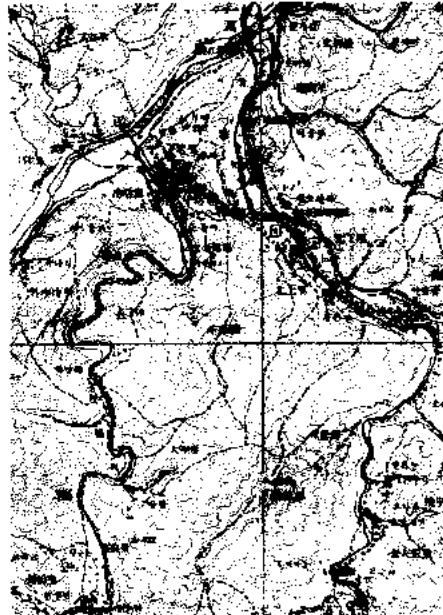
(그림 6) 1960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그림 7) 1974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그림 8) 1971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그림 9) 1963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그림 10) 1956년 두악산, 덕질산 산길

모아 북하리(北下里) 뒷들로 넘기는 일종의 매듭이자 성재산과 두악산을 잇는 절점기도 했다. 외견상 농지는 단순한 포장도로에 불과한 듯 보였으나 사실 복잡한 여러 가닥의 길이 하나로 통합된 길이었다. 이 고개 내력을 조사해보면 하방리를 빠져나온 5번국도가 농재를 거쳐 북하리를 지나 죽령으로 가는 한 가닥 길이 있었고 또 다른 가닥은 구단양역에서 기파른 언덕을 따라 올라선 내리막길이 상방리 계곡을 따라 하방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으며 나머지 한 가닥이 바로 두악산과 성재산을 잇는 산길이었다. 그런데 2010년과 1980년 사이 농재 일대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충주댐 담수로 인한 수몰로 1985년 상방리에 있었던 단양군청이 신 단양으로 자리를 옮기고 죽령천변에 있던 단양역과 주거지 학교시설이 모두 신 단양과 새로운 터로 이전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 바람에 농재에서 중방리 윗녘을 잇는 도로가 개설되고 새로이 교량 우화교를 건

설하게 되었으나 경작지로 있었던 산비탈이 도로용지로 바뀌면서 산길 하단부가 잘려나가자 두악산과 성재산 산길, 상방리 골목길간의 단절이 생기게 된 것이다. 길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겨난 한해였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조짐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두악산과 덕질산을 둘러싼 산길이 아스팔트 포장 2차선 도로로 확장된 것은 1980년 무렵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일대에 관광개발붐이 불어 닥치면서 비롯되었다. 이때까지 만해도 산촌과 산촌을 잇는데 급급했던 단순한 도로로 남아 있던 산길이 자동차 도로와 등산로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충주댐 담수로 하방리와 북상리 일대가 수몰되자 산길의 출발지인 돈돌미와 단양역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돈돌미의 수몰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단양읍을 하직하고 천변에 늘어선 갈대밭을 따라 복도소(復道沼)³⁾를 지나 마당바위를 끼고 돌때마다 눈부시게 몸을



(그림 11) 놋재



(그림 12) 놋재 옛모습 상세

드러내고 나그네를 맞이하면 하야 자갈밭의 사라짐을 의미했다. 그리고 저만치 내를 건너 산자락을 옆으로 끼고 돌아 오르는 산길, 보름재를 너머 한 시간 정도 걸어 소선암과 하선암을 찾아가는 이 길이 충주댐 건설과 수불로 무너짐을 뜻했다.

현대 이와 유사한 부분적인 변화가 1972년에도 있었다. 상방리



단양군청자리는 원래 산비탈이었는데 1972년 수재로 하방리에 있던 단양군청이 상방리로 이전하여 자리 잡게 되자 군청 데를 닦느라고 상방리 일대 산비탈에 그득 했던 경작지 상당부가 사라지고 산길도 폐쇄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 변화는 산길과 밭 일부에 국한 되었을 뿐 이었으므로 이때만 해도 산길은 역시 산길로 남아 있었고 두약산 산길은 산촌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의 맙그림이 깔린 1960년대 지형도는 어땠을까. 우선 1974년 지형도를 보면 단양천을 끼고 형성된 삼선수석로인 59번 국도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비포장도로였으나 1956년 축지부대 작성 지형도를 보면 산길이었다. 그리고 운계천을 끼고 사인암을 중심으로 형성된 927번 지방도, 운계 구곡로 역시 마찬가지로 1970년대만 해도 비포장이었으나 1956년 제작된 축지부대 지형도를 보면 산길로 표기된 소로였다. 이 두개의 길이 2차선 도로로 확장된 것은 무려 이십 여년이 지난 1970년대였으나 비포장도로이었으므로 노면이 불안정했다. 때문에 자동차 운행 불편으로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196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약산과 덕절산 산길을 이용하여 산촌을 향했음이 분명했다. 산은 재를 만들며 줄기를 틀어 백두대간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들었고 재는 길을 열려 마을을 영글게 했다.

놋재와 두약산길

놋재 앞, 이십 여 호 남짓한 집들이 길가에 둘러 모인 봉네, 성재 산자락과 두약산 자락이 포근히 내려 앉아 동네를 감싸 안고 있어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하나 번듯하게 서 있었음직한 이곳 표정은 정신없이 떠도는 관광버스들로 어수선해 보였으나 인적은 한적했다. 마을 골목 언덕길을 뒤로 젖히고 올라서자 곧이어 나타난 것은

콘크리트 포장 과수원 길이었다. 차한대 겨우 빼져나갈 만한 산길 이백여 미터 오르막 산자락에 차 한대 세울만한 공간이 나타나자 나는 그곳에 차를 세우고 산행준비를 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들판 멀리 단양읍내가 보였다. 탄력 없는 콘크리트길을 얼마를 걷지 않 있는데도 모질게 부는 바람과 추위가 옷 속을 파고들었다. 바지 가랑을 잡아당길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은 예리한 얼음조각이나 뾰족한 송곳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줄기차게 불어 닥치는 혹독하게 매운바람은 허벅지를 따끔 따끔 쏘이며 뜯어내는 것 같았다. 그런 바람을 맞으며 한 이십여 분 걸어 올라가 단봉사 뜻말 삼거리 앞 아트막한 고개 월참에 이르렀다. 이 고개에 단양중학교 뒷길로 넓은 밭이랑 사이를 쉼 없이 올라 해발 300여 미터 지점에서 오른편으로 단봉암으로 가는 길과 왼편으로 두약산 정상으로 가는 산길이 만나는 곳이다. 만약 여기서 산을 그대로 오르지 않고 단봉암 길을 취하면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얇은 능선 길을 따라 걸으면 힘들이지 않고 단봉암에 닿을 수 있었고 다시 내쳐 걸어 보름재에 오르면 소선암리에 있는 유원지와 하선암 일대로 갈 수 있는 산길이었다. 바로 이 길이 1918년 조선총독부 지형도에 수록된 길이므로 비교적 오래된 산길인 셈이다.

하지만 두약산을 오르려면 왼편 길을 취해야 한다. 생뚱맞게 서 있는 표지판을 보면 거기서 두약산 마루까지는 한 시간 가량거리였으나 초장부터 경사가 가파른 것이 영 만만치 않았다. 그런 대로 바람을 맞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정상을 향한 경사는 숨은 숨대로 막히게 했고 가슴은 가슴대로 가빠지게 만들었다. 산중턱쯤 이르러 잠시 숨을 들리려고 등을 돌려 되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잡목가지뿐이었고 바람소리는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었다. 휘이 휘이 휘이익 높은 바람 소리는 싸리비로 마당을 쓸어가듯 나뭇가지를 뜯살게 견드리며 지나갔고 씨이웅 씨이웅 회차리 세차게 휘둘러대는 소리는 나무줄기를 통째로 괴롭히며 가는 소리였다. 그 바람소리는 강약과 장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긴 양편으로 길길이 자란 잡목 텃인지 산길은 의외로 바람소리가 잠시 멎을 때면 의외로 깊은 적막이 감돌았다. 그고요함 사이를 뚫고 들어온 겨울 빛에, 산 주름에 혼들리고 꾸불꾸불 난 길은 멀리 달아나 흔적 없이 잣아 있었다.

정상까지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산행의 법칙이다. 배낭을 메고 걸으며 걸음이 무거워지는 내 자신에게 나는 이따금씩 이 말을 되풀이 하곤 했다. 대체 눈으로만 읽었던 두약산과 내가 느낀 그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인가. 지형도에서 대충 읽은 30~40% 경사, 놋재에서 두약산 정상까지 등산지도상 도상 거리는



(그림 14) 놋재에서 두약산 오름 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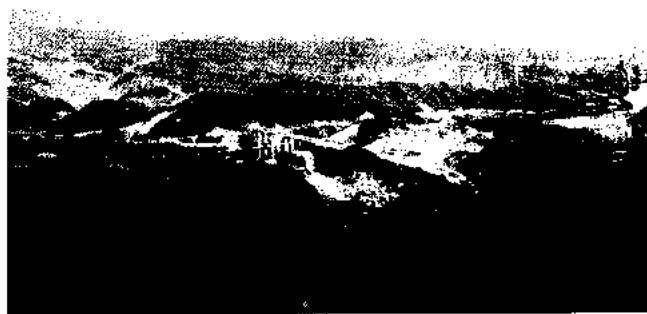


(그림 15) 두약산 산행길

③ 일명 복주소. 돈풀미 마을과 하방(下坊)리에 걸쳐 있던 소. 퇴계 이황선생이 단양군수 재직 시 길가 바위에 복도 병엄(復道別業)이라 썼는데 현재 주물이주 기념관 정원에 보관 중이다.



〈그림 16〉 소금무지에서 본 단양천관 남한강 풍경



〈그림 17〉 소금무지에서 본 옛 단양



〈그림 18〉 두악산 마지막 봉우리길

3km 약 두 시간 정도 거리로 얼마 안 되었지만 말로만 들던 십이월 중순 추위와 함께 겪게 된 산행은 예상을 훨씬 너머선 경험을 나에게 주고 있었다. 산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소금무지 제를 지낼 일월이월 마을 사람들의 추위는 어떠했을까. 이런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두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그들은 산마루에 소금을 묻고 제를 지낸단 말인가. 단순한 민속행사로 보기에는 이들의 행사에는 진정성이 많았고 해마다 지내온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산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안동의 갈라산으로 그 산 역시 안동의 화산(火山)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둘었던 것이다. 헌데 이 두 산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비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똑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두악산의 그것은 하방리에 연못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재깐 모퉁이에서 불이 일어나 상당한 가옥들이 소실했다는 사실에 입각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양과 안동의 재앙은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재연될 수 있는 실제 상황

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단양사람들 가슴속에 존재하는 염원이었다. 역사는 지금 당장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는 없으나 시련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바로 역사의 존재를 사람들이 믿고 행동할 때 그것의 실체가 드러내어 진다는 것을, 바로 소금무지와 하방리 연못을 통해 기억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사람들은 단양이라 했다.

경사가 급하면 거친 숨을 나무뿌리에 의지하여 달렸고 손발이 얼으면 뜨거운 물을 마시며 다시 기운을 돋우며 내가 소금무지에 당도한 것은 점심때가 거의 다 될 무렵이었다. 두악산 정상은 소금무지를 포함하여 다섯 봉우리로 이어졌는데 마지막 남쪽 봉우리에서 산자락 오른편 길을 잡아 내려서면 뒷들재에 닿게 된다. 그래서 나는 뒷들재 가는 길로 행보를 잡았다. 소금무지에 도착한지 두 시간여 만이었다. 길을 나선지 한 십여 분 남짓 걸었을까 산길엔 해묵은 낙엽이 수북했다. 바람에 낙엽이 불어 날리면서 길마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출발할 때만해도 그 끝이 보이던 능선 길도 어딘지 모르게 종적을 감추고 사라지자 발목 깊숙이 빠지는 낙엽 속으로 혼란이 일기까지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뭇가지에 산악회에서 뒤어놓은 이정표가 있어 길을 찾아 갈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걸음이 차츰 늦어지고 숨이 자자들었으나 산길은 내 발목을 조밀듯 좁아졌다.

두악산과 덕절산의 고갯마루 뒷들재와 산촌 대잠리

좁아진 산길을 이어 뒷들재는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장등산(長燈山)이라고도 하는 나즈막한 산등성이인데 대잠리에서 북하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산리, 대잠리 산촌에서 단양역으로 기차를 타고 외지나들이를 하러 가거나 죽령을 향해 길을 나서려면 두악산을 너머 가야 했다. 얕은 계곡과 능선을 따라 덕절산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죽령천변의 북하리와 운계천 하구 두음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복이기도 했다. 그런 뒷인지 이곳 사람들은 대잠리 동북쪽에 있는 이 고개를 북하리 뒷들로 가는 고개라 하여 뒷들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같은 산, 두악산줄기에 열린 고개였으나 이 고개는 놋재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았다. 놋재가 하방리와 대도회를 연결하는 개방된 공간형태의 절점이라면 뒷들재는 산촌 대잠리와 산촌 북하리를 잇는 산길로서 원시림의 모습을 지닌 폐쇄된 공간형태의 절점이었다. 이 길 역시 1918년 조선총독부 지령도에도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갯길임이 분명했다. 미상불 조선시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 길목에는 역참이나 객관, 원이 설치되거나 주막이 있었다. 역참과 객관의 경우 대도회 근처 영로(嶺路)에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런 깊은 산중에는 원과 주막이 있기 마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영준(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p302)이 말 한대로 여지승람에 기록된 전국의 원수가 약 1,300여개 이룬다면 그중 하나쯤은 이곳에 남아 있음직도 했다. 이런 기대감으로 능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뒷들재 주변은 해묵은 잡목만이 우거져 있을 뿐이었다. 정자목 주변은 허름한 집터 하나 쯤 허용할 만한 제법 규모 있는 터는 멀추 되는 듯 했고 두악산과 덕절산으로 오르는 산길 그리고 북하리와 대잠리를 오르내리는 산길



(그림 19) 두악산 대리의 뒷들재 전입산길 정자나무안 들에나무



(그림 20) 뒷들자



(그림 21) 대잠리에서 오른 뒷들재

도 제법 예스러움이 배여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대처의 길복이 아니었으므로 이정표로 정자목이나 당목 성황당 등을 세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곳 같았다.

결국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면 주막거리는 뒷들재 서쪽 능선자락을 타고 내려가며 골안들만을 열어 큰골⁴⁾로 이어지는 마을을 열은 한 점이라고도 하는 대잠리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여기서 동쪽으로 두악산과 덕절산, 서쪽으로 사봉 세 산봉우리가 만들어낸 산자락 사이를 단양천이 가로질러 흘러 막은 까닭에 골이 깊은 분지가 형성된 산골 마을이다. 대잠리 분지 한가운데를 뒷들재에서부터 시작한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다가 큰골에 조음하여 개울을 이루면서 단양천으로 향해 달음질치며 내려갔다. 그 바람에 이곳지형은 앞으로 턱을 치고 뒤로 등을 치는 형국을 이루게 되어 골안에서 바깥세상을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된 곳이다. 분지를 둘러싼 산들은 뒤로 자빠져 있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곳은 달랐다. 산들이 분지 안으로 향하고 있어 소여를 통처럼 대작리를 펼쳐놓은 골안들만⁵⁾만 보아도 그랬다. 두악산 남쪽 자락에 터를 걸친 것은 양지 마을이었고, 덕절산 북쪽 산자락에 열린 것은 음지 마을이었다. 두 마을 중간 큰골을 중심으로 1960년대 만 해도 이곳에 70여호가 밭농사와 주막거리를 근거로 살았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회전민은 비탈진 산자락에 둘러싸인 뒷들재 부근 7부 능선의 골안에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5, 6호 남짓 살았는데 아직도 이곳은 화전으로 밭을 일구고 집을 지었음직한 터가 남아 있다.

화전과 밭농사 그리고 주막거리로 조성된 이 대잠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매우 특이했다. 동쪽 진입로인 뒷들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쪽 진입로는 단양천이 하선암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회 돌아치며 숨을 돌리는 곳이었으므로 이곳은 골이 깊었다. 그런데 두악산과 덕절산 산자락이 뒷들재 능선에서 이곳을 향해 내

려오다가 사봉 자락을 보고 깜작 놀란 듯 급하게 손을 아주 잡게 되자 그 손등이 사봉 자락을 향해 격하게 열리게 된 것처럼 커다란 바위둔덕이 산과 언덕을 이루며 단양천을 가로막아 서 있었다. 바로 이 틈새를 열고 단양천을 건너 뒷들재를 향한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대잠리 입구의 남다름이었다. 마을이 석벽 사이 언덕을 올라가며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랬다. 더구나 그 앞을 흐르는 단양천이 가산리에서 천천히 흘러오다가 이 마을 어귀로 접어들면서 가파르게 회 돌아치듯 달려오면서 좁다란 강폭을 활짝 벌리고 넓히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그 뛰어남이 더욱 실감났다. 그 탓인지 동리 입구에 화돌이 치며 나가는 물이 실어 온 크고 작은 바위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대잠리 어귀는 옛날 무당이 사용하던 기구들을 숨겨 놓았다는 무당바우, 늘 습기가 많아 번들번들했다는 번대바우⁶⁾, 북처럼 생겼다하여 북바우⁷⁾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둘바다였다. 여기서 한 번 더 굽이쳐 앙이 환하게 터진 개활지로 흘러나간 물줄기는 계곡을 타고 북으로 흘러내려 갔다. 바로 이곳이 단양천 작은 계곡물이 곡류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유명한 하선암⁸⁾ 골짜기이다.

산촌 가산리, 대잠리, 선암리에 살던 사람들은 상방리와 하방리로 가려면 뒷들재를 거쳐 두악산 정상을 올라 소금무지를 거쳐 내려가지 않았고 모두 하선암과 이어지는 시영내 냇길을 이용했다. 대잠리 마을 입구에서 길은 하선암을 바라보면서 성급하게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반마장 정도 빽이 냇가를 따라 걸어 내려가다가 맑은 냇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시영내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굽이치는 물길 건너 개울 길로 곧장 질러가면 바로 이 시영내 동북쪽 골자기애 있는 마을 임경골을 지나게 된다. 코앞에 다가선 물건너들⁹⁾을 바라보고 곧장 걸어 내려가면 단양천변의 산촌 소선암 똑다리골에 닿게 된다. 여기서 천변을 따라가지 말고 도드락 길을 잡아 산길로 접어들면 보름재를 넘어 단봉사를 지나 산길을 내려서면 상방리에 닿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점 입구에서 냇물을 거슬러 한 반마장 걸어 올라가다가 급하게 왼편으로 길을 잡아 단양천을 건너 화재골¹⁰⁾을 넘어서면 넓은 개활지가 펼쳐진 가산리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비교적 큰 산촌동리인 여기서 남쪽으로 십여리 거슬러 올라가면 중선암이 있고 중선암을 지나 한 마장 걸어 제치면 상선암에 닿게 되는데 바로 이 길이 삼선수석로인 59번 국도였다. 이곳 사람들이 운계천 종류 사인암리로 간다면 덕절산과 황정산 사이로 난 고개 피티재를 넘어야 했다. 그러나 가산삼거리와 직타삼거리를 잇는 이 산길은 지금 2번 군도로 아스팔트 포장되어 변형되고 말았다. 슛한 사연을 지녔던 산길은 자동차도로로 변했고 길은 자신의 표정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뒷들재에는 아직도 옛 산길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길은 산너머 촌과 마을을 잇는 지름길임을 아직도 남아 증거하고 있었던 셈이다.

4) 대잠리에서 북상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5) 대잠리 북편에 있는 마을.

6) 대잠리 동쪽에 있는 바위.

7) 하선암 서남쪽에 있는 바위.

8) 원래 단양 8경의 하나로 불암(佛岩), 선암(仙岩), 무지개 바우 등으로 불린 선유동(仙遊洞) 상류에 있는 이 바위는 백여 명이 되는 흑고 넓은 바위 위에 큰 바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형국이어서 본래 불암이라 하였던 것을 성종 때 단양군수 웅제광이 선암으로 고쳤다 한다.

9) 소선암에서 대잠리로 가는 냇가에 있는 들판.

10) 대잠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

덕절산 산행

뒷들재에서 가볍게 점심을 때우고 길을 나서자 제법 가파른 오르막길이 밭걸음을 무겁게 했다. 예서 동서로 난 계곡 길을 취하지 않고 능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두 시간 정도 더 걸어 오르면 덕절산으로 가는 첫 산봉우리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산길은 6부 능선에 접어들면서부터 땅속에 박혀 있는 화강암과 편마암 일부가 표면에 돌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것이 정상부를 향해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바위는 무성해져 있고 산 오름은 숨을 거칠게 막아치게 했다. 이런 산행은 처음이었다. 두악산만 해도 가파르긴 마찬가지였으나 가끔씩은 숨 돌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주곤 했다. 그래서 두악산 6부 능선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산길에서 바라본 사봉과 제비봉은 일품이었다. 하지만 이산은 도무지 그 비슷한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줄창 가파른 경사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 부담감은 기왕 내친 산행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간혹 거칠어진 숨이라도 돌릴 양이면 쉴 곳마저 인색했다. 거친 사면에 튀어나온 나무뿌리나 돌부리에 발을 제겨 딛고 난 다음 비탈에 자라난 나무줄기를 잡아야 비로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편안한 쉼을 허락지 않는 산등성이이다. 말 그대로 예를 표방한 덕절산에선 수신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듯 했다. 한 시간 가까운 등정이었지만 아직도 산마루는 요연해 보였다. 등산지도에 표기된 거리 1km는 수평거리를 표시했는지 피로도는 한 삼십리 길을 걸은 듯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산비탈에 늘어선 나무줄기 사이로 희끗 희끗 보이는 하늘과 가파른 포물선을 그리며 윤곽을 드러낸 산등성이이는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 기대감을 주었으나 덕절산 정상은 아무리 올라도 같은 그 모양의 연속이었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오르면 오를수록 경사는 더 급해지는 듯 다리쉼은 잦아들었다.

이 산을 오르기 전만해도 나는 뒷들재 돌배나무 아래서 지도를 보면서 여유롭게 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산 바로 동쪽 자락에 역동선생(易東先生) 백운(白雲)·단암(丹巖) 우탁(禹倬)의 얘기가 짓들여 있는 사인암리가 있고 그 앞을 흐르는 운계천을 따라 927번 국도 운계 구곡로가 있다. 서쪽 자락인 대잠리 쪽은 단양천을 끼고 오르는 삼선수석로, 59번 국도가 남북으로 늘어서 있으므로 덕절산은 그 중심에 있는 셈이다. 이런 지형조건은 나에게 지금 그 중심을 걸어 오르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역동선생 우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어져 갔다.

우탁(禹倬; 1263~1343) 그는 단양에서 출생한 성리 학자였다. 송나라 정주학에 관한 서적이 고려 충선왕 때 들어오자 한 달 동안 두문불출, 연구하여 해득해 후학들을 가르칠 정도로 총명했던 그는 1290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해 사복으로 나가 미신 타파에 힘썼던 학자였다. 「주역」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아무도 이해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선생은 홀로 월여 동안 연구하여 그 묘묘한 이치를 해득해낸 것이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선조 3년 1570 뜻을 모아 우탁(禹倬)의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한 서원, 역동서원¹¹⁾을 낙동 강 상류인 지금의 예안면 부포리 오답에 창건하였던 것이다.

사실 뒷들재에서 간단한 점심으로 요리를 하고 잠시 다리쉼을 보다가 다시 이 산을 오르기 시작할 무렵까지만 해도 나는 줄창 사인암리와 역동선생 우탁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불과 반나절 만이었으나 서서히 산행에 익숙해진 탓인지 걸으면 걸을수록 밭걸음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기대와 달리 생각보다 수월치 않은 덕절산(780) 정상을 오른 것은 한 시간 남짓한 사투에 가까운 힘겨운 산행의 결과였다. 그러나 막상 첫발을 디딘 곳은 덕절산이 아니라 그 능선에 걸려 있는 삿갓봉이었다. 봉우리 주변에 어린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두악산 정상과 달리 주변의 산세를 살펴보기 힘들었다. 실망과 함께 삿갓봉을 뒤로하고 우측으로 이어지는 남서 능선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발에 해묵은 낙엽이 밟히기 시작했다. 사각거리면 그 소리가 스윽 스윽 빗질하는 소리로 변해갈 즈음 나는 덕절산 능선은 두악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르면 오를수록 나무가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은 두악산 정상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고도의 변화를 실감하곤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산의 모습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러나 덕절산은 산 오름 자체부터 이것을 부정하고 있었고 능선 길도 사방이 훤히 트인 두악산 그것과 달리 숲속의 오솔길 같았다. 산등성이를 거침없이 타고 올라온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된 듯한 소나무들, 느티나무, 벚나무 등이 능선에서 빼곡히 숲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길 양옆으로 날이 선 경사만 빼놓는다면 올창한 숲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겹겹이 늘어선 주름이 만들어낸 능선길은 정상에 날을 세운 체내리막과 오르막으로 수차례 거듭해 갔다. 이렇게 연이은 산길이 줄기 아닌 줄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산행의 묘묘한 맛과 즐거움은 바로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하지만 밖을 볼 수 없는 것은 산 오름 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았다. 이따금 잔가지 사리로 주변 마을 들녘이며 길을 헐끗 헐끗 보여주는 것은 덕절산이 우리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케 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함인 듯 했다.

십여분 남짓 평지길 같은 산길을 걷자 두 번째 산봉우리부터 오르내림이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오르막 산길의 출연에 놀란 나는 이곳 해는 유난히도 짧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쫓긴 나머지 길을 몰아가기 시작했다. 너울처럼 밀려오는 산오름과 내립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으나 작은 돌부리 같은 표석에 780m라는 글씨가 새겨진 봉우리에 이른 나는 나무 등거리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낙엽, 잡목이라곤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산을 뒤덮은 소나무와 참나무 느티나무 벚나무군락, 이를 등살에 훑어내며 지취를 감춘 듯한 산길,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호젓한 산길엔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헛볕이 살포시 내려와 앉을 뿐 사람의 인적은 묘연하기만 했다. 더 이상 겪어보지 않아도 길은 외줄기 능선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 길이 언제 어디서 끝나 하산을 하게 될지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예고 없이 반복되는 능선의 오르내림이 불과 한 시간도 안 된 사이에 수도 없이 예상을 뒤집어엎었다. 앞으로 얼마나 이 같은 리듬을 수없이 반

11) 1969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복원하였고 1683년(숙종 9) '역동'으로 사액이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으나 1871년(고종 8) 홍선 대원군의 서원철폐 조치로 폐철되었다. 원래는 그 후 송천동이 안동대학교 교지로 편입되면서 1992년부터 안동대학교가 위임관리하고 있다. 우탁의 위패를 모시는 상현사(尙賢祠), 명교당(明教堂), 전사정(典祀廳), 장서각(藏書閣), 동재와 서재, 주소 등이 있다.

복해갈건지 알 순 없었으나 일체 밖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산길에서 무탈하려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걷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겨울 산행은 이미 정오를 훨씬 넘고 있었다. 능선길이 길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바람소리마저 기승을 부렸다. 바람소리는 매를 찼으나 정작 차분하게 가라앉은 산길의 어두운 나무그늘 속을 찾아드는 것은 겨울 햇빛뿐이었다. 나무그늘이 짙은 만큼 솔잎에서 깨어나는 푸르름은 영통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숲 속의 어둠에 가려졌던 겨울 솔잎의 푸르름은 유난히도 또렷하고 맑고 깨끗했으며 투명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작은 윤기어린 푸르름은 밝았으나 멀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데 해아릴 수 없는 솔잎의 투명함과 반짝거림은 제각기 종알거리는 작은 입술 같았다. 그런 가하면 바람이 멈추기라도 하면 그 엄연함이 이곳의 이야기를 한결 같이 지키려는 역사의 증언 같기도 했다. 차갑게 얼어붙은 파란 하늘에 비친 그 푸르름은 얹히고 설친 세상사 어지러움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려는 생명의 메시지 같기도 했다. 그러나 산길은 나무그늘에 가듯없이 묻힌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솔잎의 푸르름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인적의 끊긴 흐젓한 겨울 산행을 밝혀주는 것은 기우려져 가는 오후의 약한 햇살뿐이었다. 바람이 겨울 하늘을 쥐어뜯는 듯 잉칼진 소리가 멀어지는 가하면 다시 가까이다가서곤 했고 그럴 때마다 나뭇가지는 바람에 흔들거리며 찌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흔들리는 솔잎의 푸르름은 잊혀진 역사의 손짓이었고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내 마음의 과문이기도 했다.

도대체 퇴계 이황, 그는 왜 소백산줄기를 가운데 두고 충청도 동쪽 끝단인 단양에서, 경상도 북쪽 자락인 풍기에서 마감한 관직 생활을 마지막으로 벼슬살이를 끝낸 것일까. 그는 이시기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바로 이 점이 그의 생애를 조사하면서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을 서울을 출발하면서부터 줄창 생각해왔던 것이었다. 퇴계의 단순한 심경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에 정3품 당상관인 성균관 대사성과 종6품 당하관인 현감의 품계 차이가 너무 커다.¹²⁾ 설사 병약했다하더라도 요양 차 이곳에 와서 벼슬살이를 했다고 보기에도 명분이 걸맞지 않았다. 혹시 그에게 글로 남기지 못한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으나 부질없는 생각만 고리를 이리갈 뿐이었다.

그리던 차에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생각한 것이 단양과 풍기란 곳 자체가 그에게 뜻 없는 벼슬을 하게 만든 동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두악산과 덕절산 장소성 조사와 답사가 우연찮게 덕절산 능선에서 우탁과 퇴계 이황이 주역(周易)으로 얹혀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뒷들재에 처음으로 역동선생 우탁을 생각 해 냈을 때만해

도 고려 말 역동선생과 조선전기 퇴계 이황, 얼핏 보기에도 두 사람은 도무지 연관이 없어보였다. 한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역동선생을 기념한 악동서원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 예안면 부포리 오담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퇴계 고향도 예안현 온계리(禮安縣溫溪里)¹³⁾가 아닌가. 그런데 780m 표석 산봉우리에서 퇴계 연보를 배낭에서 꺼내보는 순간 그는 70세 때 역동서원에서 5월 제생과 함께 모였고 그해 심경을 강의했으며 8월에 역동서원낙성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그는 역동서원건립을 주관했던 셈이다… 놀라움과 함께 밀려드는 것은 또 다른 의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굳이 수많은 선비들 가운데 그를 존경했던 것일까.

그가 숙부 이우(李瑀)에게 6세 때 천자문을 배우고 논어를 배운 것은 12세 때이었다. 그런 그의 유년시절 가장 영향을 준 시인은 도연명이었는데 14살먹은 소년 퇴계 이황은 도연명의 시를 거의 암송하고 다닐 정도로 그를 흡모했었다. 이후 그는 서책이 많은 절에 들어가 독서를 했는데 14세 때 용주사(龍壽寺)에서 16세 때에는 봉정사에 들어가 독서한 바 있었으나 17세 독서로 지병을 얻을 정도였다. 아마 이 무렵 그가 짚음을 내놓고 공부한 것이 바로 주역이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전기 주역에 대한 달인 퇴계 이황이 역동선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혹시 그가 역동선생을 가슴에 담고 흡모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미 역을 공부할 때부터 아니었을까… 그런데 사인암리가 역동선생 우탁의 출생지가 아닌가.

이런 사실은 참으로 의외로운 연상을 하게 만들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퇴계 이황선생은 그를 흡모하는 마음을 못 이겨 이곳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780m 표석이 있는 이곳 역시 안팎으로 추위가 엉켜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자 연이온 능선길을 찾아 길을 나섰다. 산등성을 밟은 지 두 시간여 만에 산림청에서 세운 덕절산 표지석에 이르렀으나 산길은 아직도 여운이 남았는지 두어 차례 오르내림을 번복하다가 고개를 떨군 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남쪽사면이라 그런지 제법 훈기가 남아 있었고 낙엽도 사라지고 없었다. 이 길이 암릉 길을 타고 가산삼거리를 향해 내려가는 산길이었다. 커다란 바위가 많은 이 길은 제법 거칠고 위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남쪽 멀리 온화하면서도 묵직한 것이 생김으로나 이를 그대로 빼어난 상선상봉(815)이 보였다. 이 산 북쪽 사면은 구조가 단순해서 그 속에 셋 가지 친 줄기들이 많지 않았으나 뒤로 비껴선 형봉(881)과 검봉(817) 채운봉(861)으로 이어진 서쪽 사면은 달랐다. 겹겹이 늘어선 산 주름만 보아도 오밀조밀한 폴짜기가 제법 많아보였고 그 산자락 속에 상선암이 안겨 있었다. 그 뒤로 늘어선 신선봉(912)과 도락산(964) 그리고 황정산(959) 머리에는 검은 구름마저 깔려있다.

눈앞에 보이는 산비로운 세 산봉우리 사이로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이제 나름의 독특한 모습을 하고 우람하게 솟아 서로 어깨동무를

12) 대사성은 당시만 해도 문과출신으로 학문이 뛰어난 자가 임명되고 유학에 관계된 일과 문묘(文廟)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관직 이문이었다. 원래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관직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일찍이 태조 때 관근(權近)이 그리고 정인지(鄭仁知) · 서거정(徐居正)이 겸직했던 이 자리였으므로 의관직 아문인 지방관이와는 아문(衙門)의 격도 달랐다.

13) 오늘날의 안동시 도산면 온해리

하며 장엄한 행진을 이루며 흘러내린 것이 출기찬 산맥 바로 소백산맥이었다. 이름을 가진 산들은 모두가 사연을 갖기 마련이었으나 그 이름이라는 것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설을 요약되거나 그 이야기 내용을 제목으로 바뀌어갔다. 산이 크고 높을수록 전설은 하늘에 가까운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했고 그 주인공들은 범접하기 힘든 신령들로 바뀌었으며 영험한 산이 되었다. 산이 영험할수록 기운이 충만하고 가득했다. 하지만 산은 내력을수록 터의 이야기로 인간의 일로 바뀌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산은 출기를 따라 기운을 들판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지기도 풍요로웠다. 영험한 산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터로 지기를 분배해 주는 산 바로 그 산이 그 마을의 진산이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이 진산의 표기가 명확했다. 그래서 산의 높고 낮음, 그것과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인간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였다. 높고 험한 산 앞에 왜소하기 그지없는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를 신령 앞에 내놓은 것이나 가깝고 나지막한 산을 골라 이상적인 삶을 살자는 것은 같은 뜻을 지닌 말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풍수지리 양택이라 했다. 그런 분별을 가지고 터를 고른 자세도 중요했고 그 많은 산들에 그 많은 터를 엮어 마을을 조성한 것을 보면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비슷비슷하되 같은 장소는 한곳도 없는 그 많은 산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먼저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장구한 세월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이 땅의 사람들이 터에 대한 지적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 수준이 얼마나 철학화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증명이기도 했다.

가산리에서 단양가는 화물차를 얹어 타고 놋재에 이른 것은 해가 가을기 시작 할 무렵이었다. 놋재 사거리 길목에서 차에서 내린 나는 성재산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뒤 돌아본 상방리 모습, 건물지가 두악산 자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산길에 변화가 생겼고 단봉사 절을 연결하는 구간이 포장되면서 산길은 자동차 길로 변했고 사람이동 또한 편해졌다. 포장이 되면서 상방리에서 두 악산 가는 길이 여기서 모아져 외줄기 산길로 정리되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놋재 패턴 역시 바뀐 것이다. 북하리에 가파르게 오르던 소로 길이 5번 국도에 일부 편입되면서 놋재에 길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놋재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단양의 출구가 변한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피티재 길이 포장되면서 두악산과 덕절산은 넘나드는 산이 아니라 단양천과 운계천 그리고 죽령천 우화교를 통해 순환할 수 있는 순환경판도로 개념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도로가 포장되고 개선되면 될수록 마을 사람들과 산은 단절되기 시작했고 산에 대한 진정성은 비진정성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성재산 산길과 하방리

물을 만나면 멈추는 것은 지기(地氣)였다. 두악산에서 흘러내린 지기가 남한강을 만나 멈춘 탓에 그만 그만한 4개의 봉우리가 줄지어 업치고 겹치며 이어 지면서 커다란 삼각형모양의 분지를 이루어낸 산이 성재산이다. 두악산의 영험한 기운이 신비스러울 만큼 확연한 삼각형 분지를 만들어 내고는 그 안쪽에 평평한 땅, 성재들을 마련해 놓았다. 그 전체적인 모양새는 주걱 같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망치 같기도 했다. 나는 처음 대하는 이 기묘한 산 지형을 그려놓은 1973년 편집한 1/25000 지도를 향교 앞 섬들에 앉아 정신



〈그림 22〉 성재산길 1/25000

없이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도 읽고 지도를 본다 한들 그것만으로 지형을 완벽히 숙지하고 산길을 파악하기란 힘들었다. 직접 지형답사를 하려고 숲속으로 향하던 밭길을 돌려 놋재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다.

우선 지도를 보면 성재산을 오르는 길은 네 곳이 있었다. 하나가 하방리 재깐머리에서 가파른 능선을 타고 적성산성과 성재들 사이 능선을 오르는 길이고 또 하나가 옛 단양초등학교 자리에서 계곡을 따라 성재들로 오르는 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제일교회 옆으로 올라 당재를 넘는 길인데 이 산길은 당재에서 향교 뒷길과도 만났다. 그리고 나머지 산길이 놋재에서 성재산으로 향하는 능선 길이었다.

이 길은 모두 성재들에 모아졌다가 다시 두 가닥으로 나뉘어 현천리로 빠졌다. 그중 한 가닥이 남한강변으로 내려섰고 또 한 가닥은 북하리 죽령천변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가산리와 대잠리 소선암리 사람들이 현천리 포구에서 소금을 사거나 소금장수들이 내륙으로 소금을 팔려가려면 성재들을 거쳐 놋재로 가서 단봉암길로 산길을 잡아 가다가 보름재에서 소선암리로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하방리 사람들이 죽령천 하구로 가려면 놋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성재들을 거쳐 현천리 쪽으로 나아갔다.

행장을 수습한 나는 단양향교 앞 언덕길을 절음을 재촉하여 성재산 자락을 오른쪽으로 침고 올라섰다. 성재들에서 단양군 하방리 산 3-1번지 적성산성 오름 길은 잡풀이 우거졌으나 경사가 그리지 심한 편은 아니었다. 워낙 산이 낮았으므로 가벼운 생각으로 산성을 향하자 나타난 주변에 열 지어 널브러진 크고 작은 석축이 바로 1979년 사적 265호로 지정된 적성산성이었다. 적성산성은 성재산 삽이 많은 고개 마루를 둘러싼 퇴메 산성으로 신라(진흥왕 545~551년)의 테뫼식 석축 산성답게 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동서로 기다랗게 반월형으로 배 모양을 하고 있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쪼개 엊물려 포개쌓은 외성은 동저서고(東低西高)의 성재산 정상부 둘레 923m를 둘러싸고 있었고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북동쪽 내외 협축한 부분의 안벽 높이 2~3m, 폭 1m의 석축 일부와 북쪽암문이 남아 있었다. 산의 땅 모양새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관계로, 성벽은 동쪽이 높았다.

성벽에 올라서자 한낮의 푸근한 땅 내음과 달리 빼가 드러난 소

배산 줄기를 바라보는 중압감이 느껴졌다. 지역에 따라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산과 들판도 달랐다. 경기도 산들은 어느 면에서 강원도의 그것과 닮기도 했으나 한강을 너머서면서부터 들판으로 치달린 텃인지 흐름세가 유연해졌다. 동북쪽 성벽 끝에 있는 암문위에 올라 천천히 눈길을 주변에 옮기며 산세를 살펴보니 동쪽으로 상진리, 종도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거기서 강물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춘 온달산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서쪽으로 말목산과 제비봉 사봉 사이로 빠져나가는 남한강 물줄기가 보였고 북쪽으로는 적성면 일대가 남쪽으로는 북하리 일대와 죽령길이 관측범위에 들어왔다. 죽령은 신라의 교두보 아닌가.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재산은 그자체로 훨씬 완벽하고 위강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고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화정산 주변 산길을 노리고 예전 문경일대를 공략할 수 있는 전진기지였다. 지도에는 예사로운 등고선만으로 표시된 이곳 지형은 실제로는 놀랄 만큼 완전한 천연요새를 만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 말보다 지도는 더 불확실했다. 남북으로 산자락이 급하게 내려앉아 절벽 아닌 절벽을 이루고 있었고 있는 산길은 동서로나 있었다. 병영을 구축하기에도 좋을 만큼 양지바른 이곳은 단양읍에서 이곳이 유일하게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곳이었다. 나는 다시 산줄기를 따라 지형을 살펴보았다. 지형을 살펴보면 볼수록 경관변화가 많아 아름다웠으나 전략적 요충지임이 분명했으므로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산길이 두악산과 성재산으로 산자락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하진리 나루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아득히 먼 옛날 천오백 년전의 이야기이었지만 하방리 도시구조를 조성하는 도로패턴과도 깊은 상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단양지역은 고구려의 적성현에 속해 있었으나 6세기 들어 강성해진 신라가 협준한 죽령을 넘어 북진정책을 폐기 시작한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 영토였던 이 산을 점령하고 난 다음 전승을 기념하기 위한 적성비를 세웠던 것이다. 이 적성비는 높이 93cm, 윗 너비 107cm, 아랫너비 53cm, 두께 20cm로 위가 넓고 두꺼운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들며 굽어진 역사다리 꼴 형태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이다. 머리돌이 없는 갈(碣)의 형태로 아랫부분 끝이 좁은 것으로 보아 받침돌에 비석을 꼽아 넣는 형식으로 세워진 이 비석은 3조각 나 있었으나 그중 2개에 글자크기 1.5~3cm 예서풍의 해서체로 현재 288자가 남아 있어 이지역의 일을 알려주었다. 비문의 글씨는 비록 진흥왕 순수비보다 격이 낮고 세련되지는 않으나, 이미 발견된 창녕의 진흥왕 순수비보다도 약 10년 전쯤의 것으로 보이는 비문의 내용은 실로 놀라운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서기 551년경 신라 진흥왕은 직접 북한산을 순찰하면서 국경지대를 점검하고 경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1년간의 토지세와 특산품에 대한 세금 면제, 죄인 사면, 국가시책 공표와 만심 안정을 위한 내용조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라 울령에 규정된 호적관한 사항들이 대인·소인·남자·여자·노인 등 다섯 등급 이외에 소자·소녀 등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라 경덕왕 이전에는 호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오던 일본학설을 뒤 짚는 계기마저 주었던 셈이다. 하늘에 구름이 끼자 구름 틈새로 햇살이 곧게 내리뻗고 있었다. 그런데 하

필이면 남한강 상공이었고 적성산성 바로 위였다. 햇살은 적성비를 겨냥이라도 하듯 축복처럼 단성면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남한강을 에워싼 산들의 기묘함과 그 가운데를 이루어진 평지의 신기함에다가 한줄기 햇살 까지 적성산에 쏟아져 내리고 있으니 남한강일대 경치의 아름다움은 황홀할 지경이었고 적성비가 증언한 역사의 문맥은 경이롭기 까지 했다.

성재산은 중대병력이 주둔할만한 자그마한 관측소 같은 곳에 불과했으나 주변에 봉산 슬금산 등을 비롯하여 병력을 숨길만한 곳이 많았으므로 분산된 병력을 소탕하자면 성재산을 포위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기본 작전이었다. 소탕이나 섬멸을 전제로 할 때 이 작전이 외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건 연대이상 사단급에 해당하는 병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작은 산에 진흥왕은 손수 적성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들은 비문에 원래 고구려 땅의 지명인 적성현을 세 곳이나 기록하고 있었고, 비문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사부·비차부는 당시 신라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지닌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진흥왕의 북진정책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신라 귀족인 이들은 진흥왕의 교시를 받아 신라의 국경을 확장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적성인 아니치를 포상하고 앞으로도 신라의 영토 확장을 돋고 충성을 바친 적성인의 공훈을 표창함과 동시에 장차 신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포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은 이곳이 얼마나 큰 격전지였는지를 짐작케 했다. 이곳은 군영이 자리했던 군사용 산촌이었다.

다리를 팔며 옛 단양 도시구조를 살피려는 예비 작업으로 산길과 산촌을 조사 해오는 동안 온 몸은 땀으로 후줄근해졌다. 산성에서 내려와 버스 정류장 앞 길거리에 상가가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변화가에 해당하는지 제법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 옛 단양읍내를 살펴본 시간도 벌써 한 시간 넘짓했다. 서쪽 제방을 내려가면 단양천 하구 일대 지금은 철거되고 사라져 버린 옛 단양시절 주거지가 있었고 단양천변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방리를 연결했던 우화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다리를 건너 두악산을 바라보고 단양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암계곡으로 가는 계곡 길이 나을 것이고… 배낭에 넣고 다니던 조선시대 지도, 대동여지도, 단양군지도 그리고 1910년 이후 지형도를 꺼내 보자 내가 차에서 내렸던



(그림 23) 충방리에서 본 단양 아경

버스정류장 앞 변화가는 1910년대 만해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 앞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손바닥만한 읍내 주변 산과 능선을 하루 종일 헤매는 동안 나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 면발치서 산을 바라보고 살았으나 어찌다 오른 산이었으므로 산에 익숙하게 살아온 삶은 아니었다. 대학시절 설악산을 구경한 것이 고작인 나는 기암괴석의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산머리에 바위 가득한 악산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산이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한부분인 걷는 대상이 되다보니 이제 까지 차를 타고 산길을 달리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른 점들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길을 걷는 동안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이야기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바로 옛 단양 속에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Walking space, 걷는 도시의 한 부분,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 답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모든 길은 하루거리를 중심으로 모듈화되어 있고 도시 분포 역시 이에 준했다는 사실이었다. 산길이, 산촌이 모두 그려졌다. 그리고 사람은 퇴계 이황은 사인암리의 역 도선생을 잊지 못했고… 그들은 이속에 운천 구곡로와 삼선수석로 등 아름다운 경관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의 생체 리듬에 대한 확인이자 호흡의 발견이기도 했고 잊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발견이기도 했다. 본원적인 도시의 모습, 그것은 바로 걷는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것이다.

늦재에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자 날씨가 완연하게 추워지기 시작했다. 멀지 감지 별아래 흐르는 죽령천에 제법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었고 갈대가 무성했다. 한해를 마감한 논두렁을 스치며 지나치는 산바람이 제법 옷깃을 파고들었다. 멀리 보이는 백두대간의 산들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것들과 사뭇 달랐다. 평야지대에 솟아 오른 산들은 나지막하면서도 둥그스름한 모양새의 유연한 흐름을 가지는데 반하여 이곳을 가로지르는 태백과 소백산 줄기의 산들은 드높으면서도 날이 선 모양새로 억세게 각을 세우고 솟구치며 서 있었다. 경기 충청도의 산들이 들판을 거느리고 멀리 풍경이 잡히는데 반하여 이곳 산들은 평야를 제 몸으로 다 차지하고 바로 앉아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들판을 가로막는 경기 충청도의 산들이 출렁이는 강 물결이라면 이곳 산들은 폭풍을 타고 겹겹이 내달아오는 성난 파도 같았다.

다산 정약용도 역촌 장림리에서 이러한 주변풍광을 돌아보았던 지 유죽령(踰竹嶺)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백초요일령개 小白峴嶺一嶺開
소백산 드높아 고개하나 열렸는데

도두비촉홍유재 到頭飛矚興悠哉
오르고 보니 홍이 도도한 이는 구나

계류북회황강거 溪流北會黃江去
시냇물은 북으로 흘러 한강과 만나고

산맥동차벽해회 山脈東遮碧海迴
동으로 휙들은 산줄기는 깊 푸른 바다가 되구나

곡배연광의유사 谷裊煙光疑有寺
골짜기 피어오른 연기 절이 있는지

응변추색사등대 鷹邊秋色似登臺
가을빛 물든 기러기처럼 대에 올라

귀면정지단양군 踏歸鏡正指丹陽郡
단양군으로 되돌린 밭길

삼도운하염염래 三島雲霞冉冉來
삼도의 구름노을 천천히 다가 오네

위의 시의 내용으로 보아 다산 정약용은 죽령천과 운계천이 만나는 장림리 어귀에서 남쪽의 죽령을 바라보고 깊 푸른 바다처럼 보이는 숲이 산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휙들이기는 모습을 뒤돌아보며 산맥동차벽해회(山脈東遮碧海迴)라 했고 서북쪽에서 몰려오는 석양의 노을을 보고 삼도운하염염래(三島雲霞冉冉來)라했다.

그는 남, 북의 자연경관차이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달빛은 더 밝게 다가왔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점멸해가기 시작했다. 흐릿한 도시 불빛이 사그라지기 시작하자 강 건너 죽령을 향한 길이 적막감과 함께 분명하게 드러났다. 죽령 가는 길은 옛 단양읍 북하리를 거쳐 가게 되어 있었다.

나는 단양 읍내 하방리쪽으로 뻗어가다 집들로 가려져 가뭇해진 향교앞 길, 그 길 끝에 눈길을 박고 있었다. 이제부터 남은 일은 가능한 하방리와 중방리 상방리 도시구조를 밟고 걸어서 확인하는 일이다. ■

도시계획과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나타난 미국 덴버시의 새로운 도시상*

New Visions of Metropolitan Denver embedded in Urban Plans and Design Guidelines

도시계획수립과 관련 법령들은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도시 구성원, 관련 이해집단들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어 계획과 법제들 간에도 완벽한 일관성과 시기성을 찾기가 어렵다.

덴버시와 카운티(이하 덴버시)의 경우에도 여러 장기계획과 단기계획들이 지역구성원들과 개발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립 개정되었고 이는 계획들과 법제간 불일치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도 충돌하게 된다. 근대이후 자동차위주의 교외중심 도시개발에 의해 양산된 도시들에 대한 비판이 199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도시와 지역미래상에 대한 설립 요구들이 일어난다. 덴버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속에서 경제와 사회 문제 등을 포함한 범분야적 지역적 미래상을 설정한 '덴버 종합계획 2000'을 수립하고 이후 10여년에 걸쳐 새로운 지역별 비전과 계획 전략들을 설정하여 기존의 소지역 도시계획과 조정법규, 새로운 균린주구 법정 도시계획들을 대체적으로 정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미국 내에서도 훌륭한 평가¹⁾를 받고 있다.

또한 덴버시의 도시계획들은 최상위 계획인 '덴버 종합계획 2000'과 통합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인 '덴버 청사진', 도시

법령인 조정법규, 토지분할법령, 매개계획인 범도시계획, 일반 개발계획, 소지역계획, 균린주구 계획 등 40여 지구의 도시계획들과 최하위 계획인 17지구의 도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간치를 가지고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도시의 미래상과 가치를 구현하여 실천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나 공공나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혹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련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제정되고 심의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 도시계획들과는 관련 없이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가로시설물이나 보도패턴 등의 현정된 분야만을 규정하여 도시를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도시의 미래상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덴버시가 이루어온 일련의 성과들인 여러 도시계획들과 법령, 디자인가이드라인들을 상하구조와 연관 관계, 또한 상하위 전략들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적 미래 가치와 실천적 전략, 규제 항목 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이 글의 일부내용은 〈김소라,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5호, 2010년 5월〉에서 발췌, 편집하였다.

1) 미국 뉴욕 칼리지 건축학과 교수인 존 윌리엄슨(Jane Williamson)과 미국 조지아테크의 건축학프로그램 디아렉터이며 뉴어버니즘협회의 이사회 멤버인 엘렌 던햄 존스(Ellyn Dunham-Jones)는 2007년 개최된 17회 CNJ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중의 하나: 교육 재활용하기' 원고에서 덴버를 미국내 가장 홍콩하고 혁신적인 도시 부흥 사례로 꼽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이루어진 멘버의 도시변모에서 오늘의 미국도시가 얻어야 할 교훈이 매우 크다고 역설하였다.

목 차

1.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의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도시상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Urban Plans and New Visions of Metropolitan Denver

2.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들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Urban Plans and Design Guidelines of Denver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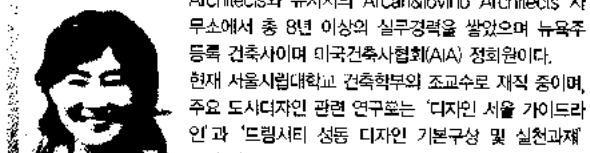
필자 : 김소라,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by Kim, So-ra

김소라 교수는 충북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의 우일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국 뉴욕의 Gwathmey Siegel&Associates Architects와 뉴저지의 Arcari&lovino Architects 사무소에서 총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뉴욕주 등을 건축사이며 미국건축사협회(AIA) 정회원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도시디자인 관련 연구로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과 '드림시티 성동 디자인 기본구성 및 실천과제' 등이 있다.



1. 미국 덴버시 도시계획의 역사와 새로운 도시상

-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Urban Planning and New Visions of Metropolitan Denver -

서언

최근 3~4년간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도시디자인조례 혹은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¹⁾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 포함 총 10여개의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조례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그 적용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각각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으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으나 그 수립 내용은 도시경관,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서로 유사한 범주를 규정하며 그 수립과 시행 단위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도시디자인조례나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도시의 공공영역이며 이 영역 안에 건축물의 입면, 필지 내 외부공간 등 일부 사적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시설계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의 내용 안에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제 운영 등은 이미 외국의 많은 도시에서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Urban Design Guideline)과 성격과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의 디자인 기본계획들이 타 도시계획이나 법령과는 분리된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도심외부공간의 한정적 분야에 국한되어 도시의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디

자인가이드라인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중심이며, 상위계획인 각종 도시계획과 법령들의 내용을 하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미국의 '덴버시와 그 카운티(이하 텐버시)'는 여러 도시계획들과 관련 법령,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2000년 이후 새로이 설정되는 텐버시의 도시 비전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새로이 설정된 텐버시의 도시목표와 전략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에서 일기 시작한 뉴어버니즘 운동²⁾과 그 맥을 함께 한다. 현 북미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외지역의 물장소성, 도심의 쇠퇴, 커뮤니티내 인종문제, 소득계층의 분리현상, 맞벌이경제체제안의 육아문제, 자동차 위주의 토지소비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근본 원인이 모든 커뮤니티를 같은 모습으로 양산하는 용도지역지구제(조닝: Zoning)와 저밀도 확장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물인간적 가로기준에 있으며, 번성하는 교외에 둘러 쌓인 채로 비어가는 도심과 균린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뉴어버니즘 운동의 기본 골자이다. 텐버시 또한 이러한 큰 이념아래 비어가는 도심을 재복원하고 확산하는 교외를 재구성하여 환경자원과 지역유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아래 관련계획과 법령들을 재정비하며 이런 노력은 미국 내에서도 교외를 재활용한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금회의 원고에서는 텐버 도시계획과 법령들의 상관관계와 구조, 장기적 도시 비전과 상위 전략의 내용들이 어떻게 상위 계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 특별시, 광역시 이하 자치구를 포함한 도시디자인 조례는 27개가 있으며 공공디자인조례는 총 9개가 있다. 도, 시, 군 단위의 조례들은 아래 표와 같다.

	법규명	제, 개정일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6.7 제정, 2009.7 개정	공공디자인담당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8.3 제정, 2008.7 개정	도시경관과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8.12 제정	도시디자인과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9.2 제정	도시주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2008.8 개정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2009.4 제정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2009.1 제정	공공디자인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2009.1 제정	건축도시과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2008.1 제정, 2009.8 개정	도시디자인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2008.12 제정	전략사업팀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2009.8 제정	기획감사실
	원주군 공공디자인 조례	2009.8 제정	문화관광과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2008.1 제정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2008.11 제정	도시디자인과

2)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은 근대도시개발원칙에 의해 양식화된 북미의 현 도시상황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1993년 10월 버지니아주 알렌산드리아에서 개최된 전국대회를 계기로 뉴어버니즘 협회(Th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가 결성되게 되는데, 이후 1996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시에서 열린 제 4회 신도시계획 협회(CNU VI)에서 뉴어버니즘의 근간이 되는 헌장을 제정한다. 헌장에서는 도시를 지역: 대도시, 도시, 타운(The Region:Metropolis,City,Town), / 균린지구, 지구, 회랑(Neighborhood, District, Corridor)/ 블록, 가로, 건물(Block Street and Building)의 단위로 나누어 기본 정신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 단위 제언은 텐버시의 조정법규의 새 용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덴버 도시계획의 변천사

덴버시는 미국 중부 콜로라도 주의 수도로 로키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해발 2천여미터의 분지도시이다. 400km²에 넓이의 덴버시 인구는 60만 규모로 2008 미국 통계국 추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4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³⁾이며 15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1858년 서부에서 온 탄광업자들을 위한 체리크릭(Cherry Creek) 임시부락에서 시작하여 황금러시 시대를 거쳐 성장한 도시는 20세기 초 시정부 주도 아래 “아름다운 도시 운동(The City Beautiful Movement)”⁴⁾을 펼치며 네오클래식 도시 표준을 설립하게 되는데 당시 중부에서는 선도적인 도시디자인 사례였다. 이때 형성되었던 초기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의 동서남북에 주요 공공건물과 기념비적 건물을 세우고 그 사이의 대로들에 식수를 하여 덴버의 경관과 미기후를 조절하는 그런 파크웨이조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구마다 작은 도심(Civic Cent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역공원(Neighborhood Park)을 계획하고 이 주요 공원들 근처에 학교, 소방서, 교회, 도서관 등 지역공공건물들의 부지를 설정하여 그 지구의 중심지가 되게 한다. 산맥과 이어지는 주요 산들은 대규모 공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도시경계에서 자연경관이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며, 이러한 덴버시의 경관적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져야 할 유산으로 간주된다.

194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덴버는 교외(suburban)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며 주민들의 이동, 통근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경제중심은 기술산업분야가 중심이 되었으나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덴버의 도심지역들이 급격히 노후되고 활폐화되면서 다운타운이 재개발되고 근대도시의 전유물인 고층빌딩과 고속도로들로 대체된다. 통근으로 인한 도심의 교통정체는 극심해졌고 근대의 도심 상업업무지역과 오래된 빅토리아시대의 도심블럭 사이에는 완충지대로 대규모 주차장 계획을 독려하였는데, 이는 이후 도심의 보행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게 된다. 1980년대 초의 경제 침체기 때,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부와 민간 합작의 공동개발사업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덴버시는 도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운타운 지역 계획(The Downtown Area Plan)’을 수립하는데 이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업가, 개발자, 지역민, 환경단체, 전문가와 비전문가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세운 최초의 계획이었고 ‘1989 덴버 종합계획(The 1989 Denver Comprehensive Plan)’의 원형이 된다.

‘1989 덴버 종합계획’은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도시계획과 규제들을 ‘모든 구성원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계획으로 덴버도시전략의 큰 전환점이 된다. 이 계획아래 덴버시의 다양한 지역지구 계획과 심의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1990년대의 경제부흥기는 갑작스러운 도심확대와 혼잡,

계층과 인종간 갈등, 도시법령들과 지구계획들 간의 불일치 등 다른 도시문제들을 야기시켰고 덴버시는 새로이 ‘덴버종합계획 2000’을 제정하게 된다. ‘덴버종합계획 2000’은 ‘1989 덴버 종합계획’의 주요 비전을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지역지구 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통합적으로 망라하되 부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개발계획수립에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탑다운(top-down)형식과 다운탑(down-top)방식이 동시에 사용된다.



(그림 1) 1920년대의 16번가 전차선로, 도로 양쪽에 차로와 노상주차, 넓은 보도와 광장주택을 포함한 흐림옹도 네일로로 이어어진 경관
(그림 2) 1950년대의 16번가 원활한 차량통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방 대중교통 고속수송 시스템 도입과 보도폭 확장으로 업무 및 상업용도 빌딩, 보행량이 증가 등의 기틀환경 개선 주거를 포함한 혼합용도 빌딩 등
(그림 3) 2000년대의 16번가

덴버 종합계획 2000 과 관련 법령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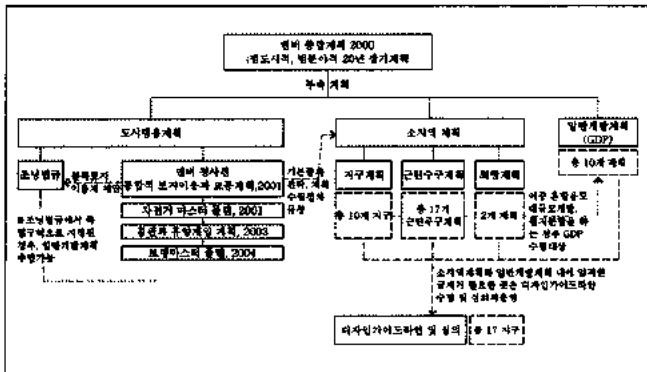
‘1989년 덴버종합계획’ 수립 이후 199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규모 재개발 대상 토지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 새로운 미국도시 상에 대한 요구에 의해 새로이 제정된 20년 장기계획인 ‘덴버 종합계획 2000’은 덴버시의 승인을 통하여 법정계획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1989년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그 비전을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요약하고 다음과 같이 목표와 과업을 설정하였다.

1. 덴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상
 2. 효율적 토지이용 정책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조절
 3. 거주민, 사업자, 방문자들의 도시수요를 예측하고 대응
 4. 덴버의 건축적 경관적 유산을 미래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
 5. 인구구성원의 변화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주택 보급
 6. 지속 가능한 경제 창조
 7. 범도시적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개별 근린지구의 자산 구축
 8. 덴버시민에게 생애 교육 기회 제공
 9. 지역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일자리 기회제공
 10. 예술과 문화를 도시의 사회경제적 조직과 통합
 11. 지역적 이슈(Regional Issue)에 대한 리더십과 협조 도모
- 세부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사회, 정치, 정책 등을 다루는 포괄적 종합계획이다. 또한 계획의 주요 대상은 1)장기적 도시 물리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토지이용, 교통과 주택정책, 2)장기적 인적 환경: 경제활동과 근린지구, 교육, 인적 서비스, 문화 예술, 그리고 3)도시간 협력: 주와 도시간의 관계와 정책으로 대상별 성취목표와 구체 전략, 지침들이 수립되었고, 이는 이

3)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Denver>

4) 1907년 로버트 스피어 시장이 덴버시를 미국의 파리로 불리울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자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도시 디자인 운동이다.

후 제정되는 하위상세계획들에 그 기본 틀을 제공한다. 하위 상세계획들은 시정부 주관 부처가 관련부처와 협의아래 통합적 상세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덴버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덴버 종합계획 2000’의 부속계획으로 채택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까지 채택된 덴버 종합계획의 부속계획으로는 ‘공원과 휴양게임 계획(Parks and Recreation Game Plan)’, ‘보행 마스터플랜(Pedestrian Master Plan)’, ‘자전거 마스터플랜(Bicycle Master Plan)’, ‘덴버 청사진(Blueprint Denver)’이 있다. 이중 ‘덴버 청사진’은 덴버시 지역 전체를 망라한 토지이용과 교통에 대한 통합적 원칙을 제시한 가장 방대한 도시계획서류이다. 이후 제정, 정비되는 소지역계획(Small Area Plan), 지구계획(District Plan), 근린주구계획(Neighborhood Plan), 회랑계획(Corridor Plan), 일반개발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 등은 모두 ‘덴버 청사진’에서 제시된 기본 틀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의회 승인을 통해 다시 ‘덴버 종합계획 2000’의 부속계획으로 채택된다. 즉 ‘덴버 청사진’은 ‘상세지구계획’들과 ‘덴버종합계획 2000’을 연결해주는 매개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덴버시의 도시 관련 법령과 계획들로는 ‘덴버 종합계획 2000’과 통합적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인 ‘덴버 청사진’, 기존의 조닝법규와 현재 개정중인 조닝법규, 토지분할법령과 법도시계획, 일반개발계획, 소지역계획, 근린주구 계획들을 포함한 40여지구의 도시계획들과 17지구의 도시디자인아이드라이인이 있으며 구조와 연관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덴버시 도시계획들의 종류와 구조

덴버 청사진 계획- 통합적 토지이용과 운송계획

도로와의 맥락에서 분리된 개별 필지의 용도와 밀도를 규제하는 현재의 용도지역제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덴버시는 장소와 맥락 중심으로 도로와 토지를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을 시도한다. 덴버시의 지역 계획 개발국 (Department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과 공공토목국 (Department of Public Works), 그리고 공원과 휴양

국(Department of Park and Recreation)이 주관부서가 되어 설립한 ‘덴버 청사진’ 계획은 2002년 덴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덴버종합계획 2000’의 부속계획으로 채택된다. ‘덴버 청사진’은 ‘덴버 종합계획 2000’의 도시비전 뿐 아니라 ‘2020년 대도시 덴버의 비전’⁵⁾ 까지 설정하여 향후 20년 동안 이 계획을 통하여 추구하는 3가지 주요전략을 1)변화지역과 안정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변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성장을 유도하는 반면 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기존의 특색을 보존하며 향후 20년동안 토지용도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분의 주택지가 이에 해당, 2)기존의 자동차 위주의 도로를 복합도로로 변환하여 보행자, 자전거, 고속수송 대중교통수단 등의 다양한 수송이 가능한 도로로 개선, 3)복합용도 개발을 허용하여 주거, 소매상점, 상업 등의 복합용도지역 근거리 내에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접근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최소화되는 예전 커뮤니티로의 회귀를 유도로 설정한다.



(그림 5) 복합도로 개념과 효율성을 설명하는 그림

위의 전략 중 복합용도개발을 허용하고 도로와 토지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블록토지이용제(Land Use Building Block)’를 제안하는데 이는 현재의 용도지구제인 조닝법규의 개정에 근간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의 조닝법규는 1950년대에 처음 제정되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지구가 설정되면 허용되는 용도가 결정되고 지구에 따라 개별 필지 크기, 지구 내 인구밀도 등이 조닝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정현 조닝법규의 용도제한에 의하면 주거지구 내에는 상업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데 식료품점 등은 상업용도로 규정되어 지구 내 위치할 수 없다. 이러한 조닝법규는 간단한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등도 근거리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을 조장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도시가로 비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새로 제안한 블록토지이용제에서는 지구의 성격과 물리적 모양 등에 따라 주거지구내 라도 자전거 혹은 보행거리권역내의 상업용도를 규모제한을 두어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덴버시의 조닝법규는 대대적인 개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주민공람 중에 있다. 이 토지이용 타입은 크게 일반 블록과 공원목적공간으로 나뉘며 일반블록은 다시 지구(District), 주거지와 근린주구(Residential Areas and Neighborhood), 센터(Centers), 회랑(Corridors) 4개의 분류로 나뉜다. 이중 센터와 회랑은 기존 조닝법규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뉴어버니즘의 어휘이 반영된 것이다. 지구(District)는 몇 블록에

5) ‘덴버 청사진’ 계획에 제시된 ‘2020 대도시 덴버 비전’은 1. 2020년까지 확대될 덴버시의 경계와 범위를 설정, 2. 덴버시의 자원을 보호하며 클로라도 주 차원 규모의 휴양시설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 3. 균형 잡힌 다용도 도로 시스템을 구축, 4. 덴버시 뿐 아니라 주차원의 도시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다운타운과 체리크릭 지역(Downtown and Cherry Creek)을 재창조, 5. 공기와 물을 포함한 환경의 질 향상으로 요약된다.

서 몇백 에이커에 이르는 규모로 혼합된 용도나 물리적 경관, 교통 등 특징이 유사한 연속적인 지역들의 집합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주거지와 균린주구는 주거가 주용도가 되는 지구이며 전형적인 균린주구의 크기는 500에서 1,000에이커에 이른다. 센터(Centers)는 한 개 이상 균린주구들의 중심장소를 뜻한다. 주변 균린주구로부터 자전거로의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상점,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위치하는 지구이다. 회랑(Corridors)은 센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좀 더 길과 관련하여 선적인 공간범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블록토자이용의 상세구분은 <표 1>과 같으며 기존의 조닝법 규상의 용도구분은 <표 2>와 같다.

<표 1> 블록 토지 이용

		분류	개요
지구 Districts	다운타운지구	현재 조닝 법규 B-5, B-7, PUD, B-8G, R-4X의 적용을 받으며 덴버시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많이 받는 지구	
	고용지구	사무소, 창고, 간단한 제조업, IT관련 산업 등이 포함되며 주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혼합용도 센터와 구분된다. 주간선 도로나 고속도로 진입 용이한 곳에 위치	
	산업지구		
	캠퍼스지구	단일용도의 대규모 기관 특별지구 대학, 의료시설, 대규모 연구기관 등	
	오락/문화지구	광역관광지구	
근린주거지역 (Neighborhood)	혼합용도	다른 주거지구 보다는 고밀도, 주거외의 용도가 혼용되는 경우 다른 균린주구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위치	
	도심주거	다양한 주거타입과 상업용도가 포함되는 고밀도지역으로 종종 혹은 고층형 전용타입개발 가능	
	단지형단독주거		에이커당 10~20세대
	단독주거		
센터 (Centers)	근린주거센터	한 개 이상의 균린주구에서 필요한 일상적 구매 행위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센터	
	타운센터	150,000sf 이상의 쇼핑과 상업용도를 포함한 균린주거센터보다는 더 큰 규모	
	광역센터		
	역세권개발지구 (Transit-Oriented Center)		
회랑 (Corridor)	보행 쇼핑 회랑	타운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나 선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특징, 거리를 향한 강한 전면성과 연속성 가짐	
	상업 회랑	보행 쇼핑 회랑 보다 더 많은 차량 이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선적 업무지구로 가로수, 버스 정류장, 도로주차, 넓은 보도 등을 수용 가능	

<표 2> 현 조닝법 규용도구분

주거/기관지구	R-S-4 단독주택지구-교외밀도형
	R-X 맞벽/클러스트 단독주택지구-저밀
	R-O.R-1, 단독주택지구-저밀도형
	R-2 집합주택지구-저밀도형
	R-2-A, R-2-B 집합주택지구-중밀도형
	R-3-X 집합주택지구-고밀도형
	R-3 집합주택지구-고밀도형
	R-4 집합주택과 사무소지구-고밀도형
	R-4-X 고밀도 사무소 삼의대상지구
	R-5 기관지구(Institutional District)
업무지구	B-1 사무소제한 지구
	B-A-1 간선 사무소와 집합주택 지구
	B-2 균린업무지구
	B-A-2 간선서비스지구
	B-3 쇼핑센터지구
	B-A-3 간선업부지구
	B-4 일반업무지구
	B-A-4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지구
	B-5 중심업무지구
	B-7 역사업무지구
공업지구	B-8 업무집약/고밀도주거지구
	B-B-A 아파라포·광장지구
	B-8-G 글든트라이앵글지구
	I-0 경공업지구
	I-1 일반공업지구
	I-2 중공업지구
	MS-1 메인 스트릿1
	MS-2 메인 스트릿2
	MS-3 메인 스트릿3
	C-MU-10, -20, -30 상업용·혼합용도지구
혼합용도지구	R-MU-20, 30주거용 혼합용도지구
	T-MU-30 역세권 혼합용도지구
오픈스페이스 / 농업지구	O-1, OS-1 오픈스페이스 지구
	O-2 오픈스페이스/농업지구
주차장지구	P-1 도로주차장지구
	PUD
계획단위개발지구	PRV
	체리크릭 북쪽지구 CCN Cherry Creek North
의료지구	H-1-A, H-1-B, H-2
	케이트웨이공항지구 Gateway Airport Zone District
종복지구	OD Overlay Zone District

위와 같이 복합용도개발에는 지구를 용도뿐 아니라 물리적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경관개념과 보행거리 혹은 자전거 이동거리라는 새로운 스케일이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변화지역과 안정지역의 지정의 내용을 살펴보자. 다운타운 근처의 비활성화 지역과 사우스 플레이트(South Platte River) 강변지역, 역세권 지역, 대규모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예정된 곳, 보행자위주의 쇼핑환경 개발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서비스가 빈번한 도시회랑(Corridors)지역, 비람직한 변화가 진행 중이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변화지역(Areas of Change)들로 지정하고 총 26개의 지역들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들을 다시 1)다운타운, 2)

6) 이 구분은 대형시설이 전으로 새로이 발생한 개발가능지역들을 하나의 규모로 포함시킨 것이다. 로우리(Lowry)는 냉전시대 종결 이후 미국의 군력축소정책에 따라 1993년 텐바에 있던 미국 공군기지가 폐쇄되어 발생한 부지로 1,800에이커의 규모에 4,000여 세대 규모의 주택지와 185 에이커의 첨단기술위주의 클로라도 지역전문대학, 800에이커의 오픈스페이스 계획이 진행 중이다. 스테플턴(Stapleton)은 기존공항부지가 DIA(Denver International Airport)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4,700여 에이커의 부지이다. 30,000 ~ 40,000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273 에이커의 비즈니스센터와 25,000명 규모의 주민을 위한 주택, 1,700에이커의 오픈스페이스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0년의 사업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개이트웨이는 DIA근처의 4,500에이커 규모의 민간소유 대지들로 민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우리, 스탠퍼顿, 게이트웨이⁶ 3)기타 변화지역으로 나누어 이후 수립될 일련의 지역 계획(Small Area Plan), 균린주거 계획(Neighborhood Plans), 일반개발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 등의 큰 목표와 전략과 함께 밀도 지구크기, 수송수단 등의 계획지표들을 결정해 제시하고 있다. 변화지역의 계획전략은 공통적으로 복합용도 개발, 복합거리, 다양한 타입의 주택공급,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충분한 공원과 옥외공간 확보, 주차장 감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운타운지구에서는 비어있는 대지의 개발, 오래된 빌딩의 재사용, 역사적 건물을 보존, 주차장 설치조건 완화를 통한 주차장 감소를 유도하는 반면, 로우리, 스탠퍼顿, 게이트웨이의 새로운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주차빌딩과 인접건물간 주차장 공유를 통한 옥외주차장 감소, 거리와 도로 그리드와의 긴밀한 연결, 도시전체 마스터플랜과의 조화, 도시특성 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머지 변화지역들에서는 변화지역과 안정지역사이의 경계를 조화롭게 계획하며 차량위주 조닝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소지역계획, 균린주구계획과 가장 하위 계획인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현되며 각각의 계획별 단계에 맞는 규제항목과 세부지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안정지역은 변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주거지들이다. 안정화된 지역 내의 향후 개발될 위치와 타입, 밀도 등을 정하여 균린주구의 재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특색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다.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주택 값과 지가가 상승하였고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주거지구내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팝탑(Pop-Tops)⁷이나 스크레이프 오프(Scrape-off)⁸형식의 주택증축 개발이 도시전역의 경관저해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다운타운으로의 통근접근이 용이한 다운타운 인접 균린주구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6) 안정지역의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 든 사례: 잘 정돈된 적당한 크기의 중심동 주택경관



(그림 7) 스크레이프 오프 형식의 새 주택개발이 주변과의 조화를 해치는 사례로 든 그림

한편 높은 주택점유율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비포장 골목, 보도와 수로 부족 등 낮은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주거지내 식료품점과 같은 기본서비스 건물부재 등은 균린주구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재투자와 소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지역들의 특색보존과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안정지구내의 새로운 주택개발을 30,000호에서 8,000으로 제한하며 새로운 고용창출 또한 37,000개에서 15,000개로 계획지표 하향조정⁹
- 2) 기준상황과 새개발, 계획지표 (Design Standards)와 개발지표 (Development Standards)간의 적합성
- 3) 다양한 가격, 크기와 타입을 가진 주택개발
- 4) 균린주구센터를 재활성화하고 식료품점과 같은 기본 서비스용 도가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
- 5) 낡은 도시 기반 시설 등에 재투자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덴버 청사진」에서 새로이 제시된 주택 밀도나 개발 지표들은 현재의 조닝법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표 4〉와 〈표 5〉는 2000년과 2020년 사이의 덴버 성장지수 차이를 두 계획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2000년~2020년 덴버 예상 가구 증가 수

	덴버청사진 전략에 의한 가구증가	현 조닝법규에 의한 가구증가
변화 지역	21,200 / 35%	14,600 / 24%
	16,400 / 27%	16,400 / 27%
	15,200 / 25%	7,900 / 13%
안정지역	7,900 / 13%	21,800 / 36%
2020년 총 예상 가구 증가 수	60,700	60,700

〈표 4〉 2000년~2020년 덴버 예상 일자리 증가 수

	덴버청사진 전략에 의한 일자리 증가	현 조닝법규에 의한 일자리 증가
변화 지역	47,000 / 43%	26,200 / 24%
	17,500 / 16%	16,400 / 15%
	29,500 / 27%	26,200 / 24%
안정지역	15,200 / 14%	40,400 / 37%
2020년 총 예상 일자리 증가 수	109,200	109,200

덴버 청사진과 조닝법규상의 덴버 전체 총 가구 수 및 일자리 수 증가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 분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덴버 청사진에서는 일자리 증가는 다운타운 변화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안정지역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억제하고 있으며 안정지역의 가구수는 기존 조닝법규에서 허용한 숫자의 1/3 까지 감소 시켰다. 이는 안정지역의 현재 물리적 도시환경과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발억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¹⁰을 내렸기 때문으로 오히려 밀도는 다운타운으로의 집중화와 혼합용도개발 지구에서 증가시키고 안정지역은 기반시설들의 재투자를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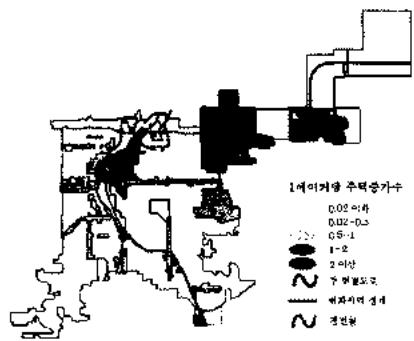
7) 팝탑(pop-tops)은 기존의 주택위에 2층을 증축하는 것을 뜻하며 스크레이프 오프(Scrape-Off)는 기존의 주택을 헐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스케일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뜻한다.

8)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는 업무지구와 공업지역에서 증가시키고 오히려 균린주거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여 기존의 주구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지표는 조닝법규에서도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규제하는 지표인데 「덴버 청사진」에서 제시된 지표대로 현재 조닝법규를 개정 중이다.

9) 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균린주구들에 대해 1990년대에 이미 고밀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교통체계와 토지이용분석 그리고 주민공청회 결과를 통하여 이 지역들의 고밀화가 오히려 활기차고 폐쇄적 커뮤니티의 목표에 해가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커뮤니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덴버시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7>은 현재 조닝법규에 의한 2020년 덴버시의 밀도분포와 덴버청사진의 개발지표에 의한 2020년 덴버시의 밀도분포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심으로의 복귀와 균린주구들의 주택수 증가억제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하는 덴버시의 새 비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조닝법규에 의한
2020년까지의 주택증가분포



덴버 청사진에 따른 2020년
까지의 주택증가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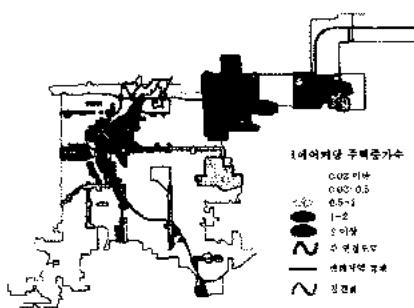


그림 8) 2000~2020년 덴버시 주택증가 예상 비교도

덴버시의 도시 상위계획이 주는 시사점

금회에서 살펴본 덴버시 도시 상위 계획인 덴버종합계획 2000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 도시와 주간의 협조체계를 포함하는 정치적 환경까지를 아우르는 장기계획이며 덴버 청사진 계획은 덴버 종합계획 2000과 하위 지구계획들, 디자인 가이드라인, 법규와 법령들을 매개하는 중간 목표와 전략, 개발, 계획지표들을 설정한 부속계획이자 중간계획으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을 중점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에는 균린주구 강화를 통한 이전의 공동체로의 회귀, 이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교외의 재구성을 통한 장소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크고 뚜렷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덴버 청사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법정계획으로 이후 하위계획들의 설립에 있어서 지역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표준절차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지역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이후 설립될 하위 법정계획들이 일방적으로 사적영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역구성원들의 지속적 논의와 공적 합의의 결과물로서의 계획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계획들에서 나타난 전략과 목표 등은 도시 전체의 미래상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며 이후의 하위계획에서 단계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큰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그 수립방식이 상위계획설립 후 하위계획을 설립하는 것(Top-Down)이 아닌 기존의 여러 계획들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상위계획에 반영하고(Down-Top) 다시 하위계획에 반영하는 유연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매우 크다. 다음 회에서 살펴볼 도시의 하위계획들의 일부 세부 항목은 때로는 지나 치다 싶을 정도의 규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극해 한정된 장소에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졌기에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공적영역과 그 경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설립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이 법정 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계획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이며 단계적인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상위계획에서는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의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만 이후의 하위계획 수립에서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으로 덴버시의 상위계획들이 이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

그림 및 표 출처
그림 1, 2, 3, 5, 6, 7, 8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표 3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참고문헌

1.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Chapter of New Urbanism,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2000
2. City and County of Denver, Denver Municipal Facts, City and County of Denver, 1909~1931.
3. Larsen, Charles, The Good Fight: The Remarkable Life and Times of Judge Ben Lindsey, Quadrangle Books, 1972.
4. Wilson, William H. The City Beautiful Movemen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5. City and County of Denver, Denver Comprehensive Plan 2000,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0
6. City and County of Denver, Blueprint Denver, City and County of Denver, 2001
7. The New Zoning Code Final Draft 자료 출처; <http://www.newcodedenver.org/>
8. Denver, Colorado— Code of Ordinances, 자료출처; <http://library.municode.com/index.aspx?clientId=10257&stateId=6&stateName=Colorado>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10년 3월말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동 역 사무소	총 회원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260	5,260	108	216	10	30	5,378	5,506	1,625	1,625	249	498	64	192	23	92	27	183	1,988	2,590	7	7,366	8,096
서울	901	901	26	56	3	9	932	966	877	877	142	294	42	126	12	43	15	93	1,088	1,428	6	2,020	2,394
부산	468	468	17	34	2	6	467	508	95	95	18	36	3	9	0	0	3	26	119	166		606	674
대구	417	417	21	42	3	9	441	468	60	60	21	42	3	9	1	4	3	15	88	130		529	598
인천	296	296	2	4	1	3	269	273	59	59	7	14	0	1	1	4	0	0	67	77		396	350
광주	199	199	1	2	0	0	200	201	40	40	6	12	3	9	2	8	0	0	51	69		251	270
대전	234	234	7	14	1	3	242	251	35	35	3	18	4	12	1	4	1	17	59	86		292	337
울산	176	176	6	12	0	0	182	188	19	19	1	2	1	3	0	0	0	0	21	24		203	212
경기	715	715	3	6	0	0	718	721	233	233	19	38	3	9	2	8	1	5	258	239		976	1,014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6	26	2	4	0	0	0	0	1	5	29	35		202	210
충북	205	205	4	8	0	0	209	213	29	29	5	10	0	0	2	8	2	16	38	63		247	276
충남	229	229	1	2	0	0	236	231	45	45	5	10	1	3	2	8	0	0	53	66		283	297
전북	240	240	4	8	0	0	244	248	20	20	3	6	2	6	0	0	0	0	25	32		269	280
전남	182	182	0	0	0	0	182	182	17	17	2	4	0	0	0	0	1	6	20	27		222	209
경북	348	348	5	10	0	0	363	368	35	35	4	8	1	3	0	0	0	0	40	46	1	393	404
경남	399	399	7	14	0	0	406	413	26	26	4	8	0	0	0	0	0	0	30	34		436	447
제주	110	110	0	0	0	0	110	110	9	9	1	2	1	3	0	0	0	0	11	14		121	12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합계	8,096	10	8,106	100.0%	23
서울	2,394	3	2,397	33.9%	10
부산	674	1	675	7.9%	9
대구	598	0	598	7.7%	0
인천	350	0	350	3.8%	0
광주	270	0	270	3.7%	0
대전	337	1	338	3.7%	0
울산	212	0	212	2.6%	0
경기	1,014	2	1,016	12.2%	2
강원	210	0	210	2.6%	0
충북	276	0	276	3.0%	0
충남	297	3	300	3.1%	0
전북	280	0	280	3.0%	0
전남	209	0	209	1.9%	0
경북	404	0	404	4.6%	1
경남	447	0	447	5.0%	1
제주	124	0	124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마리	합 계	비 율
회원 수	5,506	2,590	86	8,096	
비 율	68%	32%	1.08%	100%	
사무소수	5,378	1,988	-	7,366	
비 율	73.01%	26.99%	-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제4회 이사회

2010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0 건축의 날」 개최의 건, 태국건축사협회 교류의 건, 2010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비상근부회장 사의 표명의 건, 협회 주요현안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2010전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건축학교육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의 건, 정회원 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건축의 날」 개최의 건
- 10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FIKA를 통해 서 협의·결정하기로 함.
- 제2호 : 태국건축사협회 교류의 건
- 태국건축사협회와의 교류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이번 ULA포럼 참가시 양단체간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2010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회장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집행하고 필요시 추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집행하기로 함.
- 제4호 : 비상근부회장 사의 표명의 건
- 비상근부회장 3인의 사의표명은 협회 발전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 제5호 : 협회 주요현안에 관한 건
- 6인의 회원이 협회 내부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시에는 즉각 대응하기로 하되, 그 이전까지는 다각도로 최대한의 설득 노력을 하기로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예산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사용공간 및 면적 : 협회 2층 91.48평 (전용 45.75평)
 - ▷ 용 도 : 업무용 (건축사동록원, 친환경교육아카데미 등 대비)
- 제4호의안 : 2010전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 주관 : 경기도건축사회
- 제5호의안 : 건축학교육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상근이사를 자문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함.
- 제6호의안 : 정회원 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징계 처리하기로 함.
 - ▷ 징계대상 : 3년(3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379명)
 - ▷ 징계종류 : 제명
 - ▷ 징계방법 및 미납회비 처리 : 3개월간 ('10. 6. 30)의 회비 납부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명 및 결손처리

위원회 개최 현황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6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태국 및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추진에 관한 건

-2009년도 JIA 전국대회 참가 시(‘09. 10.1~3) 태국건축사협회 Thaweejit Chandrasakha 회장이 제안한 본협회 외의 교류 추진에 대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UIA 포럼 참가 시(4.27~5.1)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교류 추진을 위한 회의 일정을 태국건축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함.

-대표단은 최영집 회장, 이근창 아카시아 직전회장, 김지덕 자문위원으로 구성함.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추진에 관해서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 진출현황 및 프로젝트 수주현황(해외건설협회 자료 참조)을 먼저 조사한 후 교류 추진이 필요한 단체를 선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AIA 총회 참석에 관한 건
-2010년도 AIA 총회 참가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국제위원 중 참가를 희망한 신준규 이사, 김성민 위원장, 이근창, 이영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자비부담하기로 함.

-타 위원회 또는 협회 임원 중 이창섭 부회장이 참석 예정이며, 참관단 모집에 관해서는 가협회와 최종 일정 및 예산을 협의하여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건축문화 산문,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참관단을 모집하기로 함.

-미국건축사협회(AIA),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과의 교류협력 약정체결 및 WG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FIKA 3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의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된 약정에 대하여

여는 FIKA로 변경하여 체결함이 필요 하므로 추후 FIKA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제14회 한중일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행사기간은 광주도시건축문화제 기간을 고려하여 ‘10. 11. 2(화)부터 11. 4(목)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11. 2(화)에는 환영만찬을 개최하고, 3일에는 ‘광주건축인의 밤’ 만찬에 3국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함.

-협의회의 전체 주제는 국문으로 ‘저에너지 프로젝트’이며 영문으로는 ‘Low Energy Projects’로 결정함.

-행사 장소는 「광주도시건축문화제」 개최 장소를 고려하여 4월 말 사전답사 후 협의하기로 함.

-공개세션의 ‘저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발표자로 광주건축사회에서 목포대학교 황혜주 교수(주제 : 흙거죽)에게 자세한 강연내용 및 발표자 이력사항을 요청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하고, Young Architect 발표자로는 국제위원(김은미, 이윤태, 임희선 위원 등) 중에서 추후 선정하기로 함.

- 제4호 :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 공모전에 관한 건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 공모전은 국내 각 건축학과 및 건축학대학에 ‘10. 8. 25(수)까지 2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본 협회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자료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하고, 공문 발송 이후에 추가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함.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 전면개정(안)의 종점 추진사항에 관한 건(건축사등록원 설립 및 추진방안)

-건축사법 수정개정(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논리를 준비하여 의견반영의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게 함.

-건축사등록원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협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방향을 수립해야 함.

- 제2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건축사예비시험 대상자 확대)

-건축사법 일부개정(안)(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자와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부여)의 우리협회 겸토의견은 “수용불가”로 하여, 국토해양부에 송부하기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한 것은 건축사법 전면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내용이며,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건축사법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제3호 : 실내디자이너(민간자격증)의 국가공인자격증 신청의 건

-실내디자이너의 국가공인자격인증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은 “공인불가”로 하여 국토해양부에 송부하기로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실내건축기사가 운용되고 있으며, 실내디자이너의 업무가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중첩되고, 건축법 및 건축관련 기준의 안전 및 피난방재 등의 주요내용을 간과하고 실내설계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실내디자이너의 국가공인자격 인정을 반대함.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0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2010.5.4(화))에 참석할 전문가 2인은 법제위원회 유준호 위원, 정책연구실 류지열 실장으로 하여, 인적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송부하기로 함.

- 기타사항

-법제위원회의 워크샵 필요

-각 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도건축사회 회장을 임명

-중점추진사항 설정 : 입찰제도개선, 감리 용역 대가요율개선, 법인의 대형화 추진,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 부활 등.

■제1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제1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건
—국토부 5차 TF팀 회의에서 다루어질 10개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파난, 소방 등에 관한 건축기준 및 주차장 규정이 설정된 후에 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위원이 4월 30일까지 법제회의실에 올려주기로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검토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기타사항
—위원별 과제 분담
—자문위원 구성

■제1회 친환경위원회

제1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안상준 부위원장은 제1분과(친환경건축) 분과위원장으로, 이동훈위원은 제2분과(리모델링)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함.
—각 분과별 위원이 구성되면,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사업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기로 함.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16:00로 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 포럼 개최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 포럼(세미나)을 총2회(상반기, 하반기) 개최하기로 함.
—친환경건축 포럼의 주제선정은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선정하기로 함.

• 건의사항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월우회와 포럼(세미나) 공동 개최에 관한 건
▷ 공동 개최 · 주최는 불가하며 친환경위원회 자체 포럼 및 세미나를 강화하기로 함.
- 친환경 건축탐방에 관한 건
▷ 해외(일본) 및 국내 친환경 건축 탐방을 추진하기로 함.

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건
—베란다 난간 도장공사는 구체적인 공사 내역을 보완하여 재협의키로 하고, 대강당 음향시설은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공사를 추진키로 함.
- 제2호 : 회관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건
—작성된 체크리스트(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작성토록 함.
- 제3호 : 협회 예식사업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계약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고, 년간 사용료로 1억5천만원 정액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협의토록 함.
- 건의사항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반환요청 문서를 시행하고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회신내용을 이사회에서 협의 후 조치하는 것으로 함.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정관 및 제규정 개정방향에 관한 건
—정관 및 제규정 개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오늘 나눠준 자료를 좀 더 검토한 이후에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로 함.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 방향 검토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예산확보 방향에 대한 방침결정에 맞추어 진행해나가기로 함.
- 제2호 : 2010년 사업제안 검토
—용역업 수입구조개선, 신고제도 개선, 경영교수협의회 추진현황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함.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6

■제1회 회원교류위원회

제1회 회원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회원교류위원회 활동 방향에 관한 건
—동호회 지원업무와는 별도로 교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전국건축사대회 또는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제2호 : 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안) 제정에 관한 건
—2010년도 협회 사업계획에 따라 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기로 함.
- 제3호 : 2010년도 동호회 예산지원에 관한 건

•축구동호회에 한중일축구를 포함한 1년 예산으로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을 지원하는 2가지 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동호회는 사업계획을 받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기로 함. 단, 한중일 축구의 경우 이사회에서 협회차원교류 인지 동호회차원 교류인지 성격을 명확히 하여 내년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 지원 시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기타의 건

교육자 동호회 지원 요청 건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되, 동호회 참여자격 제한이 있고 아직 동호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등 성격이 모호하므로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최영집 회장, 이명박 대통령 보고회 참석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5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회에 건축계 대표로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토해양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최로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 기관장,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新한옥플랜이 보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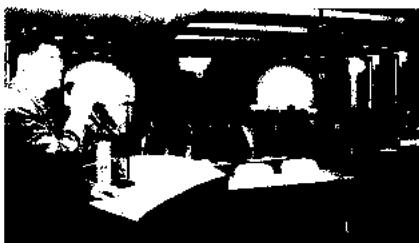
한편 최영집 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회장은 이대통령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건축발전을 위한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건축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존건축물과 신규건축물의 모두 건축정보가 효율적으로 이력, 관리되도록 DB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건축신고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작성·보관될 수 있어야 녹색정책에 맞추어 전 건축물의 친환경건축화를 이를 수 있는 건축물유지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의 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우리 협회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회 발전과 개인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건축제도 관련 업무내용을 실시했으며, 향후 △예절교육 △시험관리 △건설기술자 △세무회계 등의 내용을 주제로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 직원 대상 교육은 협회 주요현안에 대한 부서별 업무협조 체제 확립과 대회원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02-3415-6814

서울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단합대회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4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6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 일원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16주의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중의 일부 행사로 수천 년 역사가 살아 쉬고 있는 고창에서 세계문화유산 고인들의 가치를 느끼고 고창읍성, 선운사 등을 답사하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되새기고 인문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수강생들의 친목 도모와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지를 다졌다.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건축시장개방 및 UIA 권고기준에 따른 계속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 개설한 교육 과정으로서 회원과 사회 각 분야의 CEO 17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현재 제6기 수강생 39명은 오는 6월 24일 수료하며, 제7기는 7월부터 모집, 9월 초에 개강한다.

•문의: 서울건축사회, 02-581-5715

서울건축사회, 회원용 쇼핑몰 운영

서울건축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사무용기기 및 전산소모품용 쇼핑몰(www.colom.co.kr)을 개설, 운영한다.

잉크, 토너, 전산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회원전용 쇼핑몰은 서울건축사회 홈페이지(www.sira.or.kr)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충남건축사회 ‘2010 충남건축사대회’ 성료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소재 해비치 리조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충남건축사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동준 회장 및 김만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우식 충남건축사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평소 건축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은 회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충남건축사회원 모두



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이번 건축사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충남 건축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회 첫날은 크리스탈룸에서 충남건축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로배수여와 J.R Consulting Group 조향준 대표의 ‘전문직의 은퇴설계’, 부동산 링크 정규범 대표의 ‘2010 부동산시장과 경매방법론’ 등의 세미나가 있었으며, 저녁민찬은 그랜드볼룸에서 가졌다. 이어진 둘째 날에는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골프, 등산, 우도관람, 올레길투어 등의 동호회 활동 후 지역회 별 단합행사를 가졌다. 마지막날인 22일에는 골프와 제주도 건축물 답사로 나누어 휴닉스 아일랜드와 4.3평화공원 기념관, 국립 제주박물관 등의 답사로 일정을 마쳤다.

서울건축사축구대회 '강남건축사회' 우승



2010 춘계 서울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4월 21일 은평뉴타운 내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서울 각 지역건축사회 소속 축구동호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5월 14일 개최될 전국대회를 앞두고 실력점검에 나선 서울 각 지역 건축사들은 어느 때보다 향상된 실력으로 경기에 임했다.

치열한 각축을 벌인 결과, 강남건축사회가

송파건축사회를 2: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최다득점상은 김용배 전축사가 수상했다.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건축디자인 공모전

학생건축디자인 공모전(ARCASIA Students'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2010)이 ‘어린이 도서관 (Children's Resource Centre)’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에서 격년으로 아시아건축사대회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와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um)을 개최하는데, 이번 2010년도에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시 학생잼버리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국내 건축학과 3~4학년 재학생이며, 건축 부지는 자국의 공공 공원(Public Park)의 한 부분을 선택해 부지 면적 2000~2500sqm이내로 계획하면 된다.

공모전에 당선된 학생들은(회원국 당 2명)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공식 대표로 초청될 예정이며, 당선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주요 일정

- 대한건축사협회로 작품 제출 : 8.25(수) 까지

- 대한건축사협회 심사(2개 작품 선정) : 9.15(수)까지

- ARCASIA 위원회에 선정된 작품 통보 : 9.20(월)까지

- 선정된 작품 파키스탄 송부 : 10.1(금)까지

- ARCASIA 위원회 최종 심사 발표(파키스탄) : 10.25(월)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9층 국제협력팀

우)137-877

-전화: 02-3415-6826~8(담당: 조지해)

“재개발·재건축 알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집을 발간, 관련 단체와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 편집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로 19회 째를 맞이하는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는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완료된 건축물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리모델링 건축물을 중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 가능,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 응모불가)

응모자격은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이다. 또한 계획부문의 올해 주제는 “회귀; 본연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이며,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물을 제출하면 된다. 계획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공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6월

7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6월 9일(수)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포트폴리오 1부(A4), 작품사진·기본도면·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등이다. 준공부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주후 2차 현장심사 실시한다.

계획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10(목)부터 6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작품계획안(A2/가로 42.0cm × 세로 59.4cm/종방향 구성) 1부와 작품설명서 1부(A4 1매)이다.

대상 사무국은 해마다 1차 심사내용 제출 시 미감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을 방침으로, 신청자들이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 문의: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02-3415-6862~4 / www.kaa.or.kr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제소식

이언구 교수, 대한건축학회장 취임



중앙대 건축학부 이언구 교수(59세)가 지난 4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열린 '2010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제34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언구 회장은 중앙대 연구지원처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이의구 이사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제23대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을 결성, 건축3단체가 UIA정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많은 활동을 한 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6년간 재임하면서 국내 건축학제를 세계화 시킨 업적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www.aik.or.kr

국격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 포럼



건축3단체를 비롯한 국토도시학회, 조경학회 등 관련단체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는 '국격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 포럼'이 4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 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격 높이기에 부응하여 '도시는 어찌 해야하는가'란 병제로 계획된 본 포럼은 제1부 국격과 디자인에서 국토디자인의 삶과 질(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건축도시 디자인(양유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공디자인

(권영걸 공공디자인학회 명예회장), 그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조세환 한국조경학회 명예회장)의 4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에서는 예술도시유형으로 안양시 예술도시사업, 산단지조성 유형으로 파주시 출판단지, 가로환경개선유형으로 부산시 광복로, 기초자자체 유형으로 영주시 도심재생사업이 유형별 성과 발제로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영한 총진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정부 측(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해부, 문광부, 서울시)과 분야별 전문가 8인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KCC, 2010년도 우수 대리점 세미나



KCC는 2010우수 대리점 세미나를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충남 예산 소재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건축도료, 리피니쉬 도료, 분체도료, 실리콘 및 실란트 대리점 대표자 및 임직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각 제품 분반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2010년 운영안을 발표하였으며 ▲건축도료 분반에서는 건축도료의 과거·현재·미래, 건축도료 신제품 소개, Exterior Trend 소개 ▲리피니쉬 도료 분반에서는 Color Navi 소개, 규제 동향 및 신제품 소개, Exterior Trend 소개 ▲분체도료 분반에서는 신제품 및 기술동향, 신시장 및 판촉 성공사례 ▲실리콘 분반에서는 산업용 실리콘 신제품 소개, 산업용 실리콘 국내시장 분석 및 점유확대 방안 ▲실란트 분반에서는 실란트 관련 법규 및 조인트 설계, 실란트 신제품 소개, SSG용 실란트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또한 리피니쉬 도료의 Color Navi 시연, 건축도료 시판 전시 등 실물 전시를 통해 대리점 대표자들의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운영전략 및 비전을 대리점 대표자들과 공유하고 기술 개발방향

7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6월 9일(수)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포트폴리오 1부(A4), 작품사진·기본도면·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등이다. 준공부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주후 2차 현장심사 실시한다.

계획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10(목)부터 6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작품계획안(A2/가로 42.0cm × 세로 59.4cm/종방향 구성) 1부와 작품설명서 1부(A4 1매)이다.

대상 사무국은 해마다 1차 심사내용 제출 시 미감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을 방침으로, 신청자들이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 문의: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02-3415-6862~4 / www.kaa.or.kr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제소식

이언구 교수, 대한건축학회장 취임



중앙대 건축학부 이언구 교수(59세)가 지난 4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열린 '2010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제34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언구 회장은 중앙대 연구지원처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이의구 이사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제23대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을 결성, 건축3단체가 UIA정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많은 활동을 한 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6년간 재임하면서 국내 건축학제를 세계화 시킨 업적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 문의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www.aik.or.kr

국격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 포럼



건축3단체를 비롯한 국토도시학회, 조경학회 등 관련단체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는 '국격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 포럼'이 4월 23일 서울산업대학교 내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격 높이기에 부응하여 '도시는 어찌 해야하는가'란 병제로 계획된 본 포럼은 제1부 국격과 디자인에서 국토디자인의 삶과 질(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건축도시 디자인(양유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공디자인

(권영걸 공공디자인학회 명예회장), 그런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조세환 한국조경학회 명예회장)의 4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건축도시 통합디자인정책에서는 예술도시유형으로 안양시 예술도시사업, 산단지조성 유형으로 파주시 출판단지, 가로환경개선유형으로 부산시 광복로, 기초자자체 유형으로 영주시 도심재생사업이 유형별 성과 발제로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영한 총진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정부 측(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해부, 문광부, 서울시)과 분야별 전문가 8인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KCC, 2010년도 우수 대리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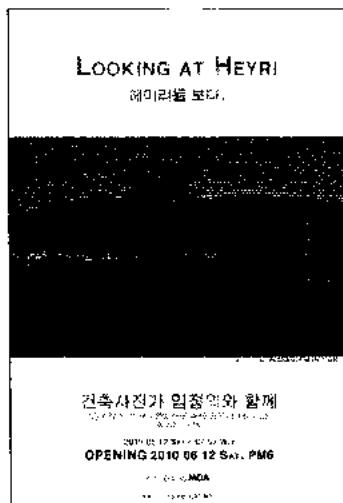
KCC는 2010우수 대리점 세미나를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충남 예산 소재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건축도료, 리피니쉬 도료, 분체도료, 실리콘 및 실란트 대리점 대표자 및 임직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각 제품 분반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2010년 운영안을 발표하였으며 ▲건축도료 분반에서는 건축도료의 과거·현재·미래, 건축도료 신제품 소개, Exterior Trend 소개 ▲리피니쉬 도료 분반에서는 Color Navi 소개, 규제 동향 및 신제품 소개, Exterior Trend 소개 ▲분체도료 분반에서는 신제품 및 기술동향, 신시장 및 판촉 성공사례 ▲실리콘 분반에서는 산업용 실리콘 신제품 소개, 산업용 실리콘 국내시장 분석 및 점유확대 방안 ▲실란트 분반에서는 실란트 관련 법규 및 조인트 설계, 실란트 신제품 소개, SSG용 실란트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또한 리피니쉬 도료의 Color Navi 시연, 건축도료 시판 전시 등 실물 전시를 통해 대리점 대표자들의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운영전략 및 비전을 대리점 대표자들과 공유하고 기술 개발방향

소개 및 신제품 기술교육 등을 통해, 매출증대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기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을 뚫고 보다 나은 실적을 얻기 위해 KCC와 대리점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행사였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임정의 '헤이리를 보다(Looking at Heyri)' 사진전



건축사진작가 임정의(청암사진연구소)씨가 갤러리 모아(Gallery MOA)에서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Looking at Heyri_헤이리를 보다' 건축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임작가가 운영하는 청암사진연구소의 작가 8명과 우경국 한양대 교수가 특별 참가하는 전시회로서 예술마을 헤이리의 건축만을 대상으로 하여 "헤이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본 헤이리의 풍경을 보여준다.

청암사진연구소의 작가 8명은 김광석, 김미영, 박기옥, 석정민, 이시권, 여선구, 양태영, 최승광, 황효철 등이며, 오프닝은 6월 12일 오후 6시이다.

신간안내

공간디자인의 사조_건축·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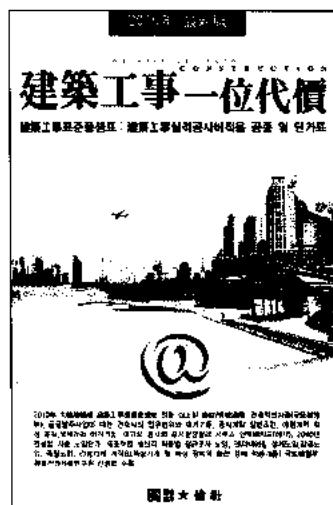
제프리 브로드벤트 저, 안건혁·온태영 역
| 484쪽 | 기문당

도시의 지속적 확장으로 기존 도시구조와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도시설계의 역할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브로드벤트 교수의 이 저술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설계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의 본질을, 그 역사적 연원을 밝혀 대응책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명쾌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자는 근대건축에서의 두 가지 경향, '회화적'인 것과 '정형적'인 것에 관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 사상 및 디자인 이론과 대응시키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디자인의 사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에 걸친 풍부한 국제적 사례를 250 개가 넘는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소개하면서 도시디자인의 역사와 지향합치한 미래의 방향에 대한 멋진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 문의 : 02-2295-6171

2010년 최신판_건축공사일위대가+건축공사표준품셈



적산역구회 | 1507 쪽 | 대건사

이 책은 건축공사에 꼭 필요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정리했다. 가설, 토공 및 기초, 철근 콘크리트, 철골, 벽돌, 타일, 블록, 돌공사, 목공사, 방수, 지붕 및 훈통, 금속, 마장, 창호, 유리, 칠공사, 수장, 기타, 가스 설비공사 등 공사별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을 품목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어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실무자에게 유용하다.

일반적인 공사 외에도 문화재공사부문이나 조경에 관련된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학의 건축과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0년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도 게재되었다.

• 문의 : 02-715-6683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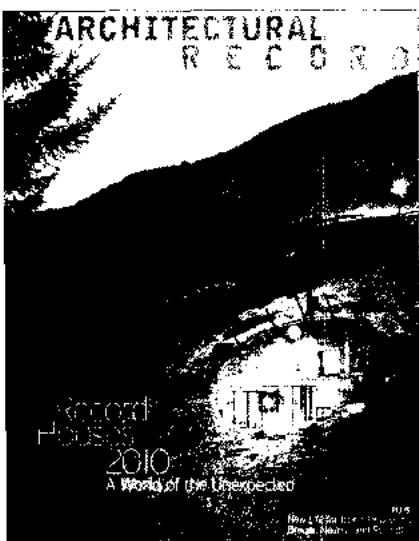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新建築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2010년 Record지가 선정한 주택들, SeARCH and Christian Müller Architects(CMA)의 Villa Vals, MADA s.p.a.m.의 Well Hall, René Van Zuuk Architekten의 Project X, Michael Maltzan Architecture의 Pittman Dowell Residence, Rick Joy Architects의 Woodstock Farm, Masahiro Harada+MAO/Mount Fuji Architects Studio의 Tree House, 그리고 Atelier Bow-Wow의 Mountain House가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Looking Homeward'라는 주제로 the iconic house, Five Houses, Ten Details, 그리고 The Nature of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 의 세 권의 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 Books

●The Iconic House: Architectural Masterworks Since 1900 : Dominic Bradbury and Richard Powers. Thames&Hudson. 2009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상징'이 되는 책을 엮어놓은 두터운 책이다. 1900년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의 MacKay Hugh Baillie Scott가 디자인한 Blackwell 하우스

로부터 트럭의 짐칸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시 지어질 수 있는 Horden, Haak&Höpfner의 Micro Compact House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양의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한 자료를 살고 있다. 100가지가 넘는 사진자료들이 각 페이지마다 빼곡이 들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저자의 주관 하에서 잘 장리가 되어 있다.

Gwathmey House가 표지 디자인에 사용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건물들은 저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물들이지만 각 시대별 건물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건물들이다.

●Five House, Ten Details: by Edward R. For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분명히 하자면 이 책, Five House, Ten Details는 제목과 달리 주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저자가 설계한 5개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디테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념이 부재하고 형식적으로 유사한 계획만이 zoning이라는 껍데기 위에 다양하게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점이 저자가 선택한 주제를 통해 방법론적이고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자의 다섯가지 계획은 질서, 재료의 표현, 구조를 드러내는 방법, 연결을 만들어 내는 방법, 그리고 비례의 불일치로 각각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놀랄지 않은 것은 그의 디자인은 나무를 보다가 미처 숲을 보지 못한다는 흡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축적 디테일에 대한 학자이며 그의 자기성찰적인 글은 항상 유창하고 자기 비판적이다. 그의 글은 모더니즘의 디테일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여러 질문에 명료하게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 책의 각 장은 흥미롭고 정당한 해결안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The Nature of a House: Building a World That Works: by George M. Woodwell. Island Press. 2009

10여년 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노력의 결과로 얻어 Massachusetts 의 Cod만으로 Woods Hole Research

Center를 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를 설립한 과학자인 Woodwell은 이 건물을 지은 건축사 William McDonough과 함께 한 작업에 대해 엄청난 자식을 가지고 쓰고 있다. 디자인으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해 Woodwell이 이야기하는 여행과 같은 이야기이다.

Woodwell과 건축사 William McDonough는 1877년대의 낡은 집을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아젠다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에 새로이 개장을 하도록 결정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Woods Hole Research Center는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의 30%의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지속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건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 Project

Well Hall, China / MADA s.p.a.m.

Qingyun Ma은 그 가족의 고향에 집을 짓는 데 있어 이질적인 요소와 지역적인 요소를 결합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초스피드로 지어지고 있는데 반해 건축사 Qingyun Ma는 그 반대의 접근법을 선택했다.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슬로우 빌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우 푸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들을 고용하였다. 또한, 기후 및 계절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였으며 이 지역사회에 잘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건물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건축사 Ma와 그의 상하이에 있는 그의 회사 MADA s.p.a.m.은 지난 10년 동안 Jade Valley Wine&Resort를 개발해 왔다. 디자



Well Hall

인과 건설이 시작된 지 8년 후에 이 대지 위에 주거의 프로토타입으로서 Well Hall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새로이 지어지게 되었다.

Well Hall의 레이아웃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정형식을 취하고 한 가족 안에 여러 세대들이 함께 사는 전통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다.

방문객이 집의 남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중앙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같은 중앙에 우물이 있는 훌을 만나게 된다. 이 중정은 각각 동서쪽으로 배치된 침실과 북쪽의 부엌과 식당이 있는 곳으로 직접 연결된다.

게스트하우스로서 Well Hall은 전통적인 주거의 모델을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가족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건물은 고정된 요소이지만 가족이란 지속적으로 진화되는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따라서 주택은 하나의 확장된 가족의 형태, 즉 친구들의 그룹이라던가 전혀 낯선 사람들의 그룹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장된 가족의 형태에 의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Ma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건축사이자 프로젝트의 개발자였으며 소요시간, 재료, 디자인을 모두 본인의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 마치 예전의 목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일부들은 대부분 생업이 농업이어서 겨울철에는 일이 한가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 집에 사용된 벽돌은 근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자재를 트럭에 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구

니 가득 담아다가 사용하였다고 한다.

건축사는 이 건물의 내외부를 모두 설계하였다. 실제로 이 건물은 Jade Valley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Well Hall의 디자인을 새로이 할 수 있었으며 그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통하여 '통의 안에 있는 전통의 위반'이라는 컨셉을 실현하였다.

벽돌로 된 벽과 점토로 만들어진 지붕재를 사용하는 것인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이다. 외부는 단단해 보이는 벽과 M자형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건축사의 취향에 따라 서구적으로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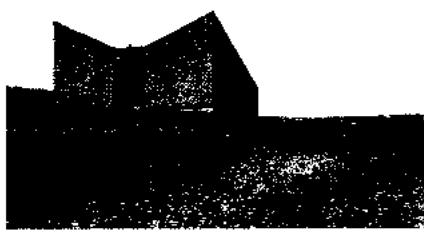
내부에는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며 놓여 있고 특히 입구는 중국의 전통적인 타일 작품으로 장식을 해 놓았다.

이 Well Hall은 때로는 느린 것이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Project X, the Netherlands / René Van Zuuk Architekten

우아한 아르누보의 일상의 패턴이 Project X의 불부명하고 상징적인 볼륨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Amsterdam, Rotterdam, The Hague를 포함해서 Netherlands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은 없다. Project X가 지어진 'Randstad'라는 도시, 혹은 도시형 밀집지대라고 불리우는 이 곳은 어마어마한 인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택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곳 역시 Almere와 같이 바다를 매립해서 생겨난 곳으로 1984년 보다 자연과 가깝고 값이싼 지역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Fantasy"라는 주택 설계경기를 위해서 도시의 일부를 따로 두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독일인 건축사 Rene Van Zuuk는 Villar Psyche를 디자인하여 당선된 디자이너로 이는 그의 첫 프로젝트였으며 할당되었던 대지에 집 한 채가 지어졌다. 숫자로 따지면 지어진 주택이 하나인 셈이지만 그의 디자인은 놀랍고 다양한 모습을 지녔다. '표현이 풍부하다'고 평을 듣는 그의 디자인은 2003년 Amsterdam의 중앙역 뒤쪽에 있는 항구에 사람의 눈을 매혹시키는 건물 'Amsterdam Center of



Well Hall

Architecture(ARCAM)'도 그의 작품이다.

실제로 이 건축사는 Villa Psyche에 수년간 살았으면 불어난 가족들과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roject X라는 새로운 주택을 짓게 되었다. 2009년에 완공된 이 집은 기존의 Villa Psyche보다 넓어졌으며 작은 정원이 운하를 따라 만들어졌다. 세 개의 침실은 맨 윗층에 사무실, 거실, 부엌은 1층에 위치한다. 부엌과 거실은 운하와 데크 쪽에 있는 면이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 풍부한 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빛을 이 공간에 이끌어들인다. 또한 두 개의 긴 계단실 같은 복도가 이 집의 주 동선으로 하나는 앞쪽 현관으로부터 윗층으로, 다른 하나는 집과 운하의 뒤편에서 1층과 연결된다. 값싼 오크를 복도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하였으며 건축사가 저예산으로 이 집을 지었다는 입증하듯 이 그는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색다른 주택은 기존의 주택과 매우 상이하며 건축가는 그저 배경정도의 구조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2개층으로 된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된 매

우 눈에 띠는 모습을 하고 있다.

Technical University of Eindhoven에서 공부한 그는 새로이 개발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새로운 재료인 fiber-cement board panel을 사용하여 2층의 파사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아르누보의 세 개의 가지를 가진 형태가 예장된 패널이 사용되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Randstad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역의 위구, 규모에 대한 제한, 그리고 물에 대한 근접성에 의해 생기는 제한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 주택이 작고 타이트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 사진에서 이 집은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이다. 또한 집에 사용된 마감과 재료는 매우 비싸 보인다. 그러나 이 주택을 디자인 한 프로젝트 팀은 비싸지 않은 재료와 전략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직사각형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이 함께 결합된 이 주택을 통해서 건축가는 여러 제한점을 흘륭한 디자인을 통해 우아하게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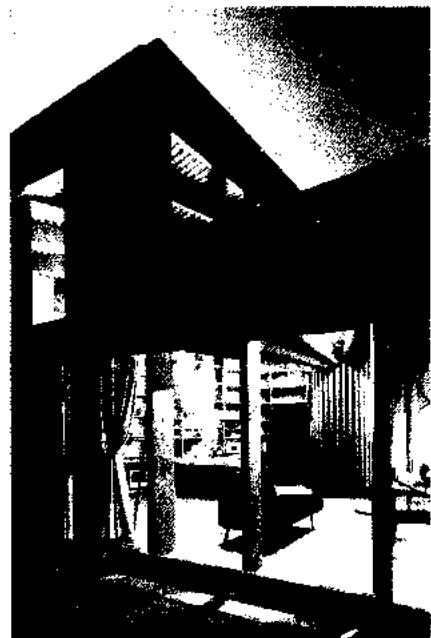
Tree House, Tokyo / Masahiro Harada+MAO/Mount Fuji Architects Studio

'온유'는 Tokyo에 정교하게 지어진 집에 대해 정의해 준다.

잎이 무성한 낙엽수들 아래에 있는 마술같은 공간이 Fuji Architects Studio에 의해 Tree House로 태어났다. 주택의 형태 자체도 나무와 같이 하나의 기둥으로 되어 있으며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레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대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원예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이 부부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Tokyo 외곽에의 중심에 깃대같이 생긴 이 집은 식물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대지의 깃발 부분은 좁아서 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었으며 또 정원도 만들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일반적으로는 남



Tree House

쪽에 정원이, 북쪽에 주택이 높이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했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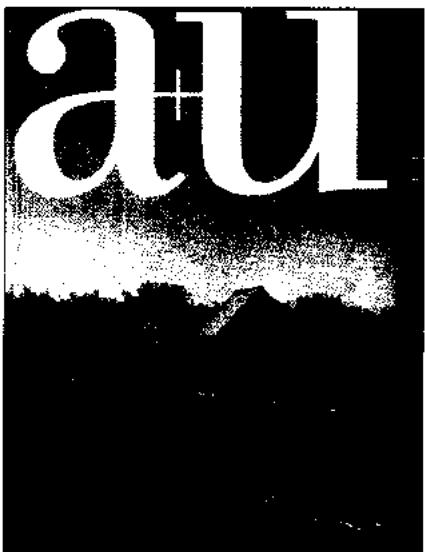
대지의 깃대가 되는 부분은 입구로 써 사용되었고 내부의 중앙에 기둥을 만들어 사적인 공간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이 불룸감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식당, 부엌, 침실 및 거실을 단지를 이용하여 구별하였다. 부엌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부엌보다 높은 식당, 거실, 침실과 재료를 달리함으로써 공간을 구분하였다. 또한 이 기둥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아래로 내려주는 깔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부드럽고 튼튼한 방수처리된 표면, 폴리우레탄으로 기둥의 상부를 포함하여 지붕 전체가 덮여있다.

지붕처럼 외부벽은 거친 느낌이 나는 모래가 섞인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 샌드스톤의 재질을 연상케 해 준다. 건축적인 표현을 위해서 내부와 외부는 많이 다르지 않다. 이웃과의 조화를 위해서 주택의 색은 풍경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중성색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집은 결손한 외관으로 역동적으로 디자인된 내부를 감추고 있다. 일본의 전통인 목조 주택은 아마 자연과 함께 짜놓은 듯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Tree House는 자연을 건축으로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Project X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Jan De Vylder Architecten
Les Ballets C de la B and LOD
Ghent, Belgium 200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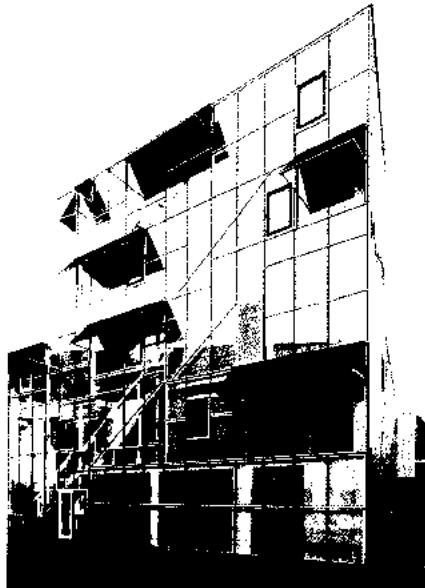
예기치 못한 행운

이것은 아란 프라텔 발레단과 음악극장 LOD 무도와 음악을 위한 2개의 제작 스튜디오다. 그것은 하나의 빌딩을 공유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점유하는 건물을 갖게 되었다. 17번으로 나누어 진토지에 놓여진 이 부지는 그 지세(地勢)와 건물이 갖는 양식,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졌다.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의 공간이고, 또 여러 건물과 그것을 에워싼 주변과의 사이에 생긴 개인적인 공간이다.

한번 살펴 보았더니, 이 토지에 있는 복잡한 부지경계선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불가능성으로부터 밭상이 여기에서의 컨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이가 기점(起点)이다. 하나의 건물이 아닌 몇 개의 건물을 보는 방법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클라이언트는 이 불균형 감각을 환영했다. 그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 행위는 어느 의미에서 일런드(Eland, 큰 영양의 일종)의 생애 상황과 커다란 관계가 있고, 일정 기간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또 헨트 시(市)의 몇 곳의 자문기간에 의해 이 컨셉이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비요르크 전체의 공간 배치에 잘 적합하고, 2개의 건물을 이용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한편에 각 공간 사이에 멋진 모양의 미로를 만들어낸다.

두 건물은 똑같다. 그것은 어느 일정한 COPY고, 거울모양이고, 그리고 차이도 있다. 2개의 건물은 등을 맞대 건설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2개의 닫힌 건물에는 열린 파사드가 2개 있고, 가동과 대들보가 만드는 층, 금속, 목재, 콘크리트와 석재의 겹침 등 건물 내부와 구성을 보여준다. 건설공사는 건물 표면과 디테일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두 개가 있는 파사드가 새겨지듯이 건물이 열리고, 갑자기 측면의 공간을 보여준다. 그것은 설치한 듯한 측면의 공간과 연락단계를 보여주고, 때로는 건물의 중심부분- 스튜디오- 도 보여준다.

디테일 부분의 시공은 충실히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결합되어있는지가 디테



일하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소재와 소재가 옆으로 나열되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하얀 목재의 대들보는 파사드 上의 여러 요소의 층을 꿰맨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 스튜디오의 닫힌 벽을 보면 하얀 목재의 구조재는 떠 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의해 이 닫힌 파사드는 유리면과 같이 얇게 겹쳐져 보인다.

파사드는 식재(植裁)로 덮혀 있다. 이들 초록 파사드는 식생(植生)된 지붕과 궁합이 잘 어울린다. 식생된 지붕은 그 일부가 깨진 기와지붕 - 주위는 예쁘고 빨간 기와지붕의 경사 지붕 밖에 없기 때문- 과 초록 잔디밭이다. 이 지붕은 미관뿐만 아니라, 테라스라는 기능을 가지며, 또 물 흡수를 촉진한다. 이 시점에서는 에너지에 관한 특별한 법규는 없었지만, 우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생각했다. 물론 에너지 수요를 억제함에 있어 단열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닫힌 벽과 2중 유리 창문은 냉난방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조적 공간은 열선보호유리와 차양 루

바를 더한 유리면으로 한다. 이것은 유리로 둘러싸여있으면서 여름과 겨울 계절의 공간을 쾌적하게 한다. 그 외 음향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110데시벨 음량이 요구되는 한편, 스튜디오 안에서는 완전한 정숙이 필요했다.

우선 콘크리트 외벽이 요구되었고, 그곳으로 유리가 끼워졌다. 이 2중 유리 조금 둘출된 창의 시스템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실제로 보조적인 공간 구성도 거의 동일한 원칙에 따르고 있다. 공기조절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유리를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들은 기술적인 요구는 좋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자원의 유지를 생각한 계획이란 에너지나 재료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좋은 건물을,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dmvA architecten

Blob

Brecht, Belgium 2008~2009

기동성

dmvA architecten이 주택의 중축계획으로서 X팩터에이전시즈(가구 디자인) 사무소를 위해 작성한 디자인은 이 지구(地區)의 건축법규에 의해 가치없이 각하였다.

건축법규의 대처, 또 동시에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dmvA architecten은 블럭이라는 모바일 유니드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것은 이동 가능한 건축물로서 또 art로서의 고도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건축법규에 의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건설에 임했던 AD&S는 이 프로젝트에 1년 반을 보낸 결과, 이 계란과 같은 매끄러운 표면을 실현시켰다. 이 스페이스에 그와 같은 집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결국, 욕실, 부엌, 조명, 침대, 그리고 소지품을 수납하는 선반 등을 갖추고 있다. 코처럼 둘출된 'nose'는 자동으로 열리고, 파우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이 모바일 유니드는 사무소나 게스트 룸, 음접실이나 가든 하우스 등 생각한 대로 사

용할 수 있다. 이용된 재료는 폴리에스텔, 콘트레일러 하우스 정도의 사이즈이고 어디에서 좋아하는 장소로 운반할 수 있다.

新建築

SHINKENCHIKU 2010

4
特集・東京2010



이번호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공간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근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교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배경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방법과 학교건축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초중일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저층형학교를 소개하고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공간이 제안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상호융합적 공간과 프로세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새로운 관계구축

학교제도의 강력화

학교는 사회와 어른의 생각이 직접 반영되는 장이다. 그곳에는 고향 생각과 외동아이의 부모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된다.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는 근면하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해 지탱된다. 국가가 교육개혁에 임하



는 이유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갈 능력을 우리 아이야말로 가지길 바란다.

일본은 메이지 시기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후, 학습지도요령으로 나타내는 교육프로그램과 표준 설계와 보조금에 의한 환경정비의 구조에 따라 전국 일률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담보해 왔다. 정밀도가 높은 운용과 철저함으로부터 큰 성과를 올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원동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를 달성한 순간, 학교라는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빈발하게 일어났다. 학급붕괴에 등교하지 않음, 교원의 불미스러운 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사건 등 학교이기에 유지되어 왔던 질서가 붕괴되는 현실을 눈앞에 보게 된다. 또, 국제사회에서 「학력관」의 다양화는 학교에서 얻어진 학력이 사회를 살아가는 힘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불명확하다. 생활과 목이나 종합적 학습 시간을 도입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스페이스를 정비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학습도달도조사(PISA)의 결과를 추적해 보았다. 성숙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절을 분별하고 화를 중요시하는 것이 조용한 인물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개성과 주체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곤란한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과에 분단된 지식을 통합하는 정답이 없는 과제로 대처하는 등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지금 확실히 종래의 경직화한 제도를 강력화는 시도가 제시되고 현행제도 내뿐만 아니라 구조개혁특구제도나 연구개발학교를 활용한 실천이 시작되고 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통학구제도는 학교현장에 경쟁원리를 가져왔다. 적은 인원의 교육은 1교래스당 아동수를 20~2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이다. 학교평의원이나 학교운영협의회는 학교운영에 지역의 지혜와 힘을 가진 방책으로서 또 외부로 열린 운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또, 6~3제의 의무교육을 강력화하는 시도로서 초중일관 교육으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중일관에 의한 교육환경재편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교육하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준비해 의무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속시키는 큰 동기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환경이동과정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이 있다. 양자의 불연속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중1 갭이라 불리는 이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도비시 마학원」(본지 177쪽)의 계획·설계에 참석한 시기를 전후해서 동일 교사(校師)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계획에 관련되었다. 역시 이 4월에 막 개교한 「나고야시립 사사지마초중학교」는 저출산에 의한 도심부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통폐합한 것으로 「초중일관교」 및 「초중일관교육교」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낫신시(市)의 타케노야마 지구 신설학교는 인구증가에 대응한 분리 신설학교로 「초중연계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쪽도 목표로 하는 학교상이 다르고, 초중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에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서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설계에 의한 대량 학교 건축 스톡을 안고 있으나, 하드를 지속할 시스템, 간신할 시스템 결여, 재정난이 재생 발목을 잡는다. 새로운 시대에 입각한 교육환경의 구축도 급선무이고, 저출산 사회를 향한 규모축소를 동반한 학교환경의 재구축에 쫓기고 있다. 초중일관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북구유럽의 스웨덴의 국민기초학교는 동일 학급담임이 9년간 아이와 마주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철저한 편이다. 그러나 6~3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의 다른 문화를 강하게 형성하고, 평평한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명의 학급담임이 학습과 생활 양면에서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과 특정 교과학습에서의 접촉과 생활지도에 쉽게 치우치는 중학교 교원이 의논하기 위해서는 차 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교원면허나 인사 등 제도면의 자세는 반드시 초중일관에 대응했다고는 할 수 없다.

공립학교에서 초중일관 실천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고,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아이들의 학습, 교류, 건축 관점에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 레벨에서 전문적 지도 시기이다. 중학교 원에 의한 교과담당성(性)이 고학년 수업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학력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폭넓은 세대 교류로 저학년에 대한 배려나 고학년에 대한 동경을 키울 수 있다. 그를 위해, 교류 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안정적으로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 학년배치에 대한 배려가 조건이 된다. 건축적으로는 학교 건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면 공유공간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선진 사례를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학년의 여러 학급이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가진 「쇼난초중학교」(후쿠오카현 코오리야마시), 초중공유 런치룸을 가진 「시바엔초등학교 시바엔중학교」(도야마현 도야마시/ 본지 0806 설계: 시미즈 건설 시라컨스 K&H 신시고 건축연구소설계공동기업체), 초중 전체의 학습센터로서 위치한 도서실이 있는 「쇼바초중학교」(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등 참고가 된다. 초중일관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년 클래스가 인접한 교과센터 방식을 채용한 「지민중학교」(후쿠이현 후쿠이시)에서 학년을 벗어난 학생간 교류는 흥미 깊다. 아이들은 연령에서 나누어진 학년·학급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교류, 연계, 협력, 공동활동을 의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초중일관교에서는 수업으로 구축되는 시간외로 얼마나 자연적인 초중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같이 지붕아래 생활하는 아이들로 보면 연령을 뛰어넘어 서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놀고, 배우는 것에 전혀 울타리는 없다.

생애학습거점의 중핵으로서의 「도비시마 학원」

도비시마무라는 최첨단 항공우주산업, 고 기능 물류의 거점을 자리하고 있고, 뛰어난 재정력을 자랑한다. 마을내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각은 강하다. 영어교육에 힘을 쏟아 국제사회를 살아갈 아이들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매년 중학 2학년생 40명 전원을 미국 서해안의 흄스테이로 5박 7일로 보내고 있다. 그러한 실적을 발판으로 구조 개혁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축으로 하는 초중일관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했다. 이후 초중일체형의 새 교사(校舍) 완성을 향해 초중합동운동회 실시를 계기로 런치룸에서의 급식 시행, 각종 행사개최 등 초중에 의한 공동활동의 성과를 착실하게 쌓아왔다.

한편 이전의 초등학교 건물은 내진성에 문제가 있어, 동사무소 부근의 신부지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었다. 중학교는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어쨌든 새 초등학교의 부지로 이전하고 일체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초중이 독립된 원격지에서 일반교육의 운영에 있어 사례도 있지만, 문제도 크다. 학교시설 등 검토위원회(2003년 10월 설치)의 위원으로서 건설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과제를 정리, 설명하고 동일 시기의 시설일체형 교사의 현실을 강하게 말했다. 「도비시마 학원」마을 동사무소, 홀, 체육관, 온수 수영장, 도서관이 집중하는 마을의 중심 지역에 입지 한다. 운영에 따라서는 시설 상호이용이 가능하고, 마을의 사회교육, 학교 교육을 포괄하는 생애학습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와 관련시설과의 융합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초중일관을 기분좋게 시작하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아이들과 공간의 상호집합적 관계

교류장치로서의 학교_빌딩타입으로서의 학교는 다기능적이고 소규모의 공간이 패키지화되고, 운동장과 한 세트가 되어 특수한 공간을 구성한다. 보통교실과 음악, 도예, 조리, 이과, 체육 등 복수의 특별 교실이 여럿 인접하는 도식(圖式)은 마치 공간화된 시간

표이다. 다수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은 도시공간과 비슷하나,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다. 전형적인 북측면 복도를 기본으로 하는 L자형 교사는, 병렬, 중층이 쉽고, 증식방향 타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장으로서의 공간적 매력을 부족하고, 건축이 갖는 힘이 충분히 발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운데 정원을 넣고 막다른 곳이 없는 순환형 동선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건물이 계속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원은 바라보는 정원이 아닌 쉬는 시간에는 놀 수 있고, 수업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다목적 공간이다. 움직임이 단조로운 스트리트 타입과는 달리, 공간의 중심성과 동선의 순환성을 특징으로 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구성이다. 또, 주요 동선을 공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내부와 외부를 교묘히 나누어 조화시키면서 면적을 연속시키는 타입도 볼 수 있다. 「치바시립우타세 초등학교」(치바현 치바시)/
본지 9507 설계: 시라컨스), 「요시비타카하라 초등학교」(후쿠오카현 요비츄오초)/
본지 9807 설계 고이즈미+고토/C+A), 「군마국제아카데미」(군마현 타다시 본지 0507 설계 0507 설계 고토+우타세+아카마초/Can+CAT) 학년을 초월한 연결이나 학교의 일체감이 강하다. 동료와의 활동을 의식시키는 시선을 투과성에도 공리했음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이 타임, 스몰 스페이스_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교류가 한정적으로 되고 있다. 끈끈한 지역 혈연과는 무연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있어, 집단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는 여러 면에서 스트레스가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회장실 부스에 여러 명의 아이가 갇히는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체육관 뒤나 활동부실에도 쉽게 모인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책상만이 유일한 장소로서의 의지가 된다.

자신의 자리에 타인이 앉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즉시 불안해 진다. 자신의 교실 이외의 교실은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라도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 사회나 집단과의 관계에 갈등하는 모습의 표현이다.



교실과 인접한 다목적 공간을 도입한 일본의 학교는 지금 세계 중에서도 가장 플렉서블하고 개방성이 높은 공간을 실현하고 있다. 닫혀진 교실 공간이 열린 것으로, 역으로 아이들의 스케일에 맞춘 공간의 좋은 점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학습공간으로서의 훌륭한 것은 선진국의 적은 수의 교육에 대처, 그룹학습에 대응한 작은 방을 준비하여 스웨덴의 학교의 사례이다. 공간으로서는 작지만, 투과성이 높은 건물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폐쇄성을 말끔히 배제하고 있다. 미래의 학습환경을 패턴 랭귀지로서 제시하는 The Language of school Design(Prakash Nair & Randal Fielding, 2005)는 교류의 장을 캠프하이어나 풍차(watering Hole)이라는 은유로 또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스몰 스페이스를 동굴이라는 은유로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음습한 화장실 부스가 아닌 활동적이고 건강한 스몰 스페이스를 원한다. 동선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놓여진 알코브가 쉬는 시간에 조금만 긴밀한 동료와 시간을 공유하는 작은 공간으로서 인기가 있다. 자립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이다.

학습교재로서의 학교공간

학교 건축은 아이들을 안는 Built Environment(구축환경)의 총체이다. 연간

을 통해 반복되는 교내에서의 행동은 하드에 의해 패턴화된다. 학교건축은 아이들에게 있어 Nonverbal Communication(말을 이용커뮤니케이션)이고, Passive Lesson(수동적인 레슨)이고, Hidden Curriculum (숨겨진 커리큘럼)이라 불린다. 말하자면 저온 화상과 같이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는 발달단계의 아이들의 성장의 장이고, 기능적인 스펙으로서 명시할 수 없는 구축환경이 주어지는 영향은 인간관계가 주어진 영향 이상일지도 모른다. 또 학교건축은 그 자신을 3차원의 교재(3D-textbook)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교육의 사실적인 교재로서 살릴 수 있다. 환경공생시기에서 건축, 기술, 구조, 소재 등의 살아있는 환경과학의 대상이다. 참으로 각지에서 환경정비와 환경교육을 동시 병행하고 진행되고 있는 에코 스쿨사업에서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만드는 과정, 계속 사용하는 과정

건축사와 교사를 이어주는 것_공간 만들기의 프로와 인간 만들기의 프로. 건축사도 교사도 전문성이 높은 직종이다. 학교라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 창조에 양자의 지혜와 지성을 결합하고 싶다. 그러나 서로 전문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의식이 차이나는 것도 적지 않다. 계획론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아카데믹 플랜)에 입각하여 건축 프로그램 (퍼실리티 플랜)이 입안된 것이 이론적 흐름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설계자로부터 제안을 기본으로 수정을 더하면서 교사가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된다. 새로운 공간 창출에 의의를 불어넣는 설계자와 표준적인 교사를 메이지시대 이후 사용해 온 교원들과의 사이에는 목표상(像)에 갑이 있어 환경창조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를 연결하는 제3의 번역자가 요구된다.

초기의 계획, 설계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공통 이해되지 않은 채로는 단순한 하드 설계에 화제가 집중되기 쉽다. 의욕이 있는 교사가 근무시간외에 분투하는 것이 아닌, 학교 만들기가 조직으로서 임무에 자리배김 해야 한다. 수업 전개나 아이들의 생활이 건축공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배울 연수기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을 원한다. 3차원의 실제 공간이야 말로, 처음부터 알 수 있다. 설계해야 하는 공간이 사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 제안이나 수정도 가능하다.

병원 공사현장에서는 병실의 실물모형을 선행하여 제작하고, 의료스텝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계획 초기 단계에서 실제 공간을 체험하면서 검토를 거듭하여 모델 클래스 룸을 원한다. 소프트 운영과의 관련으로 하드를 검토하고 싶다.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의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물레이션 스쿨이다.

지속기능한 학교 건축_학교 건축은 인구 증가시기에 매우 급히 지어진 이후 쉽게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노후화가 현저하다. 간신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한 자치제는 어쩔 수 없이 생활할 수 밖에 없다.

공공시설인 학교 건축은 많은 관계자가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키는 주인이 없다. 10년이라는 간격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교원은 이동하고 남아 있지 않다. 교장, 교감의 임기는 더 짧다.

아이들은 물론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 보호자도 아이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 행정의 담당자도 인수 인계하면서 바뀐다. 인수인계가 중요하지만 일어난 일의 경위는 전달되지 않고, 결모습만이 형태만으로 전달된다. 장기적으로 몇 대에 걸쳐 학교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지역이 학교를 필요로 하고, 학교가 지역을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다. “학교개방”이라 말하고 있는 동안은 스포츠 시설의 대여에 한정되고, 다기능적인 공간은 활용되지 못한다.



실이나 비오탑 등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실제로 제작하거나 해서 흔적을 남기는 방법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학교에 대한 프라이스 어태치먼트(장소에 대한 애착)를 키우고, 어느 종류의 교육효과가 기대된다. 혹은 완성되는 세로운 학교의 사용법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워크샵 등의 효과도 계속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참가기회가 막 인정받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아이들의 참가 의의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그 방법도 미숙하다.

독일의 켐펜킬렌에서 수많은 해에 걸쳐 건축가와 협동하면서 아이들 자신이 환경공생형의 미래 학교를 실현시키고 있는 경우는 놀랍다. (베타 휴프너 “아이들이 학교를 만든다”) (가지마출판 2008년).

로저 하트에 의한 참가 사다리는 잘 알려져 있는 (Children's Participation, 1977년) “어른이 정하지만 아이들도 참가한다” 단계를 거쳐 “아이들이 주도하여 결정하고 오른도 공유한다. 단계를 목표로 한 것이다. 영국의 the Nation Youth Agency의 hear by Right (히어 바이 라이트)의 이념과 방법에서는 순진, 공정으로 확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과 아이들로 사회의 구조를 보다 잘 바꾸어 가자”라고 젊은이의 사회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학교 건축의 설계가 아이들에 대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기회라고 잡을 수 있는 레벨에는 도달하지는 않았다. 어른은 장래의 사회만들기의 클라이언트로서의 아이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상호집합적인 공간과 프로세스야말로 인간과 마주보는 힘을 갖게 되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임에 틀림없다. ■



클라이언트로서의 아이들_사인이나 학장

김동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by Kim, Dong-bum